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진흥계획

2017.9

Contents

I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개요

- | | |
|--------------------|----|
| 1. 공공디자인의 개념 | 8 |
| 2. 목적 및 필요성 | 9 |
| 3. 관련조문 | 9 |
| 4. 공공디자인 현황 이해와 인식 | 10 |

II 제주 현황조사 및 분석

- | | |
|-----------------------|----|
| 1. 조사 분석의 개요 | 13 |
| 2. 제주 공공디자인 관련자료 조사분석 | 13 |
| 3. 관련법규 제도 정책 조사분석 | 19 |
| 4.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현황 | 21 |
| 5. 공공디자인 관련사례 조사분석 | 27 |
| 6. 공공디자인 현황 종합분석 | 35 |

III 기본구상

- | | |
|------------------|----|
| 1. 비전 | 40 |
| 2. 기본원칙 | 40 |
| 3. 기본방향 | 41 |
| 4. 진흥 종합계획과의 관계성 | 43 |
| 5. 기반구축방안 | 44 |

IV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 | |
|----------------------|-----|
| 1.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필요성 | 50 |
| 2. 가이드라인 적용 및 기대효과 | 50 |
| 3. 공공디자인 일반지침 | 51 |
| 4. 적용대상별 가이드라인 | 54 |
| 5.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및 운영방안 | 100 |

V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선도사업

- | | |
|----------------|-----|
| 1. 디자인 행정 서비스 | 113 |
| 2. 어르신 생활 디자인 | 114 |
| 3. 스트레스 프리 디자인 | 116 |
| 4.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 | 11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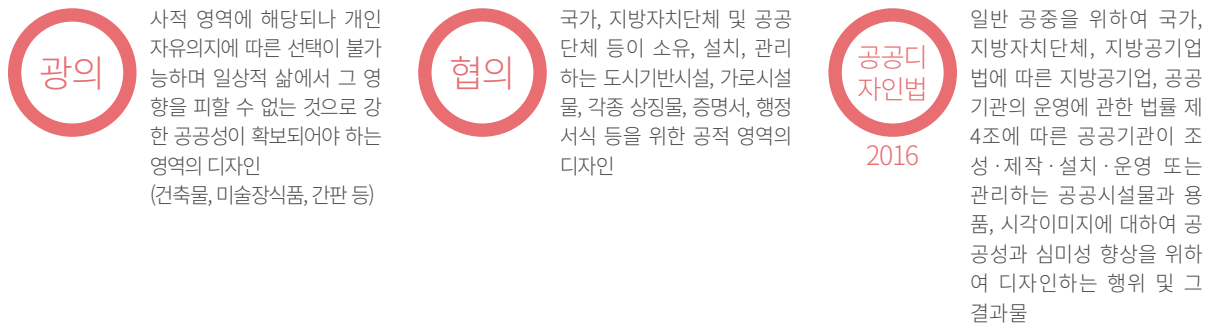
I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개요

1. 공공디자인의 개념
2. 추진배경 및 목적
3. 관련조문
4. 공공디자인 현황 이해와 인식



1. 공공디자인의 개념

사전적으로 공공디자인은 공공장소의 여러 장비 및 장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꾸미는 일로 정의된다.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해 철저한 계획과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며, 공공성을 띄고 있기에 국가, 지자체 및 공공단체 등이 소유, 설치, 관리, 개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공디자인의 주체 : 공공에 의한 디자인

공공디자인의 주체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공공의 정의에 따르면 국·공기관과 사회구성원으로 나누어진다. 전자의 경우 사업의 주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일 경우를 의미하며, 사업의 발주처 또는 공급자로서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는 모든 디자인이 이에 속한다. 후자의 경우 사회구성원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사회구성원의 참여는 소극적으로는 개인의 의도나 욕구를 반영시키기 위하여 의사를 개진하는 것으로부터 디자인 전개, 제작 등의 직접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공공디자인의 목적 : 공공을 위한 디자인

공공디자인의 수요자가 공공이라는 것은 곧 디자인의 목적이 공공의 요구에 맞추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즉 디자인이 생산되는 즉시 그 집단의 모든 구성원에게 소비의 혜택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디자인의 목표이다. 따라서 공공디자인은 개인적인 취향보다는 공중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더 중시하며, 유행이나 트렌드에 맞추기보다는 공공성과 객관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디자인의 초점을 맞춘다. 공공디자인은 경제적인 이유를 지향하기보다는 시민의 안녕과 행복 같은 사회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개인 차원을 넘어 모두의 삶의 질을 총체적인 입장에서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디자인이다.

공공디자인의 소유 및 대상 : 공공의 디자인

소유의 관점에서 볼 때 공공디자인은 국가나 공공기관에 귀속되어 있다. 이는 수많은 사회구성원들이 대면할 수 있는 장소, 예를 들어 가로나 광장과 같은 요소들이 대부분 공적 영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 상업디자인의 경우 소유자가 곧 디자인 가치를 향유하는 입장이 되지만, 공공디자인의 경우 소유관계가 공공기관에 속해 있을지라도 디자인 가치에 대한 수요자는 일반 시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디자인 가치에 대한 소유와 활용에 대한 권리가 공공에게 제공되는 것이 공공디자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For the People

- 모두를 위한 디자인
- 사회 구성원을 위한 디자인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디자인
- 공익의 증진을 위한 디자인

- 사회 구성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디자인
- 집단의 정체성이 표현되는 디자인
- 공공의 디자인
- 공중이 함께 누리는 디자인

Of the People

By the People

- 공중에 의한 디자인
- 사회 구성원의 참여에 의한 디자인
- 공공의 의도와 목적이 반영된 디자인
- 공공 기관, 국가에 의한 디자인

- 모두에게 전달되는 디자인
- 공중의 특수한 필요를 충족하는 디자인
- 공익에 기여하는 디자인
- 공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

To the People

2. 목적 및 필요성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문화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시행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공공디자인 구축·관리 방안 등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제주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필요

공공디자인의 심의기준,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시설물에 대한 품질향상 및 공공 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재고로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3. 관련조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계획수립
사항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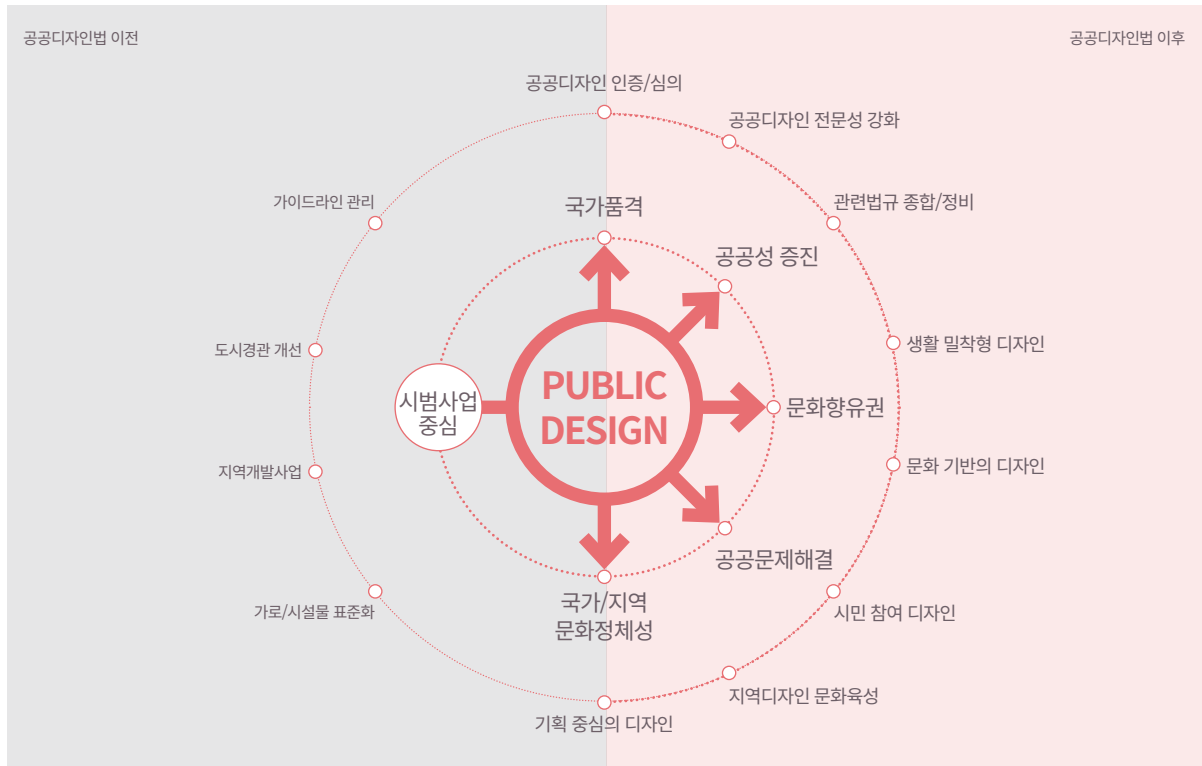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종합적 ·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법 · 제도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업시행
원칙 반영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하도록 한다.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3. 국가 ·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 · 균형을 이루 도록 한다.
4. 공공디자인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5. 공공시설물등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과 적극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6.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공공디자인 현황 이해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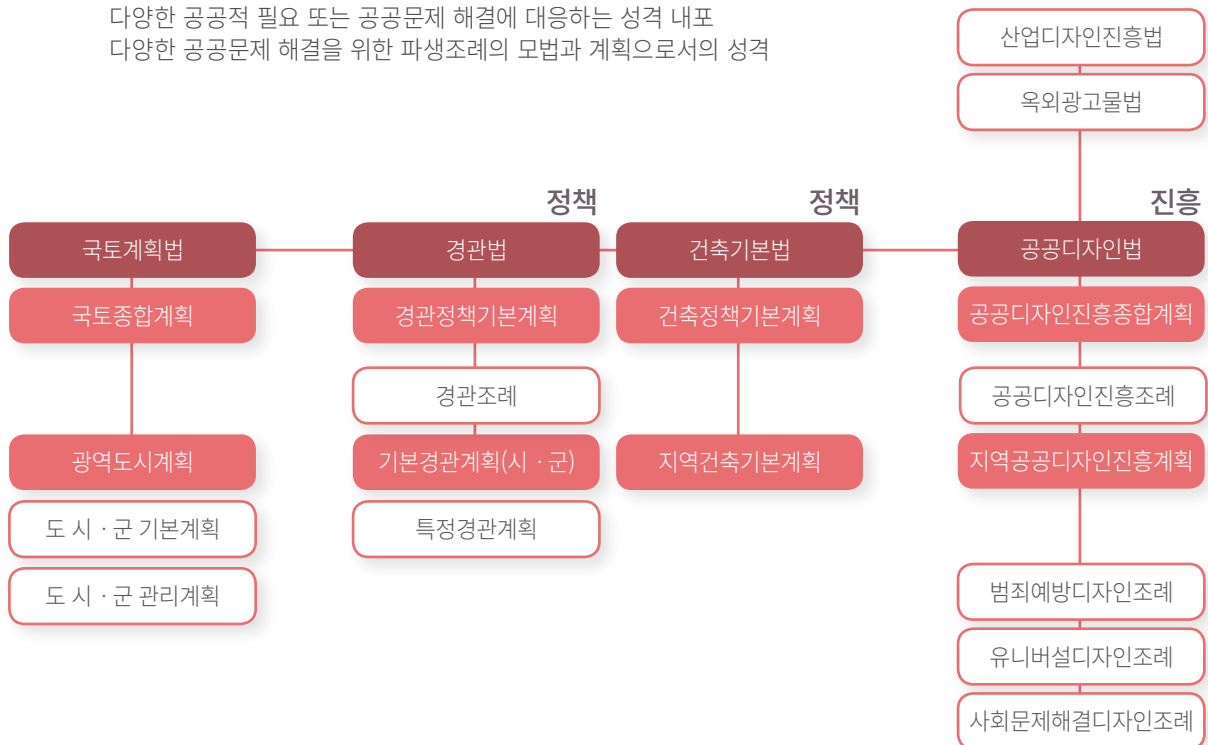
4.1. 공공디자인의 지향가치와 목표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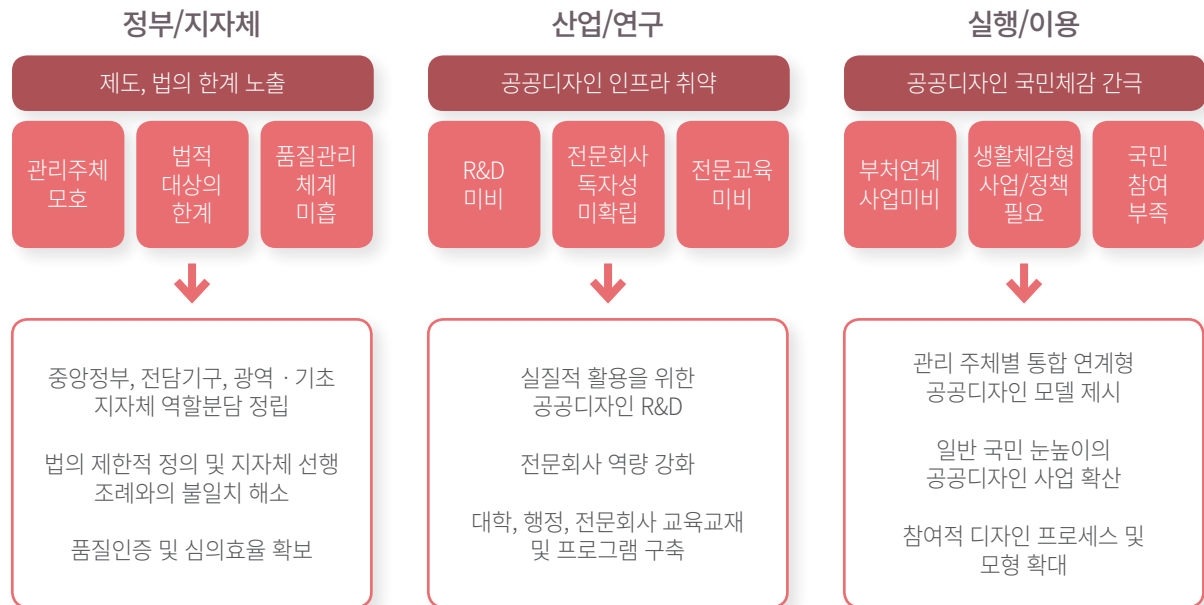
4.2. 공공디자인 관련 법 및 기본(종합)계획 관계도식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성격

정책 기본계획 성격이 아닌, 실질적 진흥수단으로서의 계획 성격
다양한 공공적 필요 또는 공공문제 해결에 대응하는 성격 내포
다양한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파생조례의 모법과 계획으로서의 성격



4.3. 공공디자인법 제정 이후 현황과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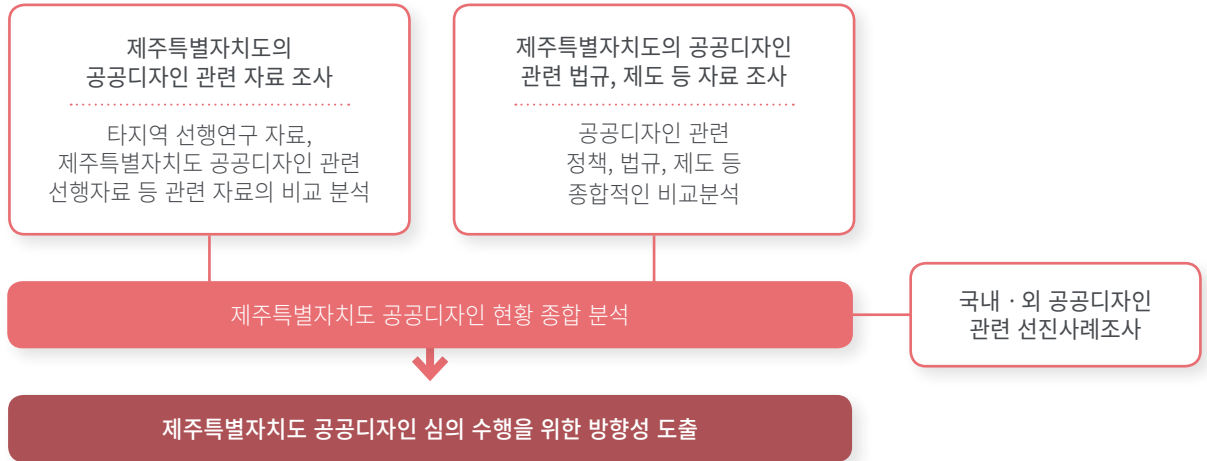
II 제주 현황 조사 및 분석

1. 조사 분석의 개요
2. 제주 공공디자인 관련자료 조사분석
3. 관련법규 제도 정책 조사분석
4.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현황
5. 공공디자인 관련사례 조사분석
6. 공공디자인 현황 종합분석

1. 조사 분석의 개요

개요 및 방향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관련 실태파악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방향성 도출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분석의 내용 및 방법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조사/분석 체계도)

2. 제주 공공디자인 관련자료 조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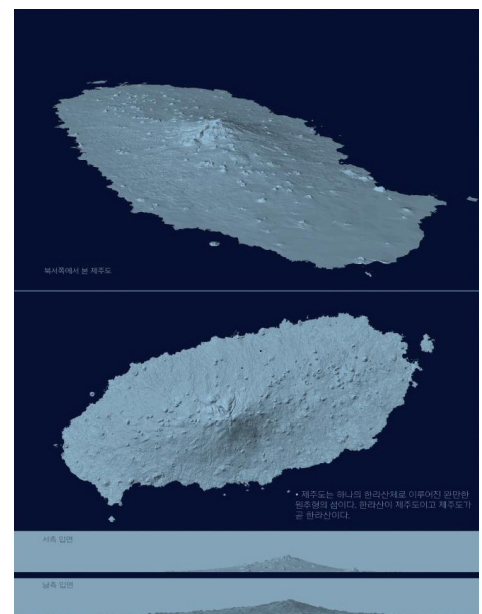
2.1. 자연경관

한라산과 제주도

- 제주도는 하나의 한라산체로 이루어진 완만한 원추형의 섬. 한라산이 제주도이고 제주도가 곧 한라산.
- 제주도는 여러 차례 분출한 점도가 낮은 용암이 완만하고 넓게 퍼져 형성된 완경사의 순상화산(aspited)체.
- 한라산=제주도는 [동북동(ENE)-서남서(WSW)] (N70°E)방향이 장축을 이루는 반타원형으로 장경73km, 단경 31km. 중앙으로 갈수록 경사가 급해지며 중심부에 1,950m의 한라산이 위치.
-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사면은 매우 완만한 경사(3~5°)를 이루고 있으나 남북사면은 동서보다 급한경사(5~10°). 특히 동서방향 장축의 끝 지역은 넓은 평원이 형성.
- 해발고도 200m이하 지역이 전체 면적의 55.3%로 해안지대, 고도 200~500m의 지대는 전체면적의 27.9%로 목장지나 유흥지이며, 고도 500~1,000m지대는 12.3%, 1,000m이상의 고산지대는 4.5%.



한라산=제주도 원추형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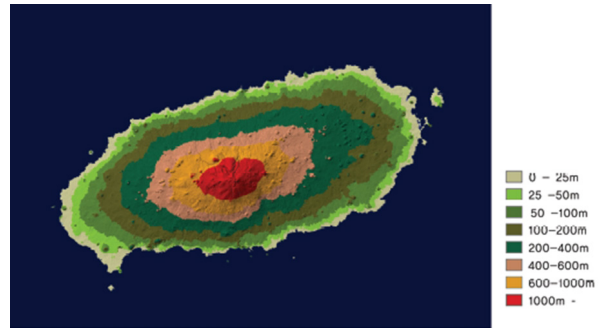


(좌) 서귀포시 법환동 남측 바다에서 바라본 한라산=제주도



(좌) 제주시 조천읍 북측 바다에서 남측으로 바라본 한라산=제주도 / (우) 제주시 한경면 서측 바다에서 동측으로 바라본 한라산=제주도

- 표고분석, 경사도분석, 경사면의 방위분석에서도 한라산=제주도의 지형이 완만한 원추형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한라산=제주도는 동서방향과 남북방향 사면의 경사도가 차이가 날뿐 섬 전체가 동심원적으로 균질한 지형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 더구나 제주도는 유년기 지형으로 지표의 침식이 미미한 상태여서 침식에 의한 지형의 국지적인 특성의 형성도 미미하다. 단지 해안에서 중산간지역까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기생화산인 오름들이 지형경관의 국지적 개별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한라산=제주도 표고분석

하천

- 제주도에는 60개의 지방2급 하천과 83개의 소하천이 분포되어 있다. 이 중 60개의 준용하천은 지류하천을 포함한 숫자이며 하류에서 하나의 하천으로 만나는 독립된 하천은 34개로 파악된다.
-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땅이다. 침식이 얼마 진행되지 않은 유년기 지형으로 하천이 발달하지 못했다. 한라산 고지대 백록담 정상 남북 측으로는 V자형 침식계곡을 따라 소규모로 지표하천이 형성되어 있으나 평탄한 현무암질 용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주도 동부, 서부지역에는 하천의 발달이 극히 미미하다.
- 제주도의 하천은 대부분 한라산을 중심으로 방사상 수계를 이루고 있다. 전체적으로 완만한 원추형의 한라산=제주도의 지형에 따라 형성된 체계이다. 하천의 연장은 한라산 남북사면에서는 10km에도 못 미치며 가장 긴 하천인 천미천도 총 연장이 약 25km에 불과하다.
- 제주도의 하천은 대부분이 평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들이다. 지표수를 모아 하천을 형성하기에는 제주도의 지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화산암류와 화산쇄설물의 투수력이 너무 높다. 지표수가 지하로 쉽게 침투함으로 지하수의 형성은 용이하지만 지표면의 하천의 형성은 극히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건천의 현상은 국내에서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것으로 경관적으로도 두드러진 특징이 되고 있다.

해안·바다·섬

- 제주도의 해안선의 길이는 부속 섬들의 해안선을 포함해 총 419.95km이다. 제주도 본섬의 해안선이 308.32km이고, 추자도와 63개 부속 도서의 해안선이 111.63km이다. 이 중 자연 해안선은 370.10km이며 방파제 축조 등으로 인한 인공 해안선은 49.85km이다. (국립해양조사원 2005년 조사)
- 우도면 우도, 한림읍 비양도, 대정읍 가파도, 마라도, 추자면 상추자, 하추자, 추포도 등 8개 유인도와 55개 무인도를 포함하여 총 63개 부속 섬들이 있다.
- 해안을 연해 절벽들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화산쇄설성퇴적암류로 구성되어 있는 송악산, 산방산 및 성산일출봉 일대를 제외하면 조면암이 노출되어 있는 안덕, 서귀포 등지에 한정되어 있으나 극히 일부지역인 남원과 애월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현무암의 절벽이 발달하여 있기도 하다. 제주도에 분포하는 폭포는 거의 전부가 조면암류로 이루어진 절벽에 국한되어 있다.
- 제주도의 해안 곳곳에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바다로부터 바람에 의해서 운반된 해양성모래로 이루어진 소규모 사빈(sand beach)이 발달해 있으며, 동남계절풍에 의해 바람의 방향과 유사하게 배열된 사구(sand dune)를 형성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 동북부 해안지역은 대규모의 사구층을 형성하기도 한다. 제주도의 남부해안지역 즉, 산방산-군산, 대포, 외돌개-서귀포, 남원을 잇는 해안선은 전체적으로 융기해안지형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모슬포의 일부 해안지역은 해안 단구의 특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2.2. 문화경관

역사경관

- 제주도의 경관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오름, 목장, 포구, 하천과 같은 자연환경요소와 일상적인 생활활동 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 축적되어온 역사문화재요소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주인들은 이러한 자연환경과 문화·역사환경을 바탕으로 독특한 삶의 문화를 형성하여 왔다. 즉 이러한 경관요소들은 제주도를 연상시키는 고유의 언어이며, 역사문화적인 경관 요소들은 인공적인 개발과 조화로운 경관을 이루도록 해야한다.
- 특히 저항과 항쟁, 그리고 수탈의 역사적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제주도는 적지 않은 전통문화재와 근대 문화재가 남아있어 역사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활용가치가 높다.
- 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는 문화재보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등의 관련 법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 의해 보호됨과 동시에 문화재 주변 반경 500m 이내는 현상변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 한편 해안마을주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축조하여 사용하여왔던 등명대(일명 도곶불), 잣성, 산담, 밭담과 돌담, 일제강점기 전적지, 한국전쟁 전적지, 4·3 사건관련 유적들이 산재해 있는데 일부는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아직 지정되지 못한 역사문화자원들이 많다.
- 제주도의 풍경과 역사경관은 관광지로서의 개발과 삶의 질적 향상이라는 측면에서의 개발의 논리아래 너무나 많은 것들이 훼손되었거나 상실되었다. 제주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남-북으로의 양적 개발, 육지부의 유사한 도시계획 수립으로 인해, 일반적이고 무표정한 상업 건축물들이 혼재되어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고유의 마을 풍경, 그리고 역사문화경관이 크게 훼손되어왔다.
- 한편 2000년 이후 제주 목관아지 복원사업의 시행 등 역사경관의 복원이라는 측면과 아울러 관광자원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2007년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됨으로서 제주도의 자연환경적 가치를 새롭게 평가받는 계기가 되었다.



삼성혈 주변의 변화모습(왼쪽:1968년대, 오른쪽:1990년대)

주택지경관

- 제주지역의 주거양식은 해방 이후 혼란기 과정을 거치면서 비교적 다양한 주거양식이 부분적으로 도입되기도 하였으나 1960~1970년대의 관광지 개발붐과 새마을 운동은 건축의 지역성·향토성 상실로 이어지는 일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새마을 운동에 의해서 크게 변하기 시작하였다.
- 1973년부터 농촌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을 목표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주택개량과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팔자형(八字形)의 건축형태와 현대화된 재료의 사용 뿐만 아니라 초가 중심의 주거에서 슬레이트 지붕과 블록으로 지어진 주택이 주류를 이루게 됨으로서 제주 전통초가의 형태, 장소성있는 마을의 공간 풍경이 사라지게 되고, 현대화된 주거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 특히 1974년 제주도를 방문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개발되었던 제주시 연동지구의 신제주 지구가 1978년에 마무리되어 제주도 최초로 아파트가 건축되면서 본격적인 아파트 주거문화가 자리잡기 시작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시범관광도시로서 지역간 균형발전과 격차해소, 기성시가지의 지가(地價)상승억제, 주요 행정기관 등의 업무시설 유치에 의한 도시기능의 증진, 주택난해결을 목적으로 1977년부터 제주시 연동 지역의 2백만평 토지를 대상으로 신제주 구획정리 사업이 실시되었다.

- 그러나 신제주 구획정리사업은 우선적으로 관광개발을 위해서 수립되었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균형적 배치계획과 제주 지역의 경관형성·유지를 위한 건축물 규제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숙박시설의 급증과 이국적 주거 문화의 도입으로 인한 도시경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주도 차원의 도시미관과 건축형태에 대한 심의지침이 마련되었고, 시군별로는 건축위원회가 구성되어 건축형태를 규제하였다. 이들 시책들은 관광객을 고려한 건축형태와 도시미관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실제 주민의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 한편 1980년대와 1990년대 들어서는 비교적 대형건축물이 많이 건축되었고, 1970년대의 무비판적 개발에 대한 반성으로 제주건축의 지역성과 향토성에 대하여 서서히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말에 불어온 지가상승의 열풍과 주택수요의 급증현상은 오피스텔과 아파트 건축붐으로 이어져, 고층화, 대형화되어 지역성 건축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상실시키고 말았다.
-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 제주도의 도시와 건축의 모습을 크게 변하게 한 중요한 계기는 공동주택단지의 조성 and 그린벨트 지역의 해제, 규제완화에 따른 고층건축물의 등장을 들 수 있다.
- 특히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공동주택단지 조성은 주택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어, 대규모 단지가 조성되면서 고층화, 고밀도의 주거건축이 등장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제주시 연동지구와 노형지구의 공동주택단지로, 이들 대규모 단지의 건설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제주 도시경관의 개성을 상실하게 하였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연동, 노형지구에 조성된 공동주택단지

도시·마을 경관

- 제주도의 경관을 문화적, 비문화적으로 크게 변형시킨 계기는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대규모 리조트형 관광개발사업과 2000년대 이후 7대 선도프로젝트를 중심의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들 수 있다. 이들 정책은 중앙정부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농업사회의 제주산업구조를 새롭게 변화시켰거나 변화시킬 요인들이라는 점도 공통점이다.
- 제주도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개발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개발과정에서 땅에 대한 배려와 역사적 가치의 수용, 그리고 개발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문제인 것이다. 자연과 부조화되는 개발은 문화풍경의 훼손 차원을 넘어 삶의 환경에도 심각한 훼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 새 천년에 들어서 제주도는 지역성이나 향토성과 같은 부분적이며 지역적인 건축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사와 깊은 관련성을 가진 4·3사건, 국제자유도시와 같은 정치적 사회적 이슈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다.
- 1960년대 시작된 제주도의 관광개발이 제주사회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도시와 건축을 크게 변모시켰듯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시와 함께 추진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제주의 도시건축을 크게 변화시켰다. 또한 고도완화에 따른 도심지역에서의 고층건물이 현저히 증가하면서, 경관적인 문제와 교통문제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시켰다. 이와 같은 도심에서의 고층화는 장기적으로 주변지역을 고층화하는 압력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해안 경관

- 제주도의 가로환경이 문화적 요소가 결핍된 거리와 도로로 변화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는 일본식민지시대의 해안일주도로 개설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일제는 제주도에서 사업하는 일본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제주도의 각종 해산물을 외부로 반출하기 위한 생산기지로 만들기 위해 해안일주도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다.
- 이후 1992년부터 해안경관을 관광객들이 즐기고 또한 해안마을의 편의성을 제공할 목적으로 해안선에 근접하여 도로개설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 해안도로개설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해안에 근접하여 개설됨으로서 해안과 육지로 이어지는 생태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과 해안도로를 따라 펜션과 카페 등의 상업적 건축물, 그리고 적지 않은 양식장이 들어섬으로서 해안마을 원래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이 제주도 해안마을의 현실이다. 특히 양식장은 배출되는 폐수로 인해 주변 해안환경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양식장의 폐쇄적인 형태의 외관으로 인해 해안경관을 훼손시키고 있다.

공공시설물 현황

- 공공시설물은 특정 장소와 거리에서 쾌적한 보행과 휴식, 편리한 길 찾기, 거리의 미관을 형성하는 경관요소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제주도의 공공시설물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심지와 관광지를 중심으로 집중 배치되어 있으며 건물 등 구조물들과 함께 경관의 인상과 거리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 공공시설물의 미관이 경관요소로서 중요해짐에 따라 제주도는 '이중섭 거리 야간경관조성사업', '신화거리조성사업' 등 특화 거리를 조성하여 공공시설물 디자인 관련 사업을 시행하여 가로시설물 및 안내판 디자인 개선을 중심으로 공공시설물의 시각적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공공사업을 시행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제주도 전체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및 배치 관련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므로 국지적이며 개별적인 가로 시설물을 생산해냄으로서 제주도 가로경관의 통합과 일관성을 총체적으로 구현하지 않았다.
- 또한, 공공시설물은 제주도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지원하는 시설물이므로, 사용편의성과 미관의 적절한 조화를 지향해야한다. 그러나 제주도 상징 도상의 직접적인 표현방식이 많이 나타나므로 공공시설물에 이미지 요소의 과잉이 나타난다.
- 따라서 제주 공공시설물의 각 개별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기본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로 삼고자 한다. 가로시설물의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무암 소재의 시설물이 많이 배치됨

소재, 형태, 크기가 다른 시설물이 혼재됨

과도한 형상 표현, 일관성 없는 디자인 계획에 의해 이미지 과잉이 나타남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은 공공시설물의 배치

안내판 개수의 과잉, 정보 체계의 일관성 미비

옥외광고물의 경우, 광고물 디자인의 문제점, 관리 및 행정의 문제점 등으로 산만한 가로 경관이 형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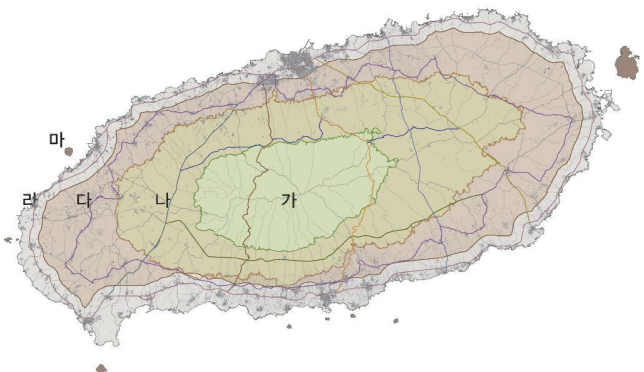
조명의 종류·조도의 불연속, 조명의 기능과 특성을 반영한 야간 조명 가이드라인 부재로 지역 특성과 기능적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야간 경관이 형성됨

2.3. 제주 경관단위

기본경관단위

자연경관현황 및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해발 고도에 따른
기본경관단위 설정

- 경관단위 가 : 한라산 해발고도 600m이상
- 경관단위 나 : 중산간 해발고도 200m이상 600m미만
- 경관단위 다 : 중산간/시가지 - 해안 일주도로로부터
한라산 방향 1.2km 경계선 이상 해발고도
200m미만
- 경관단위 라 : 중산간/해안/시가지 - 해안선으로부터
해안일주도로 1.2km 경계선
- 경관단위 마 : 부속도서 및 해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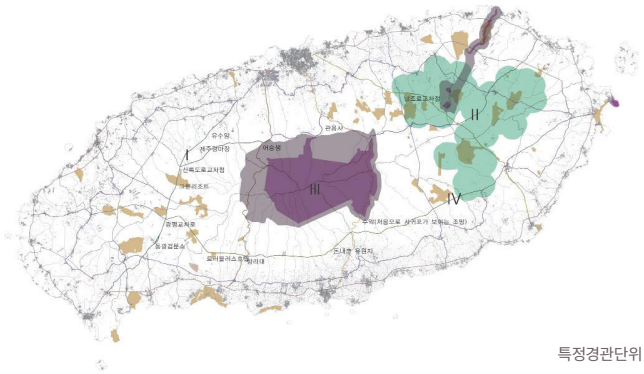


기본경관단위

특정경관단위

기본경관단위는 해발고도를 기준으로 자연지형 및 도시 지역 등의 지역현황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으며, 설정된 5개의 경관단위는 제주 전역을 포괄하고 있으나, 특정 지역의 미시적 경관특성을 고려하여, 특정경관단위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주요 도로변** : 해발고도 200~600m사이의 주요간선도로, 평화로, 제1산록도로, 제2산록도로, 번영로, 남조로 경계로부터 1.2km구역을 경관중점관리구역, 통행차량의 조망경관을 조망유형별로 체계적으로 관리
- **동부지역 오름군락** : 오름은 물론 오름과 오름 사이지역, 오름 주변지역을 인공개발경관의 간섭으로부터 엄격히 보호하여 제주 원풍경을 지속
- **세계자연유산지구** :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지구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성산일출봉 응회구의 보존 활용 세부사업 및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체계적 경관관리
- **특수목적에 의한 개발구역** : 관광사업대상지 및 대규모 선도사업 대상지, 투자유치구역의 개발에 의한 생태 및 경관훼손을 사전방지하고 법에 근거한 합리적인 제어 장치 마련



특정경관단위

제주행정단위

-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은 2개의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로 구성되어 있음
- 제주시(한경면, 한림읍, 제주시 동지역, 애월읍, 조천읍, 구좌읍, 우도면)는 4개의 읍과 2개의 면, 19개 동지역으로 구성됨
- 서귀포시(대정읍, 안덕면, 서귀포시 동지역, 남원읍, 표선면, 성산읍)는 3개의 읍과 2개의 면, 12개 동지역으로 구성됨



행정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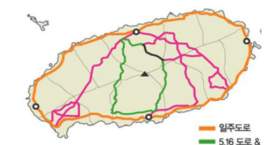
제주도로망

- 제주특별자치도 내 도로의 총 연장은 3,206km, 포장률 84%
- 해안과 중산간을 따라 제주도 전역을 타원형으로 연결하는 환상형 일주도로,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서 각각 남북을 연결하는 4개의 도로
- 다른 지역보다 해상교통의 중요성이 큰편, 육지부와와의 통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제주공항은 해마다 증가하는 국내 및 국제선의 여객과 화물 수요를 처리하는 주요 거점공항

• 주요도로



• 관광지 노선도



• 울레길 : 18코스



• 자전거도로 : 총거리 326km



도로망(※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3. 관련법규 제도 정책 조사분석

3.1. 공공디자인 관련 법규 현황

구 분	개정현황	내 용
공공디자인법	법률 제 13956호 2016.02.03. 제정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 13840호 2016.01.27. 일부개정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산업디자인진흥법	법률 제 13595호 2015.12.22. 일부개정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 14429호 2016.12.20. 일부개정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 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을 규정(제5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함을 규정(제9조).
경관법	법률 제13726호, 2016.01.06. 타법개정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건축기본법	법률 제 14839호, 2017.07.26. 타법개정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옥외광고물법	법률 제 14839호, 2017.07.26. 타법개정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공공디자인조례는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자체 조례로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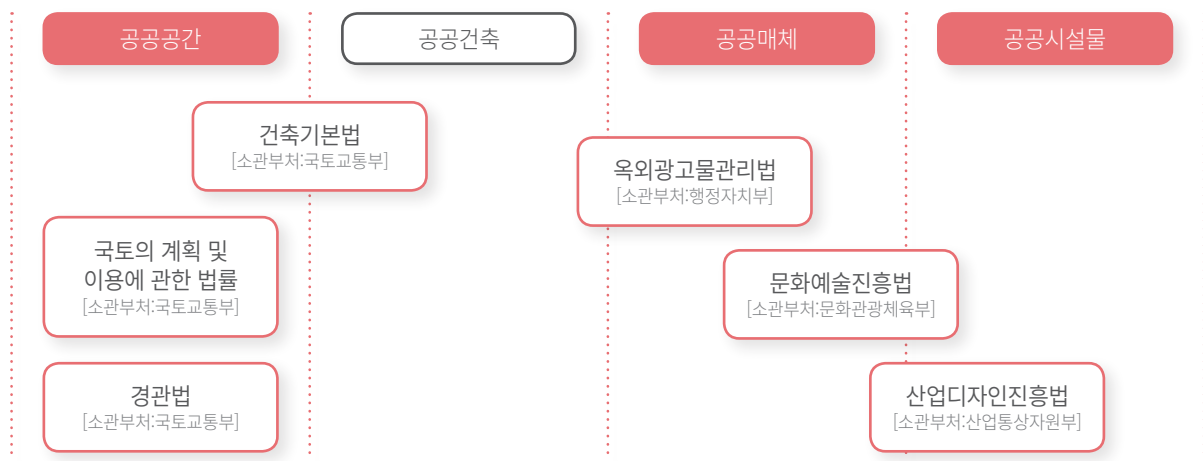
공공디자인의 정의, 기본원칙, 기본계획수립, 공공디자인위원회 등의 기준을 정하여 지역의 향상된 도시이미지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이 된다.

조례는 법령 제정 이전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운영되어 공공디자인 관련법의 기반이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2016. 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령 제정으로 법제도화가 마련되었다.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향후 공공디자인 조례의 제정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 11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3.2. 공공디자인 관련 법규 담당 정부 부처

정부부처	구 분	내 용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법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진흥계획, 위원회 구성 및 사업 영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
	문화예술진흥법	공공시설 등을 건립할 경우에는 도시 미관을 위해 1%의 예술작품을 설치하게 하는 정도의 규정이 존재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보호법, 산업디자인진흥법	사적(私的)이면서 산업적 영역에 속하는 산업디자인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디자인 등록에 관한 규정 정도가 존재
국토교통부	건축기본법, 경관법	공공 및 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디자인이라기 보다는 민간이 공급하는 사적인 영역의 용도 규제, 경고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
행정자치부	옥외광고물법 등 관리법	자치단체나 공공 등이 공급하는 교통시설, 교통수단을 포함하여 공공이 자유롭게 통행하면서 볼 수 있는 옥외광고물 등 디자인과 가장 근접한 법적 기반을 제시

3.3. 공공디자인 관련 법규의 위상



공공디자인관련 법규의 위상체계

문제점

- 공공디자인을 직접적으로 규정할 만한 법적 토대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공공디자인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법규가 부처별로 분산된 상태임

3.4.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관련 제도 수립 현황

항 목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 2015.12.31 조례 제1505호]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개선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경관계획’, ‘경관사업의 대상’등을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2017.3.8. 조례 제1811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을 제시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정 2016.7.8. 조례 제1652호]	제주특별자치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7.7.20. 조례 1880호]	옥외광고물 등에 허가 및 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옥외광고의 심의기준 등을 제시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2016.9.28. 조례 1692호]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과 필요한 사항 및 도민, 사업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역할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센터’의 설치 여부를 제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16.7.8. 조례 제1644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에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사항이 포함되어 함을 규정하고, 건축정책위원회 및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 등을 제시

4.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현황

4.1. 제주경관의 문제점

1.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시스템 미흡

제주는 우수한 자연환경을 근본으로 하는 관광산업이 도시개발의 원동력이지만 개발 압력도 공존하고 있으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시스템의 미흡으로 토지의 비효율적인 이용이 진행되어 전체적 경쟁력 약화.

2. 해안선의 훼손

제주의 해안은 지형적 조건에 의해 아름다운 해안선. 그러나 새로운 주거지 조성, 해안 도로의 개설과 잘못된 시설물로 인해 해안선의 아름다움이 훼손.



3. 도시, 마을경관의 훼손

제주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남북으로의 양적개발, 일반적이고 무표정한 상업건축물들이 혼재되어 제주의 자연환경과 고유의 마을풍경이 크게 훼손.



4. 하천의 변형

제주의 하천은 하천 바닥과 주변을 장식하고 있는 암석들이 푸른 숲과 더불어 독특한 제주의 하천풍경을 보여주는데 하천정비로 삭막하고 배수로 같은 경관 조성.



5. 편의성 부족, 이미지 과잉 공공시설물

공공시설물은 특정 장소와 거리에서 쾌적한 보행과 휴식, 편리한 길 찾기, 거리의 미관을 형성하는 경관요소로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지원하며 사용편의성과 미관의 적절한 조화를 지향해야 함. 그러나 제주도 상징도상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공공시설물의 편의성이 부족하고 이미지 과잉효과가 나타남

- 소재, 형태, 크기가 다른 시설물이 혼재 됨
- 과도한 형상 표현으로 이미지 과잉이 나타남
-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은 시설물 배치
- 안내판 개수의 과잉, 정보체계의 일관성 미비
- 조명의 종류, 조도의 불연속, 조명의 기능과 특성을 반영한 야간조명 지침의 부재로 지역적, 기능적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야간경관이 형성됨



4.2. 현황분석

공통문제점

- 사후관리 부재로 인한 노후된 시설물, 과도한 색채(원색) 사용, 제주이미지 남용,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 등으로 도시미관 저해
- 과도한 형상표현 등 이미지 과잉으로 소재, 형태, 크기가 다른 시설물이 혼재하고, 계획성 없는 시설물 배치로 도시 전체계획에 연계성과 통일성 미흡
- 다양한 글꼴, 색채, 방대한 정보요소 등의 표기로 정보체계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은 시설물 배치로 가독성 저해
- 조명의 종류, 조도의 불연속, 조명의 기능과 특성을 반영한 야간조명 지침의 부재로 지역적, 기능적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야간경관이 형성됨

4.2.1 휴식계시설물

벤치

현황 및 문제점

- 제주석재(현무암), 목재 등 자연재료의 특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디자인
- 지역에 따른 다양한 디자인의 벤치가 배치되어 있으나, 디자인의 일관성이 부족
-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과, 유지관리 및 보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벤치 현황

파고라

현황 및 문제점

- 그늘막과 벤치, 휴지통 등 시설물 간의 부조화
- 주로 나무를 이용한 구조물로 친환경적인 시설물 설치
- 새로운 디자인의 개발 보다는 기존의 기성품을 그대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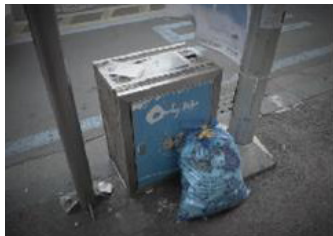
파고라 현황

4.2.2 위생계시설물

휴지통

현황 및 문제점

-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형태, 재질, 색 사용
- 고광택 금속재질 사용으로 차가운 느낌의 거리경관이 조성되며 일반적인 디자인이 다수
- 유지관리 및 보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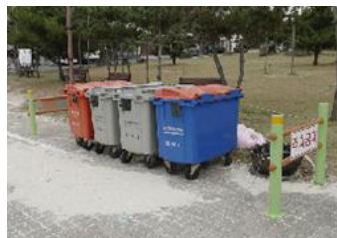


휴지통 현황

클린하우스

현황 및 문제점

- 쓰레기 집하 시설물로 야생동물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뚜껑이 있는 통일된 디자인
- 원색을 사용하여 필요이상으로 눈에 자극적이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 도심지역과 중산간지역에는 가림막이 있는 타입, 해안지역에는 단독형 타입으로 주로 설치
- 감굴, 한라봉 등의 단순·직접인 표현



클린하우스 현황

4.2.3 교통계시설물

자전거 보관대

현황 및 문제점

- 도심 및 중산간지역은 자전거의 활용빈도에 비해 지나치게 큰 형태로 인하여 보행편의성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해안지역에는 부식된 시설이 방치됨
- 주로 기성품을 사용하고 로고와 표어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공공시설임을 지나치게 강조
- 고광택의 금속재질 사용으로 차가운 느낌의 가로경관이 조성되며,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원색의 사용으로 도시미관을 저해



자전거 보관대 현황

버스쉼터

현황 및 문제점

- 버스정류장 디자인의 혼재로 가로경관의 연속성 저해
- 보행공간을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
- 주변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크기, 형태, 색채 사용
- 지역색을 나타내는 하르방, 정낭, 감굴 등의 형상물의 원색적인 색상의 사용과 사실적인 형태로 제주이미지의 남용을 초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 현재 제주 대중교통체계 개편(2017.08.26.)으로 인한 새로운 버스쉼터 설치중



클린하우스 현황

4.2.4 안전계시설물

볼라드

현황 및 문제점

- 고광택 금속 재질의 사용으로 가로경관과 이질감이 느껴짐
- 다양한 형태와 재질 사용으로 일관성 없는 거리경관
- 좁은 배치간격, 규격에 맞지 않는 형태로 보행 편의성을 방해하며, 경우에 따라 보행 안전성도 위협
-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부피가 크고 탄성력이 없는 볼라드 설치



볼라드 현황

보호휀스

현황 및 문제점

- 중산간, 도심지역에는 스틸, 해안지역에는 목재로 된 보호휀스가 주로 설치되어 있으며, 디자인의 일관성이 부족
- 도심지역에 제주도의 정남 이미지를 단순화한 보호휀스 디자인 산재
- 투박한 형태와 광택이 있는 금속재료의 사용, 캐릭터를 소재로한 디자인으로 자연경관과의 부조화와 과도한 디자인의 남용



보호휀스 현황

방파제

현황 및 문제점

- 해안지역으로만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로 자연재료(석재)로 쌓아올린 것이 대부분임
- 방파제 외벽으로 그림이나 모자이크 등 월그래픽을 통하여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나 변색과 낙후로 인해 미관에 저해 요소로 작용



방파제 현황

중앙분리대

현황 및 문제점

- 일반적이고 획일화된 중앙분리대가 대부분 설치되어있으며, 중앙분리 화단이 계획적으로 조성됨
- 일반적인 중앙분리대는 낙후된 디자인으로 조악하며, 반사스티커 등은 야간운행에 방해되는 요소로 작용



중앙분리대 현황

4.2.5 조명계시설물

가로등, 보행등

현황 및 문제점

- 제주 전체 가로등과 보행등의 소재와 디자인이 지나치게 다양하여 가로경관의 통일성 결여
- 하르방, 식물문양 등의 제주도 이미지를 과도하게 표현
- 연동, 탑동은 가로정비개선사업으로 특화된 가로등 디자인 설치
- 가로등 지주에 표지판들을 과도하게 부착하여 거리정보가 지나치게 혼재
- 중산간 지역은 설치가 미흡하여 야간에 교통 안전상의 문제가 야기



가로등 현황

4.2.6 정보계시설물

관광안내판, 시설안내판

현황 및 문제점

- 관광안내판은 지역의 중요 거점에 대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제주도 전지역의 지도가 표기되어있고, 중요 관광지역이 병행 표기되어 설치
- 권역별 서로 다른 디자인 계획으로 인한 연계성과 통일성 부족
- 도심지역은 스틸재료, 중산간지역과 해안지역은 목재로 주로 제작되어 설치
- 시설안내사인 설치 수량이 부족하여 중요 관광지역의 정보 습득이 어려움



관광안내판, 시설안내판 현황

유도사인, 벽보게시대

현황 및 문제점

- 유도사인은 주로 중산간지역과 해안지역에 설치
- 지나치게 거대하여 이용자가 불편을 느끼는 시설도 다소 발견
- 중산간지역은 가로등 및 도로표지판에 유도판이 난립하여 미관에 저해 요소가 됨
- 다양한 글꼴, 색채, 방대한 정보요소 등의 표기로 일관성이 결여로 가독성 저해
- 한 장소에 같은 정보의 요소가 담긴 안내판이 중복 배치
- 임시 안내 배너의 과다 설치
- 도심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정보를 공유하는 벽보게시판의 부족



유도사인, 벽보게시대 현황

4.2.7 기타시설물

관광안내소, 주차부스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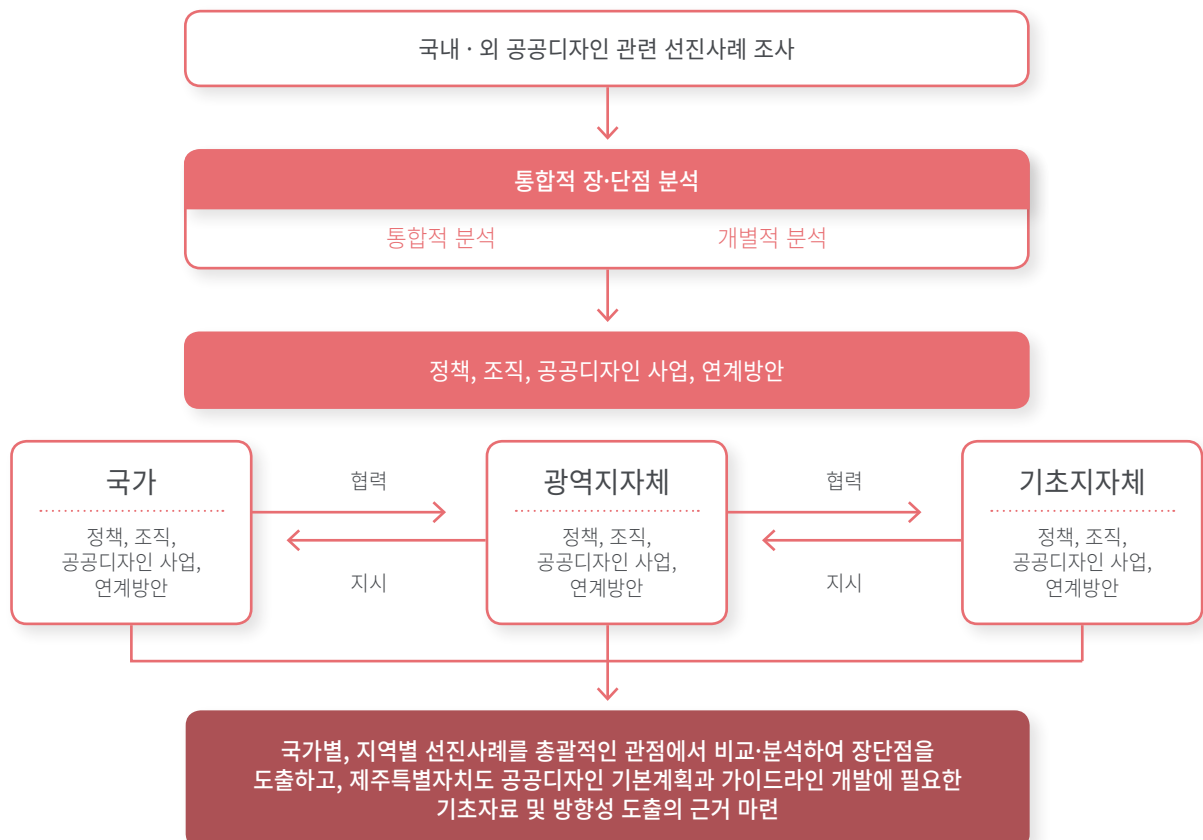
- 일반적인 기성디자인의 구조물이 설치되어있으며, 지역색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 필요
-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지정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디자인과 관리 소홀
- 관광객이 가장 많은 시외버스 터미널이나 공항주변 관광지 등에 관광안내소가 부재
- 주로 간이 주차부스가 설치 되어있으며, 지역색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조물임의 인식부족
- 유명한 관광명소를 제외하면 안내사인이 부재하여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다수 발생



관광안내소, 주차부스 현황

5. 공공디자인 관련사례 조사분석

5.1. 사례조사 의의



선진사례 구성체계

국내 외 공공디자인 선진사례 분석의 의의

- 국가별, 도시별 다양한 사례를 총괄적인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여 국외 선진사례의 장점을 국내사례에 접목시킬수 있는 방안을 도출한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개선방안에 필요한 방향성 도출의 근거를 마련한다.
- 국가별, 도시별 국외 선진사례 비교분석을 통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문제점을 확실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행주체별 정책, 조직, 공공디자인 사업, 연계방안에 필요한 공공디자인 개선방안 방향성 도출의 근거를 마련한다.
-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각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 가치 등을 새롭게 재조명하며,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해 가는 시민들의 질적 풍요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 차원, 지자체 중심 차원, 전문가나 민간 중심 차원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석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개선방안에 반영한다.

5.2. 선진사례-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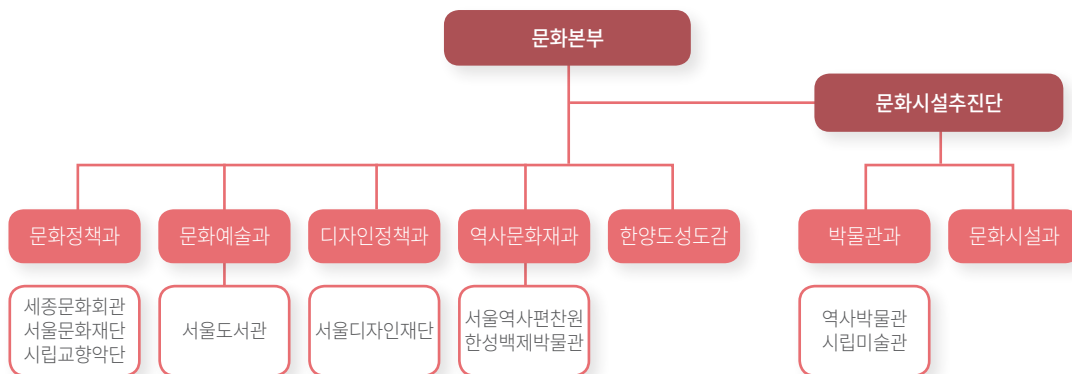
서울

정책

- 서울시의 공공건축물의 통일된 이미지 형성을 위한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정책을 만들고, 관련기관 및 부서에서 서울시 공공디자인의 계획 초기단계부터 반영을 하고 서울디자인위원회의 분야별 심의기준 등에 활용을 권장하고 있음
- 문화와 디자인이 중심이 되는 Soft City로의 변화, '디자인 서울'비전 제시

조직

- 문화본부 : 1본부, 1추진단, 7과, 3개사업소, 261명
- 실행조직이자 관리조직, 분산된 디자인 업무를 통합하고 전문적인 차원에서 디자인 사업 추진



서울시 문화본부 행정 조직도

사업

- 서울 4대 기본전략, 10대 중점추진과제, 서울시 경관계획 수립, 디자인서울거리, 가로시설물 통합추진,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 시범사업,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남산 르네상스 추진, 서울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 등

주제 4대 기본전략

- 비우는 (Airy) 디자인 서울
- 더불어/하는 (Collaborative) 디자인 서울
- 통합하는 (Integrated) 디자인 서울
- 지속 가능한 (Sustainable) 디자인 서울



강남구 옥외광고물정비



광진구 옥외광고물정비

특징

- 경관, 공공디자인 등의 담당 외 시민소통기획관 하에 ‘도시브랜드담당관’을 두고 도시브랜드를 디자인 관리
- 행정시스템 체계화
- 개별적인 거리 관련 공공디자인을 ‘디자인서울거리’라는 프로젝트로 유기적 통합 유도
- 환경위생차량 디자인 가이드처럼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적용되어 시각적 혼란을 초래했던 디자인을 시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통일하는 사업추진

문제점

-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실제로 집행하기가 어려움 (가로시설물 관련 주체가 여전히 다각화)
- 실제로 활용되기 보다는 매뉴얼의 형태로 제시되는 것에 머무름
- 법적인 효력이 미약하여 ‘디자인 조례’로서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임

사례

1) 디자인 서울거리

① 배경

- 지금까지 거리 관련 사업들이 기능적 관점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거리 요소들의 유기적 통합성이 부족

② 목적

- 거리의 모든 구성요소를 통합적으로 디자인함으로써 문화와 소통의 요소를 함유하고 삶과 지역문화가 공존하는 거리로 만들어 나가고자 함

③ 특징

- 통합디자인 (Total Design) 추진 : 가로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거리조성
-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주민, 전문가, 행정기관이 함께하는 가로경관 만들기 사업추진, 사업추진 전 과정 의사 결정기구)
- 총괄기획자 (Master Planner)가 기획에서 시공까지 전 과정 통합지휘
(다양한 분야를 소화할 수 있는 전문가로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선정, 참여 주체간 정보공유, 다양한 발상유도, 계획 조정 및 사업 일관성 유지)
- 대학 디자인연구소 참여
- 디자인 전문분야 참여 및 간판개선을 병행 추진하며 간판디자인 및 건물 마감비 (점포당 150만원) 지원

④ 기대효과

- 공공시설물의 통합 디자인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공감대 형성



서울시 디자인거리

2)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① 사업목적

- 보여지는 예술에서 참여하는 예술로 발전된 공공미술정책의 시행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 충족
- 시민의 예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정서적인 만족감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② 사업개요

- 서울다운 장소 가꾸기, 참여하는 서울 만들기 등

③ 공공미술위원회

- 미술, 건축, 디자인, 조경, 인문학 분야의 15인으로 구성
-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관련 자문 및 공모작에 대한 작품 심의



서울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경기

정책

- 건축디자인과는 공공디자인 정책개발과 구현, 쾌적하고 여유로운 도시경관 조성, 공공디자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련법규의 제정과 경관 및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발 등 공공디자인 활성화와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조직

- 경기도는 도시주택실에 건축디자인과를 두고, 경관기본계획승인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광고업무, 옥외광고물,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관련조례 개정 등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조례 및 규범

- 경기도 경관조례(2009),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2009)
-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2009)
-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2012)
-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2013)

사업

- 경기도 공공디자인 수립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공공정보매체 총 5분야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구축, 경관기동반 운영, 지역별 경관자원 사업,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남한산성도립공원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 등이 있음

비전 및 전략

- 기억되는 디자인 : 과거 역사와의 소통
- 지속 가능한 디자인 : 미래를 향한 자연과의 조화
- 함께하는 디자인 : 참여를 통한 디자인, 디자인을 통한 참여
- 배려하는 디자인 : 인간중심의 모드를 위한 디자인
- 경기도의 발전방향과 공공디자인의 역할·특성에서 ‘기분좋은 변화, 디자인으로 말하는 경기도’를 경기도 공공디자인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공공성, 정체성, 조화성, 창의성, 편의성을 핵심 키워드로 기본원칙을 설정
- 또한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공공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소통’과 ‘그린디자인’을 기본 컨셉으로 설정. 4가지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권역별·세계화·차별속의 통합·맞춤형 공공디자인 중점 실천전략을 제시

특징

- 공공디자인 진흥과 수준향상을 통한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경기도 공공디자인 수립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용역 진행
- 기본구상과 세부실천 방안의 내용을 근거로 경기도의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요소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
-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는 경기도의 공공디자인 비전, 기본원칙, 기본방향을 배경으로 경기도 공공디자인 콘셉트가 도출됨과 이를 바탕으로 공공디자인 세부설계지침을 마련
-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실천을 위해 도입기, 성장기, 정착기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각 단계별로 관련 사업을 개발 및 제시함
- 각 시·군은 현황 및 수준이 각각 다른 상태이므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도 차원의 통합된 이미지를 표출해낼 수 있는 요소를 제시해줌으로써, 경기도의 정체성을 반영하면서 각 시·군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함
- 공공디자인 기본방향을 기준으로 사업구상 단계에서의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방향과의 상관성 정도를 분석하고, 계획 중인 사업들 간의 중복 또는 편중 여부를 진단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균형 있는 사업이 구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 공공디자인 균형화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
-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 내에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도 차원에서 경기도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의 조직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기본 모델을 개발·제시

- 경기도 공공디자인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별 추진계획을 제시해주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공공디자인 균형화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추진했던 사업을 분석, 진단, 평가함으로써 신규사업 개발 시 보완해야 할 사항을 도출



‘경기도 보급형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중 발췌

분석

- 사회 구성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 기능의 확대,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주민 주도의 공공디자인
- 모든 사용자가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사용이 가능한 공공환경의 조성,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5.3. 선진사례-국외

영국

정부 주도형 정책 집행

공공디자인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대신 개념상 이와 근접한 경관디자인, 도시디자인, 환경디자인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정책

- 2000년대 초반 국가적 차원의 도시디자인 정책을 개발하였으며, 출발점은 ‘도시 르네상스를 향하여’(부수상 존 프레스코와 건축가 리처드 로저스 주도), ‘디자인에 의하여’(2000년 케이브(KABE)가 수립)
- 도시디자인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위하여 도시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집중해야 할 14가지 공공부문을 선정하여 제시 <영국-브리스톨>
- the Adopted Bristol Local Plan (1997)
- Proposed Policy Alterations to the Local Plan(2003) : Adopted Local Plan의 구체적 고려사항
- BDF (Bristol Development Framework) : 2004년부터 약 20년간의 플랜, 30여 개의 프로젝트로 구성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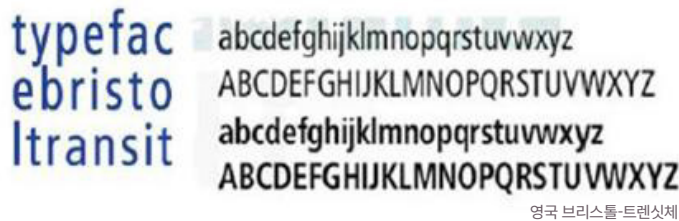
- 디자인 카운슬(Design Council)은 5가지 활동영역으로 구성(디자인정책 수립, 디자인 혁신, 비즈니스를 위한 디자인, 공공 디자인, 디자인 지식정보)되어 있으며, 이 중 현재 2가지가 공공디자인과 연계되어 있으며 산업디자인과 공공디자인 분야가 동등한 비중의 국가 정책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공공디자인 사업에서 핵심은 Dott(Design of the time).
- 이 외에 중앙부처의 협력지원으로 문화부(좋은 공공건물, 미래의 유산), 상무부(공공건물의 디자인 기준향상), 전문가(좋은 디자인의 가치)가 있음 <영국-브리스톨>
- 도시 관리 : 각 조직들간의 통합 관리 / ① 중앙 정부와 각 지역 정부 / ② 정부 기관들 / ③ 교통 당국 / ④ 민단 단체 ⑤ ATCM (Association of Centre Management)

사업

- 디자인 카운슬(Design Council)에서는 디자인을 통한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Dott(Design of the time) 캠페인을 2007년부터 출범. Dott캠페인은 영국의 주요 5개 지역을 중심으로 10년간에 걸쳐 전개될 예정이며, 디자인 가치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 제고, 디자인 개선을 통한 제품 및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일반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도모

<영국-브리스톨>

- 도시정체성 (Design Identity) : 일관된 색채나 서체 등을 적용하여 통일성 갖추
- 통합안내 사인시스템 (Sign System) : 반복되거나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표지판들 정비
- 안내지도 (Information Map) :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디자인
-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 BLC프로젝트를 통해 공무원들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창의적 사고 경험
- BLC 프로젝트 : Bristol Legible City (읽기 쉬운 도시)
쇼핑, 리테일에 관련된 것들이 도시를 발전시키는데 주요 요소로 판단하여 방문객을 도와주는 개념으로 고안
사람의 도시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용이하도록 하는 특별한 개념
Human Scale Thinking
- 트랜짓(Transit)체 : '읽기 쉬운 도시(Legible City)'를 표방하는 브리스톨시의 도로표지판, 지도 등에 적용하기 위해
가독성에 중점을 두고 만든 글꼴



특징

- 도시 서체, 색채, 주차장, 아트 프로젝트, 웹사이트 등의 통일성 추진 및 설문을 통한 디자인 개발방향 설정
- 도시 정체성, 인포메이션, 교통정보 시스템 등을 새롭게 개선
- 안내지도(Information Map) :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디자인



영국 브리스톨 통합안내 사인시스템

미국

민간주도형 정책 집행

민간디자인단체가 공공성격의 디자인 사업을 주관

조직

미국산업디자이너협회(IDSA, Industrial Designers Society of America)는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제고 및 교육체계의 확립을 위해 설립되어 미국의 디자인 정책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단체. 국가혁신위원회(NII, National Innovation Initiative)는 2004년 12월 정부주도의 국가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였으며, 공공디자인 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었음.

정책 : 정부의 디자인 진흥제도

1983년 디자인 향상을 목적으로 연방정부가 대통령 디자인상을 제정하였으며, 리버블커뮤니티운동(Livable Community Movement), 국립예술기금(NEA,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이노베이트 아메리카(Innovate America)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 추진 등 도시재생과 활력을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많은 정책을 추진

디자인 심사제도

South Carolina 주 Charleston 시에서는 역사적 시가지의 보전을 목적으로 미국 내 처음으로 조닝(Zoning)조례를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지자체의 경관디자인 관리수법으로써 도시계획시스템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책이 되었음.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만들어 디자인 심사 공개를 의무화하고 개발프로세스에 주민 참여가 도입되었으며 미관, 디자인 만족도, 공연도의 검토 및 평가에 사용됨. 디자인 심사제도는 1940년대 중반부터 1950년대에 걸쳐 미국 전역에 보급 후 1970년대부터 디자인 심사제도의 도입이 급증되어 1980년대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디자인 심사제도가 도입 운용 되어지고 있음. 디자인 심사제도의 법적 기반은 국가환경정책법으로 환경의 개념을 구분하는데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과 함께 미적 환경으로 정의하는데 있으며, 미국은 미(Beauty)를 복지의 한 개념으로 파악. 1954년 *Bermer v. Parker* 등 여러 건의 판례에 의하면 ‘미관’은 그것만으로 규제 합헌성을 가지고, 조례에 의한 기준에 의해 법은 시민의 총체적인 뜻으로 행정의 규제행위를 지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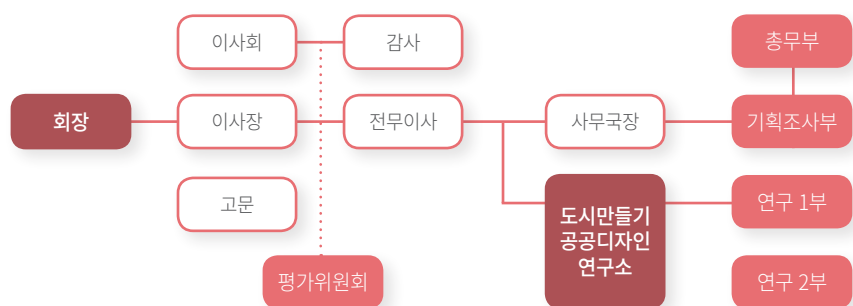
일보

정책

- UDC를 중심으로 지자체 중심의 사업이 국가의 법 제정에까지 영향
- 2004년 경관법 제정하여 통합적 디자인을 지원
- 경관 관련 사업이 다양한 행정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음

조직

- 건교부 산하재단 UDC(Urban Design Center-1989) 재단



일본 건교부 산하재단 UDC 재단 조직도

- 지자체 중심의 사업이 국가의 법 제정에 영향을 미침

조례 및 규범

- 관·민 협동 사업 추진
- 경관 관련법으로 발달 (과거 역사경관에서 출발, 현재 도시경관 형성시책으로 확대)
- 1968년 2개 지자체의 조례가 시발점 (카나자와시 ‘전통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쿠라시키시 ‘전통미관 보전 조례’)
- 2004년 경관법 제정 : 지자체의 경관조례는 세제 및 재정상의 지원 등이 불충분하여 도입

사업

- 주요 4개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전개하며, 건설청, 문화청, 환경청, 국토청, 건교부(국토교통성), 문부과학성(교육, 과학, 기술, 학술, 문화, 스포츠, 종교), 환경성 등 다양한 부처와 관련부서의 긴밀한 공조 및 연계
- 다수의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활성화 통합본부를 설치 운영
- UDC의 주요 사업은 아름다운 경관의 형성을 추진,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추진, 경관 및 도시 디자인에 대한 정보교류, 조사수탁, 각종 사업에 대한 협찬 및 후원 등



전략적인 소재, 색채, 형태들을 일정한 범위에 한정함으로써 일관적인 경관을 형성

5.4. 분석

국내사례 종합

공공디자인을 통한 디자인 강국의 실천이라는 포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 추진체계가 부재하며, 공공디자인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부처가 연계되어 있어 관련 사업이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의 공공디자인이 다른 지역에 비해 활성화되어 공공디자인의 지역차가 존재함.

구 분	내 용
서 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디자인팀을 따로 두어 공공디자인정책 및 디자인관리의 전문화 실현 -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실제로 집행하기가 어려움(가로시설물 관련 주체가 여전히 다각화) - 경관, 공공디자인 등의 담당 외 시민소통기획관 하에 ‘도시브랜드담당관’을 두고 도시브랜드 디자인 관리 - 실제로 활용되기 보다는 매뉴얼의 형태로 제시되는 것에 머무름 -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운영 / 주민, 전문가, 행정이 함께 사업 추진(서울-디자인서울거리) - 개별적인 거리 관련 공공디자인을 ‘디자인서울거리’라는 프로젝트로 유기적 통합 유도 -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적용되어 시각적 혼란을 초래했던 디자인을 시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통일함(환경위생차량)
경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주택실에 건축디자인과를 두고, 경관기본계획승인,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광고 업무, 옥외광고물, 공공디자인 위원회 운영, 관련조례 개정 등 공공디자인 관련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 - 공공디자인 진흥과 수준향상을 통한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경기도 공공디자인 수립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 진행 - 기본구상과 세부실천 방안의 내용을 근거로 경기도의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요소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 - 사회 구성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 기능의 확대,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주민 주도의 공공디자인 - 모든 사용자가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사용이 가능한 공공환경의 조성,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국외사례 종합

구 분	내 용
영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주도형으로 공공디자인 사업 진행 - 국가정책을 기준으로 단계별 정책이 마련되어 중앙에서 지시하는 형태이며, 지자체는 이에 따라 의무적인 장기계획을 형성해 나감 -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부여되는 정책 안에 지자체장들에 의한 개발계획 수립을 의무화 - 런던의 경우 기초지자체에 정책을 지시하여 개발계획수립 진행을 주도하고 있으나 브리스톨은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가 함께 도시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 - 권역별 현안과 정책목표를 분명히 하고 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하면서, 자치구 및 관련기관간의 협력과 조정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됨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심사제도를 통해 민간 디자인을 컨트롤함으로써 민간의 개발계획이 주도적으로 사업 진행 -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조닝조례가 설정되어 공적 부분 뿐만 아니라 사적 디자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침 - 각 지역마다 디자인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존재하여 공공디자인을 심사함 - 심사위원회에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주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 때문에 판례에 따라 조닝조례를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도 존재 - 도시 내 근린지역을 설정하여 각 근린지역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계획에 반영하는 상향식 계획을 수립 - 도시기본계획과 근린지역별 계획을 바탕으로 각 지역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각 가이드라인의 성격에 맞는 위원회를 설립하여 심사제도를 수행하면서 민간디자인과 소통 -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국보다 상위조직에 위치함으로써 위원회에서 개발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행정기관에서 진행과 심사를 담당 - 도시계획국은 사적인 개발에 대한 심사권, 공공사업국은 공적인 개발에 대한 심사권을 가지며 예술위원회에서 공공디자인 심사제도를 관리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기업의 개발계획에 맞춰 자치단체가 정책 및 제도를 수립하거나 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함께 단체를 설립하여 진행하는 등 관·민이 협동하여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형식 - 자치단체 단위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들의 유기적 연계, 통합에 의한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 지자체 중심의 사업이 국가의 법 제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행정 조직 내 디자인 전문조직 및 도시디자인 담당 부서를 설립함으로써 디자인 행정의 전문화를 이루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 시 정부와 민간 기업체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 (예 : 미나토미라이21, 넥서스월드)

5.4. 국가별 분석 비교

미국과 일본의 경우 발전과정에서 각각의 차이점은 있지만 현재 민간 디자인 전문기관이 디자인 진흥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영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중앙정부가 디자인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실의 운영에 있어서는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영국의 디자인 카운슬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중앙부처가 정책수립에서 예산의 집행까지 관장하는 중앙집권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영 국	일 본	미 국	한 국
주도형태	중앙정부 주도형	관민협동자치체주도형	민간주도형	복합 주도형
중앙/ 지방정부의 관계	정책지시 및 협조	통합적 추진체계	제도마련 및 심의	협력 및 독립
중앙정부	‘디자인카운슬’ 국가적 차원의 도시디자인 정책 개발 및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	다수 중앙부처의 공조로 정책의 통합화 및 지자체와의 협조적 관계 유지	법령 및 정책을 통해 최소한의 통제로 지역성을 유지하며 민간 디자인을 컨트롤	4개 부처의 이해관계로 공공디자인 혼재
광역지자체	국가 기본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실행 전략을 수립	통괄부서 및 전담부서를 설치, 관련부서 간 연계 및 통합 운영	각 주정부별로 중앙정부 법령을 기초로 한 개별적인 법령을 수립	지역별 공공디자인 및 경관 조례를 통한 공공디자인 사업 진행, 담당 부서의 위치가 서로 다름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의 실행전략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세부 전략 수립	민간과의 통합적 개발계획을 수립 하여 제도적 지원	각 주정부별로 중앙정부 법령을 기초로 한 개별적인 법령을 수립	지역별 조례 및 가이드라인 설치, 광역지자체와의 관계가 모호
민간단체	해당 지역 주민 및 전문가 단체로 구성된 자문 기관을 운영	민간단체 및 개인 기업이 행정기관과 공동사업형식으로 참여 (제3섹터방식)	민간단체 및 개인 기업의 주도로 프로젝트 진행	투표 및 설문 참여와 같은 형식적 절차가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적극적 참여로 확대

국가별 공공디자인 조직 분석 비교

6. 공공디자인 현황 종합분석

6.1. 전략적 측면

1.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정체성 있는 공공디자인

- 독특한 문화, 전통의 속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 현대적, 창조적 문화를 반영한 공공디자인
-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며 조화를 이루는 공공디자인

2. 차별성을 유지하면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통합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디자인 현황이나 수준이 각각 다른 상태이므로 각 지역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통합된 이미지를 표출해 낼 수 있는 요소를 개발하는 통합화 전략이 적절함
- 미국 시애틀의 경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지역주민 주도의 센터운용으로 지역성과 역사성을 살린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결과를 도출해 냄

3. 자연의 가치를 우선하는 공공디자인

- 자연경관의 보존 등 자연경관을 우선 배려하는 디자인만이 아니라 자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디자인함
- 제주풍경의 조망을 우선시한 자연분위의 디자인
- 제주의 특징을 살린 여유롭고 비워진 공간을 살린 디자인

4.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화를 실천하는 공공디자인

-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맞춰 도민은 물론이고 외국인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국제적 감각의 공공디자인 실천계획 수립
- 신세대의 문화,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살아가는 다문화의 반영으로 관광문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임

6.2. 행정적 측면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개념 체계 구축

- 체계적 전략수립, 실행, 평가 메커니즘 구축 필요
- 공공디자인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정책을 수립하여 자치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략을 실행하고 실행된 내용을 평가하여 다시 전략수립에 반영하는 메커니즘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

2. 공공디자인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체계 기준 마련

-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 내에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전문인력이 있더라도 인원의 부족 및 특정 디자인분야의 편중 등으로 전문성 있는 공공디자인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음
- 디자인과 행정의 전문화를 위해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들의 유기적 연계·통합에 의한 ‘공공디자인지원조직’설립이 필요

3. 지역간의 공공디자인 개발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디자인 통합성 유지를 위해 지역간의 공공디자인 행정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 차원의 제도나 시스템 부재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지역간의 공공디자인 개발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 가능

6.3. 실천적 측면

1. 지역간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지리적 특정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개발

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권역 설정을 통한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계획, 각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권역을 설정하여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 각 공공디자인 권역은 도심지역, 중산간지역, 해안지역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구분

3.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력 있는 운영방안의 개발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이 각 지역의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 수립 및 평가 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방안을 개발하여 제시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각 지역의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베이스 개념의 접근이 효과적임

6.4. 법·제도적 측면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법·제도적 체계 구축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디자인 법·제도 체계는 공공디자인의 전체적인 방향을 규정하는 측면에서의 제도적 시스템과 각 세부 사업의 실질적인 접근을 위한 방법적인 측면이 공존하는 상황으로 서로 이질적인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음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기본계획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법·제도의 기본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의 보완을 통한 제도적 위상의 제고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제도적 위상이 법적 단계에 위치하지 못하고 관련 제도의 법적 효력으로서의 가치가 다른 부문에 비해 낮은 상태임
- 따라서 상위개념으로 접근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측면을 전략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6.5. 기타

1.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공공디자인

- 20여 년간의 개발계획과 30여 개의 공공디자인 관련 프로젝트를 실행함으로써 도시이미지가 개선되어 관광객의 방문이 급증함(영국-브리스틀)
- 공공디자인 관련 프로젝트를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3만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됨(독일-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 10년간 장기적인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을 추진해온 결과, 지역이미지를 혁신하고, 1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로 국제적 관심을 받는 관광도시로 성장(일본-구마모토현)

2.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공공디자인

- 디자인 심사제도를 통해 민간영역의 디자인을 관리하고, 민간 중심의 계획이 주도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짐(미국)
- 지역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한 후 그 결과를 중앙의 계획에 반영하는 상향식 계획을 수립하는 구조체계 운영(미국-시애틀)
-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행정부서인 계획국보다 상위조직에 위치하여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각종 개발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함(미국)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에서 주도하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이 개발되고 유지·관리되는 방향이 바람직함

III 기본구상

1. 비전
2. 기본원칙
3. 기본방향
4. 진흥 종합계획과의 관계성
5. 기반구축방안



1.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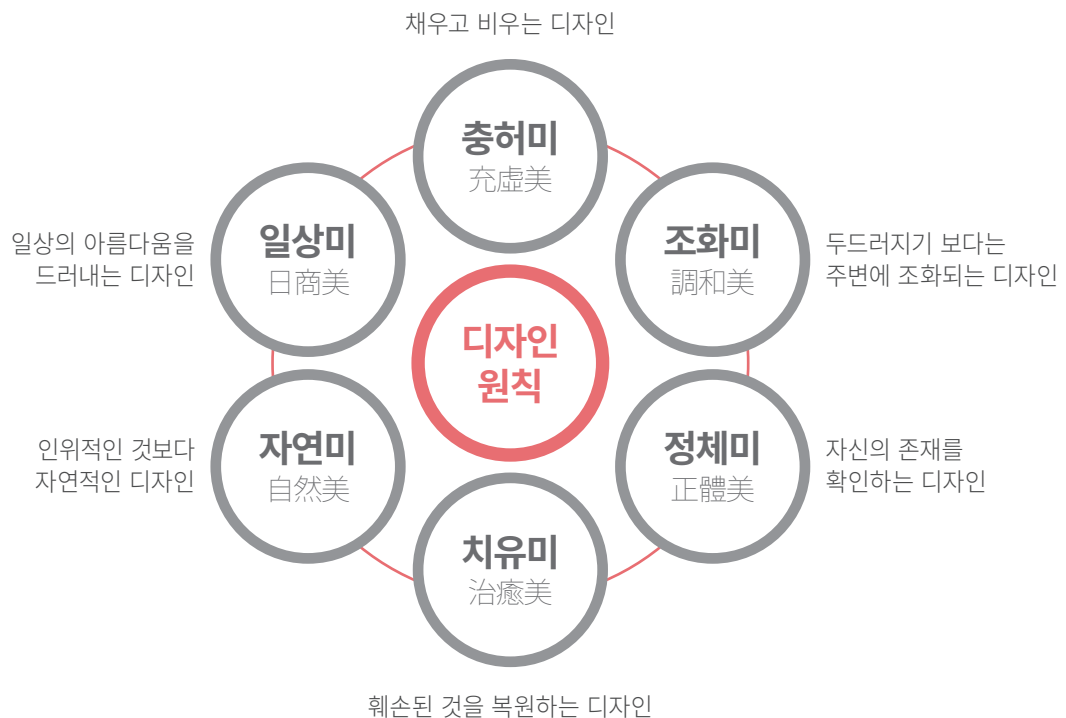
제주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함께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독특한 문화와 함께 국제 관광도시로서의 인프라와 잘 구축된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들이 무한한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는 곳이다.

제주에 만들어지는 공간과 장소는 이렇게 제주가 담고 있는 다양하고 놀랍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건넬 수 있는 무한한 공간이어야 한다. 그 속에 담긴 이야기가 세련되게 포장되고 연출되어 공간의 소비자들에게 다가가야 하는데, 디자인은 공간에 담긴 이야기와 그것을 즐기려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인터페이스'이다.

스토리텔링 공간을 만드는 디자인 인터페이스는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사려 깊고, 조금 더 섬세하고, 조금 더 인문학적이며, 조금 더 창조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정교하게 연출된 <제주의 이야기>들이 제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체험'으로 각인되는 공간으로 다가갈 때, 이 공간과 장소는 제주의 명소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그 안에서 돌아다니게 하고, 매혹하여 제주를 기억하게 할 것이다.



2. 기본원칙



3. 기본방향

3.1. 인간중심적인 환경 조성이 우선



3.2. 제주 도시디자인의 공공성과 기능성의 개선 필요

제주 도시디자인은 고유지형을 고려하고 지역특성과 어울리는 점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제주 도시디자인에 있어 공공과 기능적 측면의 역할은 방문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우선적 개선이 필요함.

3.3. 제주의 이미지에 맞는 도시디자인 정체성 형성

제주 도시디자인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명확하게 전달되었을 때 제주 도시디자인에 대한 만족도와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명확하게 제주 도시디자인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알리는 것이 중요함.

3.4. 도시디자인의 일관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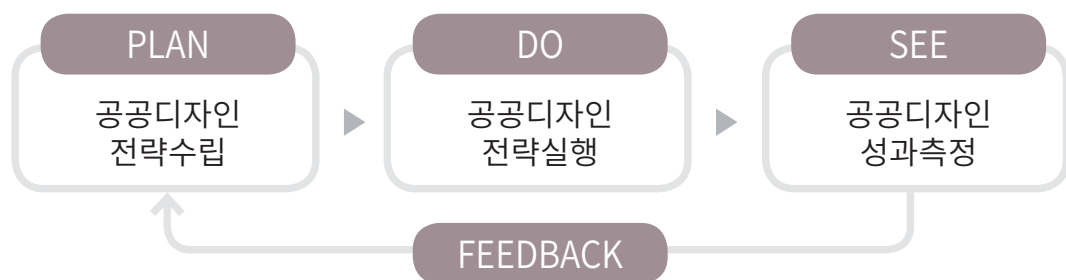
옥외광고물, 가로시설물과 같이 쉽게 자주 접하고 경험하는 것들이 현재 제주의 경관을 가장 훼손하는 요인이라고 평가되고 있음. 따라서 쉽게 자주 접하고 경험하는 시설물과 더불어 도시디자인의 범위 간 연계를 통한 일관된 도시이미지를 형성.

3.5. 제주 도시디자인의 핵심은 고유의 자연환경 활용과 조화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은 제주만의 독특함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계획, 무분별한 개발과 고층건물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도시계획, 고유의 자연환경을 유지하면서 조화롭게 어울리는 도시디자인 계획 등이 필요.

3.6. 도시디자인 체계적 전략수립, 실행, 평가 메커니즘 구축 필요

도시디자인에 있어 성공적이라 할 수 있는 도시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운영, 그리고 관리의 메커니즘이 구축되어 있었음. 따라서 도시디자인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정책을 수립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공 디자인 전략의 수립과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고 실행된 내용을 평가하여 다시 전략수립에 반영하는 메커니즘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



3.7. 제주 도시디자인의 통합적 전략 필요

제주 방문객들은 도시디자인의 공공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제주 공무원들은 도시디자인의 디자인적 측면과 효과적 측면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따라서 공급자가 아닌 이용자 중심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도시디자인에 대한 통합적 경영전략이 필요.

4. 진흥 종합계획과의 관계성

4.1.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로드맵

2018~2032년 / 15년 3단계 로드맵 구축

시 기	2018~2022	2023~2027	2028~2032
성 격	공공디자인 진흥 도입기	공공디자인 진흥 확산기	공공디자인 진흥 성숙기
방 향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가치 정립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품격 강화	공공디자인의 문화향유권 실현
최종 목표	공공시설물 등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	국가·지역의 품격 제고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대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2. 공공디자인 진흥 도입기 기본방향과 목표

2018~2022 초기1년 기초 정립 후 기반 구축과 실행·확산 단계에서 사업집중

시 기	2018(1년)	2019~2020(2년)	2021~2022(2년)
기본방향	공공디자인의 기초 정립	공공디자인의 기반 구축	공공디자인의 실행 · 확산
기본목표 <small>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5조 3항 1)</small>	방향모색	목표정립	실행 · 확산
주요방향 <small>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5조 3항 1)</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디자인법에 기초한 개념과 역할의 정립 -공공디자인 기반을 위한 체계, 제도 마련 -법률의 원칙에 기초한 공공디자인 선도사업과 정책 제시 -기초품질 인증체계 구축 -전담기관 역할, 기능, 조직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디자인 통합 관리체계 및 R&D 추진 -공공디자인 기초품질 향상체계 구축 -생활체감형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재 개발 -공공디자인 통합 아카이빙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디자인 사업 다양화,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고도화 -기 추진 제도, 정책, 사업평가 및 보완 -차기단계 진흥계획 수립

4.3. 종합계획과의 관계성

공공디자인법과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발효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음.(2017년 9월 현재) 이에 공공디자인 종합 진흥계획 이전에 수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을 준수하되, 기존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련법에 따라 수립된 계획과 공공디자인의 방향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진흥위원회 운영을 추진함.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살릴 수 있는 진흥 도입기 연차별 세부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만의 공공시설물 등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5. 기반구축방안

5.1. 공공디자인 지원기구의 필요성

공공디자인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디자인 계획의 수립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및 경제 등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도시 “제주”를 조성하고, 도와 행정시, 읍면동의 디자인 통합관리 체계 구축으로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공공디자인 지원기구를 통한 실질적 공공디자인 R&D를 실현

5.2. 지원기구의 역할

공공디자인 기반 구축

공공디자인 연구 및 정책 실행사업 기획

- 기초조사 연구 :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및 공공디자인 현황파악, 경관변화 등을 조사
- 기준 및 프로세스 연구 : 컨설팅, 계획 및 설계시 디자인 기준 마련 및 행정 담당자들의 사업진행에 도움이 되는 연구
- 공공디자인 아카이빙 구축 : 디자인 관련 자료 및 연구 개발 내용들의 체계화된 아카이빙을 통해 향후 디자인 개발 및 정책수립의 방향성 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

공공디자인 기반강화

- 지자체 현안업무 지원을 위한 워크숍 및 포럼 개최
- 지역활성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선진지 견학
- 공무원 대상으로 한 공공디자인 교육
- 주민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디자인 교육

공공디자인 실행 및 확산

정책 및 실행사업 연구

- 디자인 정책 및 사업발굴을 위한 연구 및 타당성, 사업방향, 사업내용 등을 제시하는 연구

공공디자인 사업의 다양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개발

주민참여 공공디자인 프로그램 사업개발

공공디자인 홍보 프로그램 사업개발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

총괄계획가 지원사업 : 도 및 행정시 추진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총괄계획가를 지원하여 컨설팅

컨설팅 집중지원사업 : 총괄계획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의 컨설팅 지원

컨설팅 유형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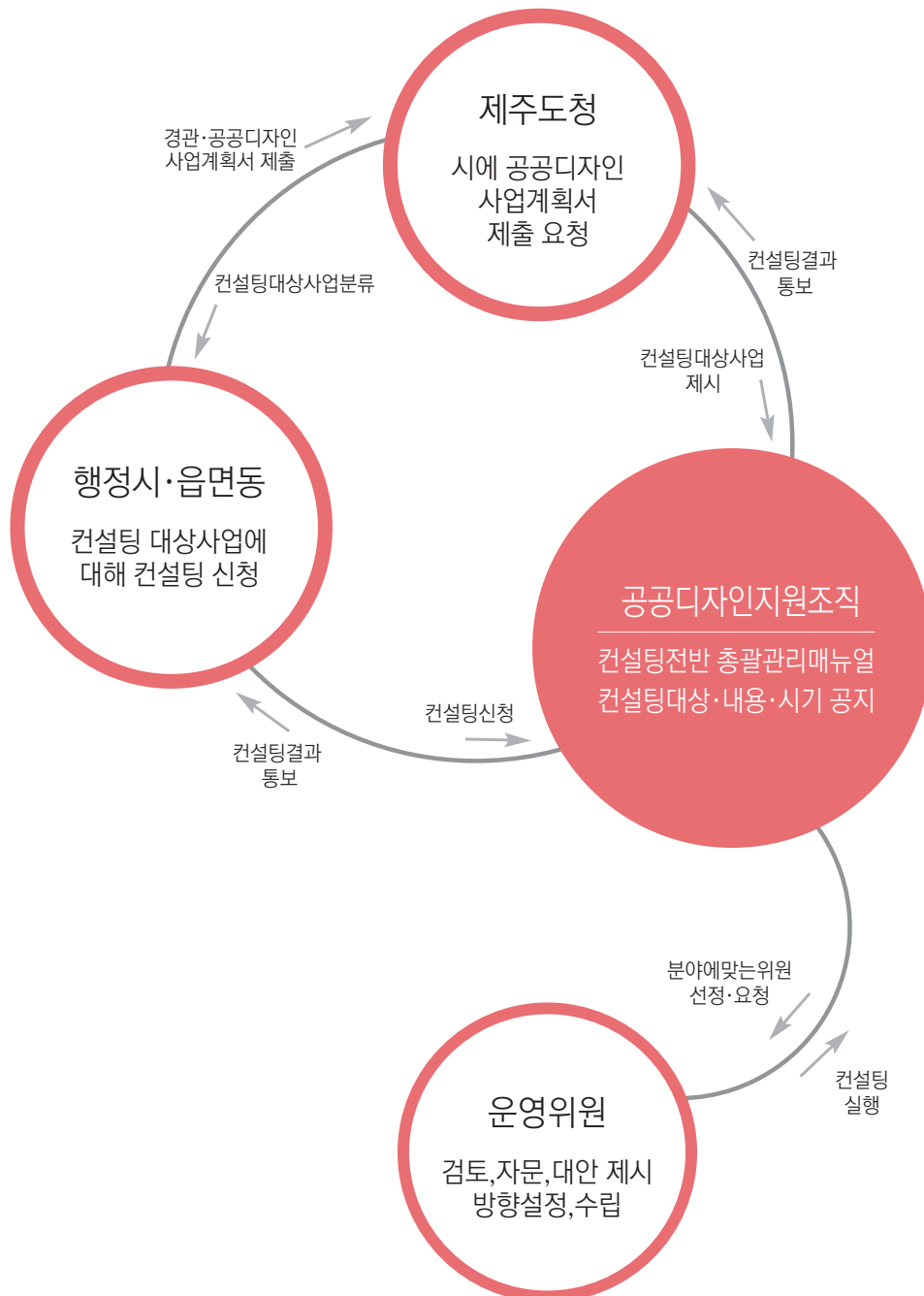
컨설팅 유형	내 용
단순컨설팅	소규모 사업이나 단일 디자인 분야의 사업 사업별 운영위원을 1인 배정하여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식
복합컨설팅	컨설팅 대상사업의 규모가 크고 적용 분야가 다양한 사업 분야별 운영위원 2-3명을 구성하여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식

컨설팅 방식 및 내용

컨설팅 방식	내 용
디자인 자문	사업의 초기 구상단계에서 사업방향 설정에 대한 자문 대상사업의 계획이 완료되어 디자인 수정에 대한 자문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후 진행)
디자인 시안	디자인 적용을 위해 디자인 시안을 필요로 하는 사업 지자체 및 기관에서 발주한 디자인 계획안이 적용하기에 적절치 않아 새로운 디자인 시안을 필요로 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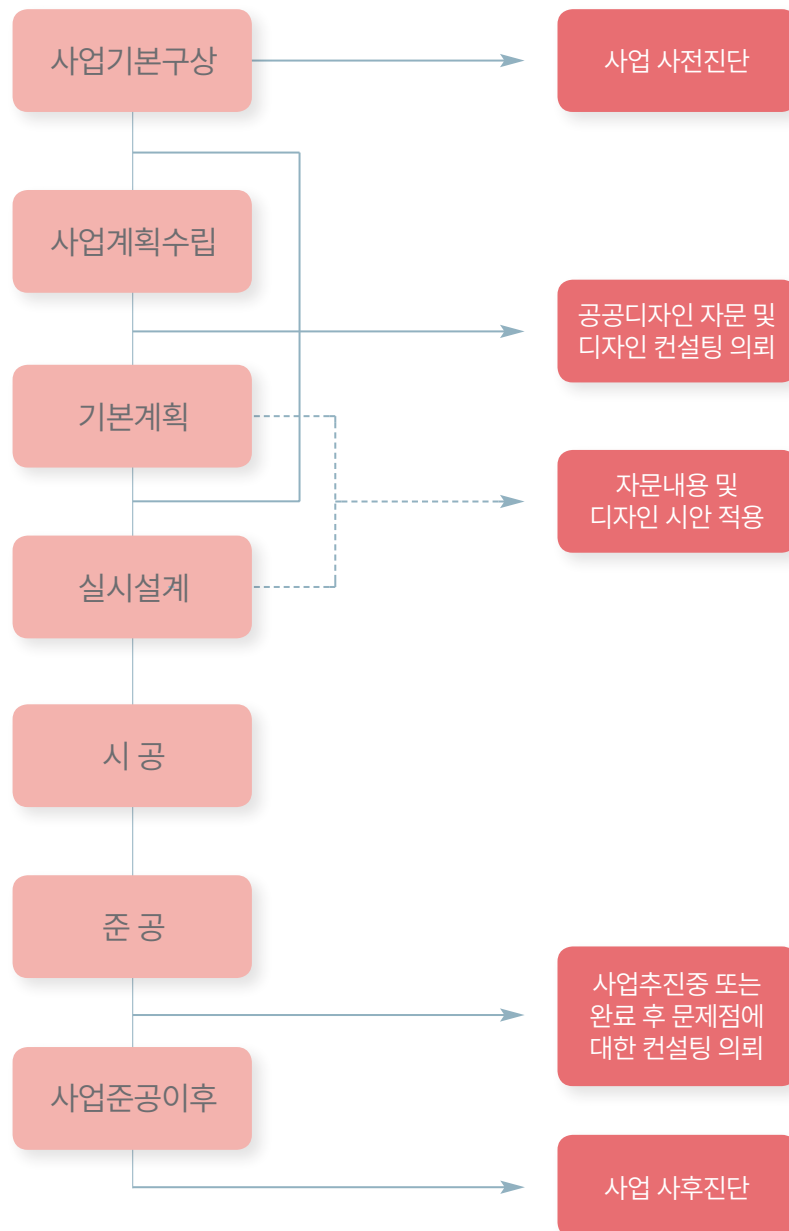
컨설팅 체계

도 및 행정시, 읍면동의 추진사업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원기구 및 전문가 인프라 구축을 통한 운영위원 자문을 통해 추진 사업의 기초품질 향상체계를 구축



컨설팅 추진시점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전에 컨설팅을 추진하여 사업에 직접적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체계 마련



IV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1.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2. 가이드라인 적용 및 기대효과
3.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일반지침
4. 적용대상별 가이드라인
5.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및 운영방안

1.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디자인 정책의 비전과 실천 전략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정체성 있는 공공디자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마련하고 공공디자인 비전, 기본원칙, 기본방향 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실천력 있는 실행방안의 개발이 필요하다.

도시공간 속에 설치 조성되는 공공디자인 요소들에 대한 중복설계를 지양하고, 모든 요소들의 특징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종합하여 설계할 수 있는 설계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공유가 필요하다.

관광도시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도민 및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디자인 수요가 팽배하다. 일정한 질서와 공공성을 갖추고 다수의 디자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제주는 다양한 지역적, 기능적, 자연적 특성들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도시이다. 제주의 도시디자인은 그 다양성을 반영해야 하지만, 개성적 디자인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자연경관과 공존하게 하려면 모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제주의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공공디자인 및 사적공간 등의 어우러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및 제주광역도시계획과 경관 및 관리계획에 의한 상위계획을 기본으로 경관디자인 저해요인을 개선하여 나가는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경관형성을 해나가야 한다.¹⁾

제주의 도시디자인이 역사적 유산을 존중하는 가운데 연속적이고 유기적으로 발전하려면, 일정한 원칙을 제시하여 주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제주는 최근 관광객과 인구 유입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빠른 속도로 변화해가고 있다. 이 변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전망을 갖고 도시디자인 문제를 접해야 한다. 일관된 비전과 원칙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2. 가이드라인의 적용 및 기대효과

<제주특별자치도 가이드라인>은 사업계획 수립 시 기획에 반영되고, 실시설계 발주 시 과업지시서 작성과 현장 설명에 활용되며, 설계·제작·공사시 체크리스트로 응용되고, 각종 디자인 심의의 판단 기준과 사후 평가 및 유지 관리 지침으로 이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이드라인>은 공공디자인 시설물의 요소들에 대해 디자인 주체 및 시기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불필요한 중복설계나 디자인이미지의 일관성 부족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상이 되는 요소들에 대한 공공디자인 관점에서의 기본방향, 권장사항, 지양사항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제주도가 지향하는 공공디자인 환경을 실현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이드라인>은 도시 공간을 형성하는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제주도의 현황을 진단하고,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공공디자인 관점에서의 평가 및 자문의 기준 역할을 한다.

3.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일반지침

3.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대상

분류		세부항목	비고
공공공간		공원 -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썸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휴양공간 -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전부지의 공공이용공간, 수변공간, 가로공간 등 광장(지하광장 포함),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자전거도로,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교통섬, 등산로, 산책로,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공공 시설물	도로 시설물	가로등, 펜스, 볼라드, 가드레일, 신호등주, 버스 및 택시셸터, 외부엘리베이터, 자전거보관대, 방음벽, 교량,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편의 시설물	벤치, 파고라, 가로화분대(플랜터), 수목보호덮개, 관광안내소, 무인 정보단말기 (키오스크), 생활정보지 배부함, 음수대, 분수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휴지통, 간이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공급 시설물	맨홀, 배전함, 신호등 및 가로등 제어함, 제설함, 소화전, 전화부스, 전신주, 석축, 옹벽, 방호울타리, 교량, 회전형 교차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공공 시각 매체	교통관련 시각매체	공공 및 사설안내표지, 주차장안내표지 및 주차요금표지, 버스 및 택시 정류장표지, 버스 노선안내도,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보행관련 시각매체	보행자안내표지, 지역안내사인, 관광안내표지, 관광안내도, 문화재설명표지, 공공 안내표지, 현수막게시대, 게시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영상정보 시각매체	대기 오염 전광판, 교통 상황 전광판, 버스정보 전광판, 디지털 영상매체,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환경연출 시각매체	벽화·슈퍼그래픽, 공사장가설울타리·가설가림막,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시계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상징이미지매체	안전장비, 피난장비, 교통차단장비,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도시브랜드, 상징 이미지(CI, 픽토그램, 지도, 서체, 캐릭터, 엠블럼)	

3.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일반방향

기본개념

특성화

- 제주도의 도시 문화를 상징하며 지역특성을 보여주고, 통일감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도시의 역사성을 확립하는데 기여
- 자연환경으로 둘러싸인 지역적 고유 정체성을 강화하고 문화적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통합적 디자인 계획이 필요



기능성

-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조성과 지역 서비스 개선할 수 있는 기능적인 디자인 계획이 필요
- 모든 계층이 쉽게 접근하여 사용하기 편리하고 주민의 안전을 고려하며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상징성

- 가로시설물은 설치 대상 공간의 주제나 장소적 특성과 의미를 반영하는 연출 매체로서 상징성을 갖출 필요
- 도민과 내방객을 위한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역사, 문화, 관광도시를 상징하는 시설물 디자인 계획이 필요



형태계획

- 가로시설물의 형태는 주제를 표현하기에 가장 용이하며, 도시 방문자 또한 도시의 주제를 직·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요소로서 제주도의 자연환경(해안, 바다, 섬, 바람, 오름, 곶자왓지대, 습지, 돌 등)에 적합한 모티브를 개발/적용하여 가로시설물의 통합 아이덴티티를 구축
- 기능 통합과 모든 계층이 사용하기 쉬운 '배려' 디자인을 추구하며, 미래지향적 트렌드를 반영한 곡선적이고 단순한 형태로 디자인



재질계획

- 주제구현에 적합한 재질과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고려한 내구성과 내식성이 강한 재질
- 트렌드를 반영한 친환경적 재질을 각 시설물의 기능에 따라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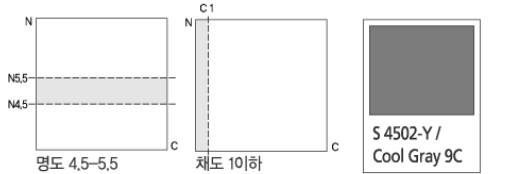
금 속				목 재	석 재	유 리	
스틸(무광도장)	스틸(무광도장)	스틸(무광도장)	스틸(무광도장)	삼나무 (스테인방부처리)	현무암	시멘트	강화유리

색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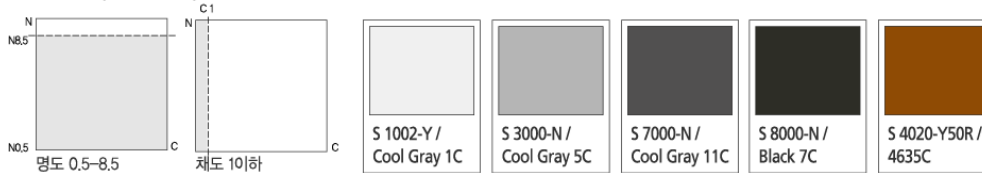
배경이 되는 건축물과 보차도의 색상에 가로시설물이 시각적 저해요소가 되지 않도록, 고채도의 색상을 지양하고, 무채색과 재료자체의 소재색을 사용하여 안정감을 극대화하는 색채를 사용
회색으로 일관된 도시이미지를 활발하고 생동감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제주 감귤과 유채꽃의 노란색(Yellow)을 주제색으로 설정하여 새로움과 즐거움을 상징

• Col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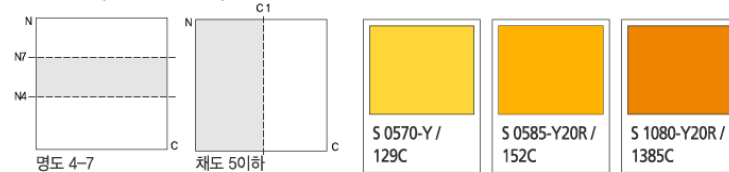
주조색 (Main Color)



보조색 (Sub Color)



강조색 (Accent Color)



• Color Combination



대자연의 푸르름을 느끼며, 관광/휴양을 즐길 수 있는 중산간 지역은 자연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녹색(Green)을, 해변산책,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해안지역은 심해의 깊고 푸름을 상징하는 파란색(Blue)을 주제색으로 설정하여 배색을 다양화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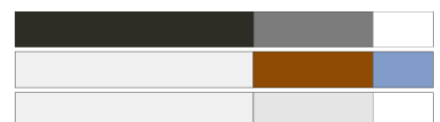
강조색 : 녹색(Green)

배색



강조색 : 파란색(Blue)

배색



4. 적용대상 별 가이드라인

4.1. 공공공간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공공공간의 기능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행자 중심’, ‘안전’, ‘질서’, ‘지속가능’, ‘통합적 경관’을 목표로 하여 제주의 공공공간을 사용자 중심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10가지 공공공간 디자인 기본원칙을 제시한다.

1. 보도폭에 따른 시설물 설치 기준을 확립하여 유효 보도폭을 확보한다.
2. 보행 연속 구간 내 턱이나 돌출물을 제한하여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한다.
3. 휴게, 편의시설의 설치장소를 적절하게 설치하여 기능 및 활용도를 높인다.
4. 버스 정류장 구역 내 승하차 및 접근 버스인지를 방해하는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
5. 이용 편의성이 높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의 실효성을 높인다.
6. 현란하고 과장된 형태는 지양하고 차분하며 안정된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7. 장소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가로수 식재는 지양한다.
8. 도시 내 녹지 및 투수면적을 확보하여 지속가능성과 건강성을 높인다.
9. 제주 고유의 자연·문화경관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시설물, 조형물, 식재를 제한한다.
10. 기능만을 고려한 방음벽, 옹벽 등 도시구조물을 제한하여 경관을 향상시킨다.

공원

공원은 도시에서 녹지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꼭 짜여진 도시공간 속에서 도시민에게 휴식과 여가를 제공한다.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썸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의 도시공원은 녹지가 부족한 도시 내에서 중요한 경관형성 요소이며, 도시공원은 그 내부의 구성요소 뿐 아니라 도시공원 자체의 입지와 형태도 전체적인 경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신규로 도시공원을 지정할 경우 경관적으로 중요한 한라산, 오름, 해안 등의 조망을 고려하여 적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지역의 오래된 경관적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도시공원 조성시 대지가 가지고 있는 지문(地文)을 고려한 형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가지 도시공원의 경우 포장면·인공시설을 최소화하고 녹지를 많이 확보하여 도시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효과를 가져야 한다.

(좌)지문을 고려한 공원형태
(우)지문을 무시한 공원형태



세부지침

● 준수 ○ 유도 △ 권장 × 금지

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통합적 경관과 깊은 공간감을 조성 ● 보행가로에서의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레벨 차이가 심한 경우 교통약자를 배려하여 계단 외의 경사로 등을 설치 ● 주 접근로와 통행동선에는 계단이나 급경사를 피하여 평탄하게 계획 △ 소공원에서는 미세한 지형 변화를 통한 다양하고 입체적인 경관 조성을 권장 ● 시각적 차폐로 우범화되는 부분이 없도록 함 △ 여러 레벨에 걸쳐 공원이 전개되는 경우 수직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레벨간의 유기적 연계성을 확보할 것을 권장
시설물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재료와 시설물을 사용하고, 공원의 주제에 맞는 시설들을 통합 설치 △ 담장 및 펜스를 되도록 지양하여 도시공원의 개방성과 공공성을 높인다. 단, 어린이의 안전이나 공원의 보안과 관련된 펜스는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생울타리, 놀이벽 등 폐쇄감이 낮은 형태를 권장 △ 보행가로의 경계부에는 담장이나 펜스보다 녹지와 휴게시설 등의 설치를 권장 ● 수경시설 설치 시 관리의 용이성과 공원 설계 개념과의 부합성을 고려 ● 적절한 조명을 통하여 야간 활용도와 안전성을 높임 ○ 영구 음지에 그늘막 설치 지양 ○ 그늘막과 벤치는 함께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단, 두 시설물은 통일감 있는 재료와 형태로 디자인 ● 진입부와 공원 내 주요 결절점에는 공원시설안내도를 설치 ● 공중화장실 진입로와 출입구에는 적절한 조명을 설치 ● 공원안내표지나 공원시설안내도 등 공공시각매체는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시야를 가로막지 않는 크기로 설치 ● 하수처리장, 우수지 등의 일부를 공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해당 기반시설의 특수성을 충분히 숙지하여 공원의 이용과 시설물의 기능이 상충하지 않도록 함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투수성 포장재와 자연 재료를 권장 ●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공간에는 건강하고 안전한 재료를 사용 △ 재활용 재료의 사용을 통한 교육적 효과 창출을 권장
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식생을 최대한 살린다. 특히 랜드마크로 기능하는 노거수나 보호수는 보존 △ 상록수와 낙엽수의 혼용을 통한 계절감 부여와 겨울철 녹시율 증대를 권장 △ 덩굴성 식물을 이용한 입면 녹화와 지피식물의 사용을 권장 ● 다층 식재를 활용하여 생태적 기반을 확충하고, 교육적 기능을 높이도록 해설 시설등을 설치 ● 일조 여건에 맞는 식재계획을 수립하여 여름에는 적절한 그늘을, 겨울에는 적절한 일조를 확보
패턴 및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장된 패턴과 자극적인 색채를 금지 △ 포장면이나 입면 요소의 패턴 중 일부를 놀이 요소나 해설 시설로 활용할 것을 권장 △ 공간적 구분과 시각적 흥미를 위하여 포장 구역과 녹지 구역을 적절히 혼용할 것을 권장 ● 지역성, 상징성을 강조하는 패턴이 남용되지 않도록 함 ● 안정감 있고 공원의 성격에 부합하는 색채계획을 수립 ● 시설물과 포장의 색채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주변 녹지를 포함한 경관 요소에 조화되도록 함. ● 경관조명을 통한 야간 색채도 통합적으로 계획

자연공원

- 기존 수림과 지형을 우선적으로 보존
- 수림의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림 하부의 이용 밀도를 낮춤
- 기존 수림을 교란시키는 식재수종 배제

- 투수성 포장재료, 지역의 소재를 이용한 산책로 포장
- 쾌적하고 활동감 있는 생활 공원 조명 연출
- 보행자의 안정성 및 시야 내에 대상물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도 적용
- 벤치하부에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쾌적함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도 유도
- 벤치와 파고라 주변은 사람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연색성이 우수한 램프 사용 유도

도시공원

- 신규로 지정·조성되는 도시공원 및 기존의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
- 공원·녹지의 평면적 형태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흔적들 (land prints, 地紋)을 존중하여 결정
- 녹지비율을 최대한 확보
- 경관적·생태적으로 이질적인 수목을 배제하고 제주의 풍경을 살리는 향토 수종을 사용
- 빗물의 토양침투, 우수의 초기 저류기능을 위해 가급적 많은 수공간을 확보
- 보행로와 연속된 오픈스페이스·도시공원의 조성으로 연속된 보행네트워크의 가로경관 조성
- 위치선정시 한라산·오름·해안으로의 조망고려
- 획일적이고 상징성을 강조한 진입경관과 신시가지 랜드마크 보다는 주민참여를 통한 중장기적이고 창조적인 풍경의 다양성을 유도하는 신시가지 가로조성

어린이공원

- 냄새에 민감한 식물, 안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식물들을 배제
- 녹지공간, 풀밭을 많이 확보하여 쾌적한 활동공간 유지
- 수질관리가 용이한 형태의 수공간 조성
- 정자, 파고라, 벤치 등의 공원시설물은 공공디자인 분야의 지침에 부합되어야 함

쌈지공원

- 쌈지공원은 도시 내 유휴공간이나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소규모로 조성되는 것을 의미
- 가로녹지가 협소하고 녹지공간이 부족한 도심에 조성하여 가로경관의 질을 개선
- 가급적 가로에 면하는 형태로 조성
- 필지의 크기가 크지 않은 중소 가로에서는 이 소공원을 통해 보도와 이면도로가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관색채는 녹지 경관과 조화되는 차분한 색채 사용 유도
- 유형별 조성 지침

<유형 1 : 포켓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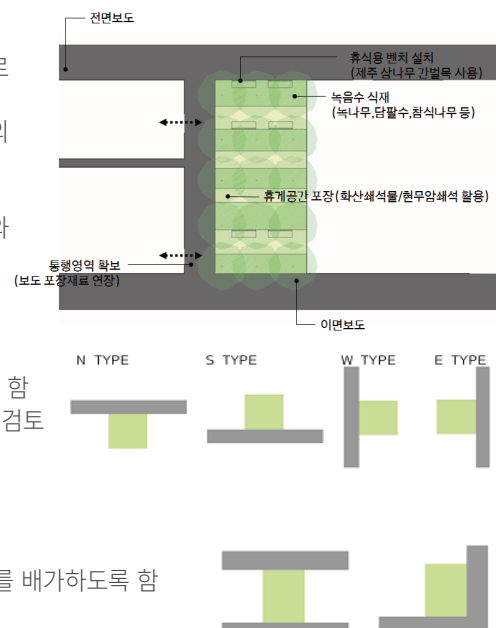
- N type(북향형) : 주변 건물로 인해 영구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S type(남향형) : 충분한 녹음효과가 발휘되도록 녹음수의 위치 검토
- W type(서향형) : 일몰의 풍경을 고려한 식재계획 수립
- E type(동향형) : 오후의 음영조건을 검토하여 식재계획 수립

<유형 2 : 통과형>

- 충분한 넓이의 통행부분 확보 (녹지 광장형 또는 장방형 마당형)
- 가급적 인접한 건물에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간의 쓰임새를 배가하도록 함

<유형 3 : 가각형>

- 횡단보도와 연계된 대기공간, 만남의 공간이라는 장소성 부여
- 시각적 개방감을 최대로 확보하고 광장형 녹음수를 식재하여 폐쇄된 분위기가 들지 않도록 함



수변공원

- 수변공원의 수면에는 어둠을 지켜 주변의 빛을 수면에 반사 유도하는 간접 조명방식 채택

체육공원

- 다중의 동시 이용을 전제로 한 공간계획 수립
- 충분한 식재대를 확보하여 소음의 확산 방지
- 공원의 조명은 각각의 스포츠에 필요한 조도로 안전을 확보하되, 인근 주택 등에 빛의 침해가 없도록 글레어 방지 유도

휴양공간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자연친화적, 소극적 인공구조물을 도입하도록 한다.

하천 주변일 경우 하천 하상레벨과, 천변 보행레벨, 도시레벨 등 수직적 레벨 변화를 통하여 제주의 고유한 건천경관을 입체적으로 조망하도록 하고, 획일화된 휴양공간이 되지 않게 그 지역의 자연에 맞는 휴양공간으로 계획 될 수 있는 사업계획이 필요하다.

단순 선형이 아닌 공간개념으로 접근하여 대상지 현황을 분석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한 계획한다.

수목원

- 수목 조명은 수목의 생태적 주기를 고려하여 가급적 자제하며 시간 조절 및 최소 광량으로 조명

생태원

- 생태 보전지역에는 최소한의 조명 권장
- 생태 수변공원의 수면에는 어둠을 지켜 주변의 빛을 수면에 반사 유도하는 간접 조명방식 채택

하천부지의 공공이용공간

- 수리적 안전성을 바탕으로 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하며 쾌적한 도시의 친수 공간을 조성
- 하천 본연의 생태적 특성을 복원
- 보행가로에서 하천변으로 이어지는 접근로를 개선
- 하천의 환경에 따라 시설물의 색채, 형태 등을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통일감 있는 경관을 조성
- 접근로에는 교통약자 및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단 외에 경사로 및 승강기 등을 설치
- 접근로는 적절한 조도를 유지하여 우범화 되지 않도록 하며 통합적인 안내 체계를 확립

수변공간

- 보존이 우선시되는 구역과 개발 이용 가능한 구역을 구분하여 생태 서식지를 보존하면서 친수공간을 조성할 것을 권장
- 수변공간으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완경사를 권장
- 인접보행로와 경계 없이 연결되도록 조성하여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이도록 권장
- 휴게공간에서 보호자가 어린이의 안전을 관찰할 수 있도록 시야를 확보
- 친수공간을 조망하며 산책할 수 있는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함께 설치할 것을 권장
- 수면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물과 접촉할 수 있는 친수공간의 확보를 권장
- 하천변에 서식하는 자생 수종의 식재를 권장
- 서식 환경의 홍수위, 침수빈도 등을 고려하여 서식 환경에 적합한 수종과 식재 방법을 적용할 것을 권장
- 폭원이 넓은 하천의 경우 연속된 선형을 강조하고 공간 스케일에 어울리도록 규모감 있게 군식 할 것을 권장
- 하천 호수 등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완충 녹지대를 설치할 것을 권장
- 이용자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를 방지하는 재료나 마감 방법의 적용을 권장
- 수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장식적이거나 복잡한 패턴의 바닥 마감을 지양

가로공간

- 유효 보도폭을 최대한 확보하여 보행권 회복
- 도시의 주요 문화, 녹지, 수체계 축을 고려하여 특성화된 보행가로 조성
- 디자인을 단순화하고 색채 및 패턴, 조명을 차별하게 조성
- 보행 가로의 평탄성과 연속성 강화
- 전면 공지와 보도의 단차 최소화
- 마을의 생활영역을 분절하는 관통도로의 경우 감속을 고려한 도로개선
- 모든 도로에서는 보행과 자전거 이용을 고려하여 차의 감속을 위한 노면의 요철화, 소재의 변화, 도로내의 식재에 의한 폭원의 변화, 도로선형의 비직선화 등의 방법을 적용
- 인위적 시설물의 증설보다는 제주 고유의 경관적인 가치를 관광자원으로 활용
- 확장 및 증설 지양과 보행공간화 - 확장 포장한 마을 안길의 포장개선
- 보행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차량속도를 줄이고 식재와 주민 공공공간을 조성함

광장(지하광장포함)

광장의 규모는 이용자 수 및 이용형태를 추정하여 산정한다.

많은 사람이 집합하는 위치에 설치하되, 다중이 집산하는 다른 시설과 근접되지 않는 장소에 입지시키고, 정적 동적 공간을 균형있게 배분하여야 한다.

교차점 광장은 지역의 랜드마크 기능을 부여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주요시설과 연계성, 연속성을 이루도록 설계한다.

이용자의 쾌적성, 주변경관과의 연속성, 주변도로와의 접근성, 보행자의 안전성 등을 확보한다.

세부지침

● 준수 ○ 유도 △ 권장 × 금지

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장 고유의 평탄성과 개방성을 확보하며 보행가로 및 건축물의 지반층과 유기적으로 연계 △ 야외무대, 식재대, 선근(sunken)공간, 계단광장 등 지형의 변화를 통하여 입체적인 공간을 조성할 것을 권장 △ 광장 내 설치가 불가피한 돌출 시설물은 경관 요소로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장 ● 교통약자를 배려하여 주요 동선에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경계석의 턱을 낮춤 △ 선근광장에는 교통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승강기 등 수직 이동 장치를 설치하며, 야외계단은 계단광장이나 공연장과 통합하여 복합 공간화 할 것을 권장 ● 계단 설치 시 단을 3단 이상으로 하거나 단 모서리를 표시
시설물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은 되도록 광장의 경계 부분에 배치할 것을 권장. 단, 구심성이나 상징성을 위한 시설물은 중앙 부분에 설치 ● 보행가로 및 주 진입로와 단차가 날 경우 계단 이외에 보행약자를 배려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등을 설치 ○ 행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광장은 이동식 시설물을 활용하여 공간의 유연성, 가변성을 높임 △ 바닥분수 등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수경 요소의 활용을 권장 ● 인접 건축물과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통합적 경관을 조성 ● 보행 및 차량 통행에 대한 하중을 고려하여 재료를 선정하고, 마감면에 요철이 적은 재질을 사용 △ 통과 교통이 많지 않은 구역에는 여름철 복사열 저감과 투수율 및 녹시율 증대를 위하여 잔디 등 식물 포장을 권장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목의 캐노피를 통하여 그늘과 공간감을 부여 △ 경관 향상을 위하여 시각적 초점부에 대형목 또는 군식을 권장 △ 보도 인접 구역이나 광장 외곽에 교목을 식재하여 그늘을 제공하고 광장의 위요감을 높일 것을 권장. 단, 보행가로의 통로를 확보하고 개방감을 높이도록 지하고가 높은 수종을 선택
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식생을 최대한 살린다. 특히 랜드마크로 기능하는 노거수나 보호수는 보존 △ 상록수와 낙엽수의 혼용을 통한 계절감 부여와 겨울철 녹시율 증대를 권장 △ 덩굴성 식물을 이용한 입면 녹화와 지피식물의 사용을 권장 ● 다층 식재를 활용하여 생태적 기반을 확충하고, 교육적 기능을 높이도록 해설 시설등을 설치 ● 일조 여건에 맞는 식재계획을 수립하여 여름에는 적절한 그늘을, 겨울에는 적절한 일조를 확보
패턴 및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장된 패턴과 지나치게 자극적인 색채 사용을 금지 △ 광장 바닥 패턴과 공공시각매체의 통합을 권장 ● 주변 환경에 조화되는 패턴과 색채를 사용

공공기관 청사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존중하는 창의적 디자인으로 도민의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돕는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사주변은 보행권을 강화하고 보행경관을 향상시키는 디자인으로 조성한다.
 제주도 전통 민가형식을 반영한 소규모 공공시설 계획하고, 획일적, 직설적, 권위적 디자인을 금지한다.
 상징성 위주의 외관계획은 지양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간계획을 유도한다.
 공공청사의 보행가로와 연결한 공공공간은 근린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으로 설계하여 시민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고, 중정형 외부공간도 허용하되 24시간 개방 가능하도록 설계할 것을 권장한다.

세부지침

● 준수 ○ 유도 △ 권장 × 금지

배치·입지	× 전면 진입부 옥외주차장 설치 금지(소방서 제외) ○ 진입부 공지는 지역 소공원으로 계획
저층부 권장용도	○ 시설별 특수업무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우선 확보하되, 최소한의 주민심터를 두어 직설적인 업무중심의 외관을 완화
실내 공공 공간	○ 비상근무를 위하여 상시 활용되는 1층 공간에 인접하여 보행자들에게 개방되는 편의시설(공중화장실, 민원무인발급기 등)을 설치
외부 공공 공간	○ 인접 공개공지와의 통합적 사용을 유도 ○ 조경면적 극대화 (건축심의기준에 근거하여 대지면적의 일정비율이상으로 제한)

주민센터

관습적 디자인, 과시적 디자인을 지양하고, 지역공동체 강화를 돕는 개방된 외부공간 설치 권장한다.

세부지침

● 준수 ○ 유도 △ 권장 × 금지

배치·입지	△ 제주도 전통가옥의 별동배치를 권장하며 특히 ground level의 매스는 지형에 순응하며 분절 △ 기존 향토경관(못, 팽나무)등과 외부공간을 연계 × 주민센터 기획시 인근 공공건축물의 유사 프로그램과 중복금지
규모	△ 1층 접도 길이는 건축심의기준근거 전면도로에 접하는 대지길이의 일정비율 미만
저층부 권장용도	△ 방문객 지원시설(마을안내 및 체류), 장애인 커뮤니티 시설, 실내 운동시설, 공공목욕시설 등 특정 용도
실내 공공 공간	△ 24시간 개방되는 보행로 성격의 실내형 공개공간의 부분적 설치를 권장 △ 마을 전체의 거실이자 공원과 같은 다목적 용도
외부 공공 공간	△ 인접 공개공지와의 통합적 사용을 유도 △ 대지 관통 보행로를 설치하여 인접시설 및 인근 녹지등으로 연계 × 야자수종 식재 금지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인접 건축물과 광장의 이용 행태가 상충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선큰광장 조성 시 보행약자를 배려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 보행을 돕고, 대규모 주차장의 연속적 불투수 포장면은 금지하고, 친환경 투수성 포장재와 자연재료를 권장한다.

시설물과 포장의 색채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재활용 재료사용을 통한 교육적 효과를 높인다.

세부지침

● 준수 ○ 유도 △ 권장 × 금지

공간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뿐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성과 접근성을 높일 것을 권장 △ 인접한 보행로,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한 통합적 디자인으로 조화로운 도시 이미지 연출을 권장 △ 지역주민의 문화와 예술 등 소통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할 것을 권장 △ 인접한 보행로와 시각적, 공간적으로 열려 있는 공간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단차를 최소화하여 접근이 편리하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 △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휴식공간과 단순 통과 목적을 위한 보행공간을 구분하여 적은 면적이라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
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한 녹지 면적을 확보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공간을 조성 △ 주변 보행축과 연계되는 수종을 식재하여 녹지를 통한 공공공간의 연속성, 연계성을 부여 △ 보행의 흐름이 있는 곳의 식재는 나무의 지하고를 충분히 높게 하여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
시설물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의 시설물과 일관성, 조화성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를 권장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범위와 면적 및 관련시설을 알기 쉽게 표시한 안내 표지를 해당 공간의 주요 출입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할 것을 권장 △ 방향성 있는 벤치를 적용할 경우 식재나 건물 등을 이용해 앉는 사람의 등 쪽이 배경이 되도록 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줄 것을 권장 △ 열린 공간의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조각품이나 분수 등의 시설 설치를 권장 △ 건축물과 연계하여 선큰 광장을 조성할 경우 보행약자를 배려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등의 설치를 권장
바닥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한 건축물과 보행공간을 고려한 바닥 패턴과 색채의 마감으로 통합적 경관을 연출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의 빛이 닿는 범위를 겹치도록 설정하여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수목에 의해 조명이 가리거나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권장 △ 야간 시간대에도 개방되는 공간에서는 충분한 조명 설치로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권장

자전거도로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일반도로의 자전거 주행로를 대상으로 일정 구간 이상 주행 가능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의 실효성을 높인다.

해안, 중산간 및 도심을 가로지르는 자전거 도로를 통해 주변 경관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므로 주변 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대상 공간 내의 시설물 설치 등에 유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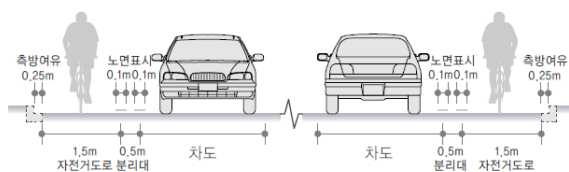
세부지침

● 준수 ○ 유도 △ 권장 ×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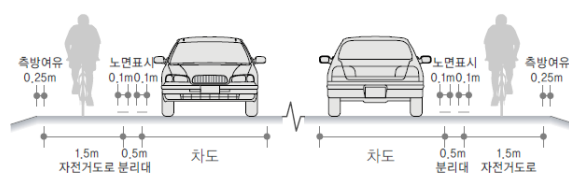
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적인 자전거 운행이 불가능한 짧은 구간의 부분적 설치 금지 ● 차도와 자전거도로를 명확히 구분 × 도로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아 실질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짧은 구간의 부분적 설치 금지 △ 주행 속도가 낮은 도로의 차도폭과 차로수를 재정비하여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는 동시에 보행과의 마찰 최소화 ● 자전거 동선과 보행 동선을 엄격히 분리 × 기존의 돌출 시설물을 제거하기 어려운 구간이나 자전거 도로와 보도의 최소폭이 확보되지 않는 보행 가로에는 자전거 도로 설치 금지 ○ 자전거도로의 폭은 1.5m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최소폭 1.2m까지 설치 △ 보행자 횡단보도와 별도로 자전거 횡단보도 도입
시설물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도로상 가로시설물의 설치 금지 × 자전거도로상 돌출 시설물의 설치 금지 △ 안전시설물 설치와 식별성이 높은 디자인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도와 교차되는 구간에서 자전거 도로의 주 재질을 연장하여 연속성을 높이고, 자동차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노면 처리 권장
패턴 및 채색,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면에 자전거 도로 노면 표지를 명확히 표기 △ 단색으로 계획하되,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 원색 사용 지양

※ 세부 설계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기반시설 유형별 디자인 개발 자전거 도로 설계기준 참조

도심지역 자전거전용차로 횡단면



중산간/해안지역 자전거전용차로 횡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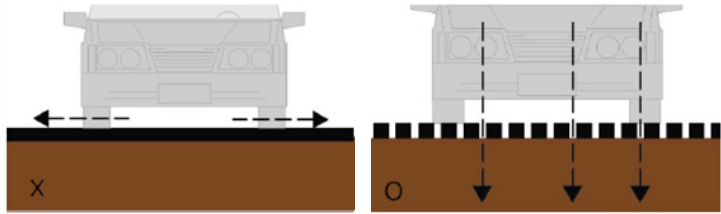
자전거도로 표준디자인 적용 시뮬레이션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의 이용 편리는 보행환경 조성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공영주차장을 조성시에는 모든 사람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교통약자를 배려하여 차량 접근로와 주 보행통로를 연속성을 갖게 하고, 차량의 주 출입구가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세부지침

● 준수 ○ 유도 △ 권장 × 금지

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우 진입부 전면주차장 설치 금지 △ 소규모를 권장하며, 합필시 최대가능면적을 건축심의기준에 근거하여 제한 △ 시가지 노외주차장의 경우 간선도로 이면도로에서 진입하는 소규모 주차장을 활성화 ○ 마을안길 입구에 공동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차량진입목적의 골목확장 포장에 의한 올레 훼손 최소화 ● 단지 내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경우 지상공간의 보행화와 녹지화를 높이기 위해 가능한 최대한의 주차대수를 건축물 내(지하주차장, 피로티 등)에 설치할 것을 의무화 △ 중심가로를 제외한 도로변의 필지 및 이면가구들의 필지에 한하여, 필지 내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공용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
시설물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통로확보, 조명, 그늘식재 등 통합설치 △ 노외주차장의 경계부 및 주차장 내의 일부를 녹화하여 시각적 차폐도와 쾌적성 증가, 복사열 저감 및 투수 면적 확보에 기여 △ 시각적 차폐를 위한 경계 부위 마운딩을 권장 △ 자동차가 보행통로를 잠식하지 않도록 보행통로와 주차공간 간에 레벨 차이를 둘 것을 권장 △ 주변에 인위적 조경 식재 최소화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주차장의 연속적 불투수 포장면은 금지하고, 친환경투수성 포장재와 자연재료를 권장 △ 주차장의 포장면적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투수성 포장재 등을 사용 △ 증설 및 보수 공사 시 투수성 소재 활용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패턴 및 채색,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선 표시는 도장 외에 차도용 블록재 사용 등 다양화 △ 차량이동통로, 주차공간, 보행영역 등을 재료의 패턴으로 구분

투수성이 좋은 황토길 포장 개선 예시



공중화장실

사용자가 접근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유니버설 디자인과 장애없는 디자인을 계획하여 사용편의에 유의한다.
 가설건물은 지양하며, 지역재료를 사용하여 주변과 조화되는 간결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사용자 편의의 서비스 공간을 제공하는 복합 기능을 권장(예:공중화장실+관광안내소+짐 보관소)한다.
 기존 건축물의 일부로 계획하고, 쉽게 인지 가능하고 건축물과 조화되는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세부지침

● 준수 ○ 유도 △ 권장 × 금지

재질	△ 실내에는 내습성 있는 재료를 사용 △ 바닥재는 미끄럽지 않은 재료를 사용 △ 금속재의 사용을 권장하며, 기타 재료를 사용할 경우 견고함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용 △ 광택재질 사용을 지양하며 친환경성, 내구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재료사용을 권장
색채	△ 주변 환경에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 × 외부는 유색도료나 유색 시트지 등의 적용을 가급적 지양 △ 금속재는 분체도장을 권장하며, 도료가 벗겨지지 않도록 원재료에 대한 선 가공 △ 유채색은 지양하며, 최소한의 색채 사용을 권장 × 문자나 로고, 관리주체 및 제작업체 등 그래픽요소의 표기 및 부착을 지양 ○ 그래픽요소를 적용할 경우에는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 픽토그램을 기본으로 사용 ● 손닿는 곳은 인색을 원칙으로 하며, 화장실 표시는 시인성 확보를 위해 돌출 및 조명내장도 가능
형태	● 출입구는 다양한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폭을 최소 1.0m 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거한 출입문 유효폭 참고 - 출입문 유효폭 0.8m 이상) ● 출입구 턱이 없도록 디자인 △ 통풍이 잘 되도록 설계 △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 공공시설물 용도에 부적합한 과도한 형태의 의장요소는 지양 △ 청소 등 관리가 용이하게 하며, 화장실 내 수분의 배출 및 환기가 원활하도록 디자인 △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을 적용하여 출입구는 문턱을 없애고 다양한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폭을 최소 1.0m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 △ 요철 및 볼트(너트)의 노출은 지양하며,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와 마감 색채를 적용
설치	△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진입로와 출입구 주변에 조명 설치를 권장 △ 남녀 화장실을 분리 설치하는 경우 남녀 사용자의 동선과 시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출입로를 설계할 것을 권장 × 도심미관 확보를 위하여 대로변에는 설치를 제한

교통섬

- 소규모 교통섬을 최소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교통섬이나 교차점 광장에는 휴게 및 녹지 기능의 강화 권장
- 불필요한 교통섬의 보도 편입을 통한 보행 영역 확보를 권장
- 보행교통섬은 도로의 규모에 따라 직선형태 또는 굴절형태로 횡단보도의 중앙에 선택적으로 설치
- 비교적 넓은 면적의 교통섬이 조성될 경우 식생화단 설치를 고려
- 차도에서 유출되는 빗물이 교통섬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입구 설치를 고려
- 보행교통섬의 최소폭은 1.5미터

등산로

- 자신의 위치와 산책로 코스 안내를 위한 안내표지판을 설치
- 경사도의 계단은 자연석, 통나무 등을 이용하여 설치
- 안내표지판은 목재를 사용해서 자연스러움을 연출
- 기존 임도 및 등산로를 정비, 개설하여 등산로를 개발
- 자연관찰로, 역사 탐방로 등의 테마로와 산림욕장 등과 연계배치
- 마을 뒷산이나 인근에 위치한 산과 연결하여 재정비 또는 신규조성
- 기존 수림대를 활용, 인위적인 식재를 가급적 피하도록 함.
- 녹지 주변 보행로 산책이나 조깅하는 사람을 위해 안전성과 경로 안내 역할을 하는 낮은 볼라드등 사용 권장
- 기존의 등산로를 정비하고, 포장의 선정, 주변식생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등산로를 조성

산책로

- 접근성 및 공간성, 안전성 등을 고려
- 자신의 위치와 산책로 코스 안내를 위한 안내표지판을 설치
- 경사도의 계단은 자연석, 통나무 등을 이용하여 설치
- 안내표지판은 목재를 사용해서 자연스러움을 연출
- 마을안길에서 다소 벗어나 있고, 주변이 조용한 길을 선택하여 배치
- 오솔길, 하천변도로, 농로 등을 활용하여 생태관광학습 산책로로 조성
- 자연스러운 곡선을 살리고, 다양한 시설 및 식재 패턴의 활용으로 흥미를 유발하여 지루하지 않도록 함.
- 산책로 조명 시 상향 조명을 지향하여 빛공해를 최소화 유도
- 산책로 설치 시 자연친화적 재료/시공법 선정
- 녹지 주변 보행로 산책이나 조깅하는 사람을 위해 안전성과 경로 안내 역할을 하는 낮은 볼라드등 사용 권장
- 해안가 산책로는 해안선의 지형을 훼손하는 형태의 노선 개설을 금지하고,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폭원으로 설계

4.2. 공공시설물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못한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공공시설물의 기능과 수준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능 및 형태의 공공시설물과의 조화 및 통합을 위하여 ‘기능’, ‘통합’, ‘안전’, ‘배려’, ‘조화’를 실천 키워드로 하여 공공시설물의 개선을 위해 시행할 10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한다.

1.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기능을 우선으로 디자인한다.
2. 크기와 형태를 최적화하고, 연계가능한 시설물들을 통합한다.
3. 시각적, 심리적 개방감 확보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여 도시경관의 연속성을 높인다.
4. 시설물의 도로점유면적을 최소화하여 보행 공간을 확대한다.
5. 무계획적인 색채 사용을 지양하고, 재료 자체의 색을 활용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와 형태의 디자인을 한다.
6. 친환경성과 내구성을 고려한 재료 사용으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실현한다.
7. 누구나 안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인체공학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8. 교통약자를 배려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9. 단순성과 결합성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우선 적용한다.
10. 시설물이 수직·수평을 유지하고 마감 부위가 보행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설치한다.

4.2.1. 도로시설물

가로등

가로등은 나트륨등보다 연색성이 좋은 메탈할라이드등 사용권장하며, 보행 및 주행 안전성 추구, 빛의 균제도 고려한 조명 방식을 유도한다.

주거지에는 은은한 보행용 가로등 조명 연출을 유도하며, 가로변 일반 구간은 가로등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여 적절한 밝기를 권장하고, 수목이 우거진 곳의 보행로는 낮은 볼라드등이나 3m 정도의 가로등 설치를 권장한다.

도로의 성격, 기능, 폭원에 따라 적합한 광원, 조도, 배치 방식, 간격, 높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세부지침

● 준수 ○ 유도 △ 권장 × 금지

재질	○ 자연 친화적이고 내구성 있는 재료 사용 유도 × 광택이 강한 스테인리스 재료 사용을 지양 ○ 광택이 적은 재료 사용 유도
색채	△ 인공 도색 사용을 지양하고 재료 자체의 빛깔을 드러내는 것을 권장 × 광택 효과를 연출하는 도장 방식 지양 △ 제주 CI에 포함된 마스코트 및 그래픽 요소의 사용 지양을 권장 × 가로등주에 특정 거리의 아이덴티티 이미지 그래픽요소 표현 지양
형태	△ 장식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단순하고 절제된 형태 × 제주 문화 콘텐츠(하르방, 밀감, 정낭 등) 도상의 지나치게 직접적이고 세밀한 표현 지양 ○ 차도 중앙에는 양 방향 가로등, 인도에는 한 방향 가로등 형태 유도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램프(예: 세라믹메탈램프) 사용 권장 △ 센서 및 태양열 현황 및 문제점 활용을 통해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적 조명 방식 권장 △ 오름 및 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생태 환경을 고려한 조도설정 및 조명 방식 권장 △ 옥외광고물 밀집지역은 가로 전체의 조도에 따라 조절 가능한 가로등 조명방식 권장 △ 보행등의 경우 눈부심을 최소화하여 보행자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조명방식 권장 ○ 가로등 설치 시 휘도 및 균제도 등 고려함을 유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시설물과 가로등의 통합 디자인을 권장 △ 가로등주에 교통표지판 등 사인 통합 부착을 권장 ○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보호대 등 가로등의 청결 유지를 위한 방안 모색(예: 표면 요철 처리) 단, 원색 또는 고채도, 고광택 소재 사용을 지양 △ 보행자 안전을 위해 스쿨존·건널목 일대 밝은 조도의 가로등을 권장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 가로등, 보안등 등

펜스

일반 도로의 보호 펜스는 되도록 설치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단,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시설물과 통합 설치하며, 도로폭이 충분한 경우 생울타리 등으로 대체할 것을 권장한다.

해안경관으로의 접근성을 위해 해안도로를 따라 설치된 펜스 정비·관리 시 통합디자인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세부지침 : 보행자용 펜스

● 준수 ○ 유도 △ 권장 × 금지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광택 금속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표면처리나 무채색 분체도장을 권장 △ 금속재는 분체도장을 권장하며, 도료가 벗겨지지 않도록 원재료에 대한 선 가공 × 목재 사용 시 목재부에 방부처리를 하며, 페인트 도장 지양 △ 유채색은 지양하며, 최소한의 색채 사용 권장 × 문자나 로고, 관리주체 및 제작업체 등 그래픽요소의 표기 및 부착 지양 × 문자나 로고, 관할 자치구 정보, 업체 정보 등의 표기 지양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상 구조는 지양 △ 공공시설물 용도에 부적합한 과도한 형태의 의장요소는 지양하며,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함 × 상징요소(자연물, 사람, 자전거 등)를 모방한 형상, 패턴의 사용은 지양 △ 높이는 1000~1100mm로 하고, 1경간의 길이는 1500~2000mm로 하되 가로바의 처짐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디자인 함 × 중간 가로바 및 세로바의 폭 또는 Ø는 40mm를 넘지 않도록 함 △ 벤치나 가로화분대 등 타 시설물과의 통합을 지양하며, 단일기능 권장 △ 요철 및 볼트(너트)의 노출은 지양하며,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와 마감 색채 적용 △ 가로 또는 세로바의 간격은 배경 또는 주변환경의 시야확보와 개방성을 유도할 수 있는 간격으로 유지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와 차도를 나누는 경계 펜스에는 차량 충돌에 대비하여 튼튼한 재료의 사용 권장 △ 보도와 녹지를 나누는 경계 펜스에는 자연친화적인 재료의 사용 권장 × 기본적으로 금속재를 사용하며, 광택 재료의 사용 지양 △ 최상단부 가로바는 목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면가공처리 권장 ● 목재는 내구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하며, 휘거나 갈라지지 않도록 가공을 선행 × 목재 대응으로 무늬목시트 등의 사용 지양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 펜스는 되도록 설치하지 않을 것을 권장. 단, 도로폭이 충분한 경우 생활타리 등으로 대체할 것을 권장 × 하부에 마감을 은폐하기 위한 캡 등 보조금구를 설치하지 않음 △ 설치 시 볼트가 외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지면 밑으로 매립하여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 보호펜스

세부지침 : 자전거도로용 펜스

● 준수 ○ 유도 △ 권장 × 금지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광택 금속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표면처리나 무채색 분체도장을 권장 △ 금속재는 분체도장을 권장하며, 도료가 벗겨지지 않도록 원재료에 대한 선 가공 △ 유채색은 지양하며, 최소한의 색채 사용 권장 × 문자나 로고, 관리주체 및 제작업체 등 그래픽요소의 표기 및 부착 지양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 위주로 단순하고 간결하게 디자인 × 판상 구조는 지양 △ 공공시설물 용도에 부적합한 과도한 형태의 의장요소는 지양하며,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 상징요소(자연물, 사람, 자전거 등)를 모방한 형상, 패턴의 사용은 지양 △ 높이는 1200mm를 기준으로 하여 ±50mm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디자인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p>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 가로바의 폭 또는 Ø는 50mm를 넘지 않도록 하며, 처짐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디자인 △ 벤치나 자전거거치대, 가로화분대 등 타 시설물과의 통합을 지양하며, 단일기능 권장 △ 요철 및 볼트(너트)의 노출은 지양하며,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와 마감 색채를 적용 △ 가로 또는 세로바의 간격은 배경 또는 주변환경의 시야 확보와 개방성을 유도할 수 있는 간격으로 유지 되도록 함

재질	△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나누는 경계 펜스에는 차량 충돌에 대비하여 튼튼한 재료의 사용을 권장 × 기본적으로 금속재를 사용하며, 광택 재료의 사용을 지양
설치	× 하부에 마감을 은폐하기 위한 캡 등 보조금구를 설치하지 않음 △ 설치시 볼트가 외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지면 밑으로 매립하여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 자전거 안전 펜스

세부지침 : 교량용 펜스

● 준수 ○ 유도 △ 권장 × 금지

색채	자전거도로용 펜스와 동일 적용
형태	△ 기능 위주로 단순하고 간결하게 디자인 × 판상 구조는 지양 △ 공공시설물 용도에 부적합한 과도한 형태의 의장요소는 지양하며,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 높이는 보행교통 기준 1300~1400mm로 디자인 △ 1경간의 길이는 1500~2000mm으로 하되, 안전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바의 형태는 세로형으로 디자인하며, 가로바의 적용은 최소화 △ 벤치, 가로화분대 등 타 시설물과의 통합을 지양하며, 단일기능을 권장 △ 요철 및 볼트(너트)의 노출은 지양하며,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와 마감 색채를 적용 △ 가로 또는 세로바의 간격은 배경 또는 주변환경의 시야확보와 개방성을 유도할 수 있는 간격으로 유지
재질	△ 고광택 재료의 사용은 지양.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광택을 줄이는 표면가공을 권장 △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및 보행자 편의를 고려하여 투명재질의 강화유리를 적용 × 기본적으로 금속재를 사용하며, 광택 재료의 사용을 지양
설치	× 하부에 마감을 은폐하기 위한 캡 등 보조금구를 설치하지 않음 △ 설치시 볼트가 외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지면 밑으로 매립하여 설치. 단, 가피한 경우 돌출된 볼트나 너트에 캡을 씌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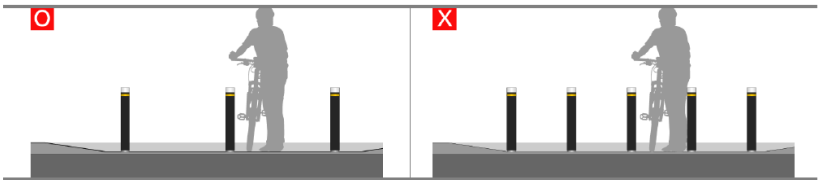
블라드

내구성이 좋은 주철, 내후성강, 아연도금강판 등을 주 재료로 권장하며, 지면 위로 설치 부속품이 드러나지 않도록 견고한 마감 처리 준수한다.

보행공간이 확보된 곳에 설치를 권장하며, 공원, 강변, 해변, 테마파크나 향토지역, 역사지역 등 특화가 필요한 공간에는 특화블라드 사용 권장한다. 제주 자연석 느낌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권장하지만, 보행자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높이 준수, 모서리는 정다듬기를 통해 부드럽게 가공할 것을 유도한다.

세부지침

● 준수 ○ 유도 △ 권장 × 금지

재질	△ 주철, 내후성강, 아연도금강판, 제주돌 등 견고하며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재료 사용 권장
색채	△ 인공 도색 지양을 지양하고 재료 자체의 빛깔을 드러내는 것을 권장 × 광택 효과를 내는 도장 방식 사용 지양
그래픽	× 제주 CI 로고와 지역로고, 관리주체 등 그래픽 표현 지양
형태	△ 불필요한 장식적 요소를 배제한 최소한의 크기 및 단순한 디자인 ○ 운전자 및 보행자가 쉽게 인지 할 수 있는 크기 유도 ○ 모든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하여 사용자 안전성 확보를 유도 △ 인공적이며 차가운 느낌의 직선적인 가공을 피하고 유기적이며 자연스러운 형태 권장
설치 및 배치	<p>● 가로 차량진입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량 배치 준수 × 지나치게 조밀한 배치간격 지양 △ 이륜차이용자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간격은 최소 150m를 유지</p> 
기타	△ 꼭 필요한 곳에 최소한으로 설치하여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함 △ 가로 식재 및 자전거 거치대 등 다른 가로시설물로 대체 권장



가드레일

- 일관된 통합적 디자인 시스템구축·관리 정비요망
- 인공구조물 보다 자연녹지 분리대를 우선함
-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경우 표면 배수의 집수와 비점 오염 물질의 처리를 위한 마운딩(mounding)과 자연 배수로 조성 권장
- 가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통과기능 위주의 가로구간에 위치한 중앙분리대는 가로수와 동일한 수종을 식재하여 수목 터널을 조성하도록 함
- 단독주택지 입구의 소규모 중앙분리대는 가급적 상징수목을 도입하여 마을의 정자목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함
- 플라스틱 등 인공 재료는 지양하고, 자연 친화적 재료를 사용할 것을 권장
- 목재 사용 시 방수, 방부, 방충에 대한 충분한 검토 권장
- 목재 사용 시 유색 페인트 도장 지양

- 단일 색채 사용 권장
- 과장된 패턴이나 문자의 남용 지양
- 물 공급과 배수가 고려된 디자인 적용
- 자연물을 모방한 형상, 패턴의 사용 지양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 무단횡단 방지 펜스



신호등주

-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 장식적 문양, 자치구 상징물의 설치 지양
- 부착 시설물(보행자자동신호기, 안내표지, 휴지통 등)은 등주와 일체감을 주도록 디자인
- 시설물의 전체 색채는 무채색 계열을 적용
- 지면 결합부위를 미려하게 마감
- 음향신호기의 확대 설치를 권장
-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보호대의 대안(특수도로 사용 등) 모색을 권장



연계가능한 시설물간 통합 사례



버스 및 택시쉼터

버스 정류장 설치로 유효 보도폭이 줄어드는 경우, 인접한 공개 공지, 옹벽, 완충 녹지 등과 버스 정류장의 통합 설치권장하며, 택시 정류장은 사용 빈도를 조사하여 주요 정거장, 환승 센터, 관광지, 호텔 등 이용이 집중되는 곳을 제외하고 철거할 것을 권장한다.

세부지침

재질	<div> <div>●</div>바람이 강한 제주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내구성 있는 재료 사용 준수 <div>● 준수 ○ 유도 △ 권장 × 금지</div> </div> <div> <div>△</div>도심 등 교통량이 많은 곳은 이용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벽면에 투명 재료 사용 권장 </div>
색채	<div> <div>△</div>인공 도색방식을 지양하고 재료 자체의 빛깔을 드러내는 것을 권장 </div> <div> <div>○</div>고채도·고명도의 자극적인 색채사용을 지양하고 저채도·저명도 색채를 사용하여 주변가로 환경과 조화를 유도 </div>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문화 콘텐츠(돌하르방, 밀감, 정낭 등)도상의 직접적이며 세밀한 표현방식 지양 △ 전체 가로보도 폭의 60%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지 않도록 보행 편의성 지향 △ 버스 진행 방향의 벽면은 투명하거나 개방된 형태를 지향 △ 버스정류장 내부에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 시스템 설치 × 버스 진행 방향에 노선 정보 및 광고물 부착 금지 ○ 제주 CI캐릭터, 일러스트, 실사이미지 등 그래픽 요소 표현 최소화 유도 ● 외국인을 위한 정보가독을 배려하여 정류장명은 한글·영문 병행 표기 준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 보행로의 폭이 좁을 경우 보행자의 동선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배치 ○ 정류장과 인접 가로시설물(휴지통, 안내판)의 조합에 따른 조화로운 배치 유도

유형별 지침 : 지붕형

- 이용 승객이 많고 배차 간격이 짧은 도심의 시내버스 정류장 유형으로 적합
- 배차 간격이 긴 시외버스 정류장에는 설치 지양

유형별 지침 : 지붕형+의자형

- 배차 간격이 길고 보도가 넓으며 이용 승객이 많은 해안, 중산간 마을 정류장 유형으로 적합
- 보도 폭이 좁을 경우를 고려하여 지붕과 의자의 통합형 권장

유형별 지침 : 표지판형

- 이용객이 적고 배차 간격이 짧은 마을 공영버스 정류장 유형으로 적합
- 폭이 좁은 보도에 설치



부속물 디자인 지침 : 조명설치

- 모든 정류장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에 명시성과 보행안전성 확보를 유도. 단, 조명 부착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에너지 절감을 위해 이용 빈도수가 낮은 정류장은 센서 부착 조명시설 설치 권장

부속물 디자인 지침 : 의자설치

- 정류장 적용소재와 일관성을 유지
- 현무암 소재의 의자는 좌석 부분에 삼나무를 덧대어 편의성을 높임
- 의자 모서리는 둥글고 부드럽게 마감하여 사용 안전성을 높임

부속물 디자인 지침 : 휴지통배치

- 모든 버스정류장에 휴지통 배치 유도(쉼터 외부)
- 크기 및 재질, 설치방식은 가로시설물 중 휴지통에 관한 기준에 따름



대중교통 개편(2017.8)에 따른 버스쉼터 교체

외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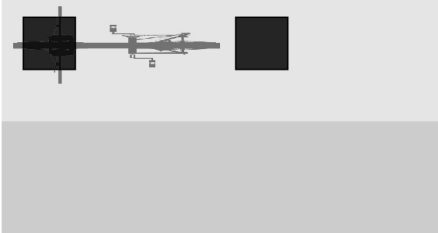
- 지하상가 또는 지하도 출입구 캐노피와 지상 노출 승강기는 시설물 이용자와 보행 가로 통과 동선의 마찰을 최소화 하도록 배치
- 주변 환경에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
-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 별도 경사로 등의 설치를 대신하여 진입로를 보도의 기울기와 일치 권장
-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가 설치된 경우 캐노피와 연속성 있는 형태의 적용 권장
- 벽면에는 투명도가 높은 유리 사용 권장
- 고풍택 재료의 사용은 지양.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광택을 줄이는 표면가공 권장
-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보도 점유면적과 규모를 최소화할 것을 권장
-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별표 1),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항(별표 1) 규정을 참고하여 디자인
- 여름철 내부 온도 상승에 대비, 통풍이 원활한 구조를 권장

자전거보관대

자전거 보관대의 보행 가로상 설치는 최대한 지양한다. 단, 주요 정거장과 대중교통 결절점, 건물 출입구 부분과 보행 가로가 교차하는 부분에는 보행권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행 가로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할 수 있다.

세부지침

● 준수 ○ 유도 △ 권장 × 금지

재질	△ 자전거와의 잦은 접촉을 고려, 쉽게 파손되지 않으며 내구성이 강한 재료 사용
색채	△ 인공 도색방식을 지양하고 재료 자체의 빛깔을 드러내는 것을 권장 ○ 고채도·고명도의 자극적인 색채사용을 지양하고 저채도·저명도 색채를 사용하여 주변가로 환경과 조화를 유도
형태	△ 자전거 몸체나 바퀴를 쉽고 견고하게 묶을 수 있는 형태를 지향하여 보안성을 높임 △ 좁은 면적에도 쉽게 설치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여 공간 이용 효율성을 높임 △ 도난, 파손 방지에 효과적인 구조
배치 및 설치	<p>△ 제주 CI에 포함된 마스코트 및 그래픽 요소의 사용 지양을 권장 × 시설물의 용도를 알리는 정보그래픽 이외의 부가적인 장식 그래픽 사용 지양 △ 보도 폭이 좁은 경우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 도로와 수평 방향으로 자전거 보관이 가능하도록 설치</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p style="text-align: center;">일반적으로 설치 할 경우(수직방향) 보도의 폭이 좁은 곳에 설치 할 경우(수평방향)</p>
기타	△ 공공기관의 자전거거치대 설치를 시작으로 하여 제주 전역에 단계적 도입 ○ 유형별 거치대 디자인 지침을 바탕으로 가로환경에 어울리는 디자인 개발 유도

유형별 지침 : 거치대형

- 보도 폭이 좁고 보관시간이 짧은 경우 설치 권장
- 자전거 전용 도로를 따라 일정 간격으로 설치 권장
- 가로에 배치된 시설물 밀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주변 가로시설물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

유형별 지침 : 거치대 지붕형

- 보도 폭이 비교적 넓고 일정기간 보관이 필요할 경우 설치 권장
- 가로등 주변에 설치하거나 센서 조명을 부착하여 일정한 밝기 유지하여 야간에도 안전한 보관이 가능하도록 유도
- 이용자가 많은 관공서, 공공기관, 학교, 공원, 주요 관광지, 공항 항만 버스터미널 의무 설치 유도

유형별 지침 : 스테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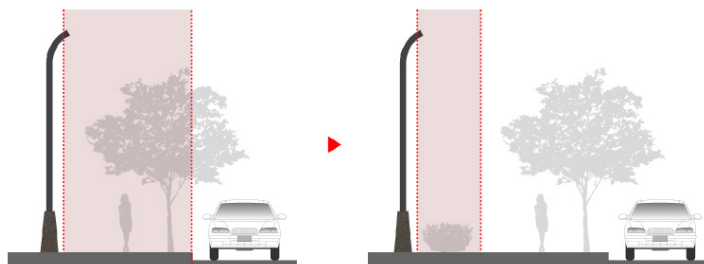
- 내외부 도난방지 시스템 구축
- 기능적인 면에서 불필요한 형태는 지양
- 환승체계(Park and Ride) 구축을 위해 버스정류소 등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설치
-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가급적 출입문은 자동도어 시스템형태로 설치
- 공공자전거 표지 및 이용안내는 부착물의 형태를 지양하고, 별도의 안내사인을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 자전거 거치대 및 스테이션

방음벽

- 보행 가로변 방음벽의 무분별한 설치 지양하고, 되도록 도로와 건축물의 이격이나 방음림 조성 등의 방법으로 소음을 차단할 것을 권장
- 방음벽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위압감을 완화시키도록 입면 녹화나 식재대와의 통합 설치를 권장
- 가로에 면하는 학교, 공동주택 등의 경우 가능한 대지경계선 안쪽으로 일정한 거리를 이격하고 녹지대나 화단을 조성하여 설치



- 창의적 디자인 권장
- 기능 위주의 간결한 디자인
- 지형변화 최소화
- 획일적인 형식의 기성품 사용 지양
- 주변 구조물에 조화되도록 연속성 있는 디자인 적용
- 가능한 경우 방음림 조성을 권장함
- 조망, 일조, 채광 등을 고려하여 투명한 재료의 방음벽 설치 권장
- 여러 재료의 불필요한 혼용, 과장된 패턴 적용 지양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 방음벽

교량

- 설치 지역 특성에 맞게 기능성을 우선시하여 디자인
- 획일적 디자인에서 창의적 디자인 유도, 통합디자인 관리체제 구축
- 도시의 주요 미적 경관요소로 활용
- 주요 도시구조물(교량)의 특성화된 야간경관 조명
- 하나의 야간경관 초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인지성 높은 야경 연출
- 재료(화강석, 벽돌, 석재타일, 제주돌)고유의 색상을 그대로 사용
- 입지 경관에 조화되는 디자인 권장
- 진입부에는 주변 보도와 연속성 있는 디자인을 권장
- 길이가 짧은 교량은 되도록 교각이 없는 간결한 형태의 디자인 권장
- 교량 상부에 기능과 무관한 장식 설치를 금지. 단, 상징이 필요한 교량에는 장식을 제한적으로 적용가능
- 고광택 재료의 사용은 지양.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광택을 줄이는 표면가공을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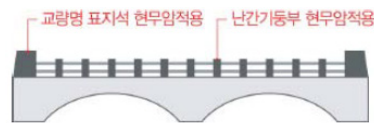


교량의 측면부에 색채를 활용하여 부피감 축소 사례

교량개선 1단계



교량개선 2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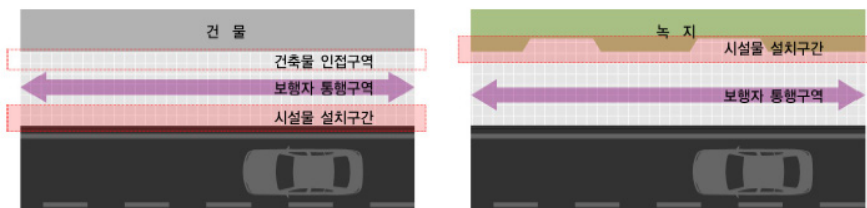
교량개선 3단계



4.2.2. 편의시설물

벤치

-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
- 조명(가로등, 보행등)과 인접하여 야간 사용자의 식별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
- 가급적 그늘이 형성되는 장소(그늘막, 수목 밑)에 설치
- 위생에 문제가 있거나 교통량이 많아 공해가 심한 장소에는 설치 지양
- 다리와 접하는 바닥마감재는 정교하게 재단하여 마감
- 설치되는 장소가 경사면이라도 벤치의 좌대는 반드시 시각적으로 수평을 유지
- 하부에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쾌적함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도 유도
- 수림지의 경우 규모를 최소화하고 인위적인 시설물(벤치, 쉼터 등)이 과도하게 설치되는 일이 없어야 함



유형별 지침 : 일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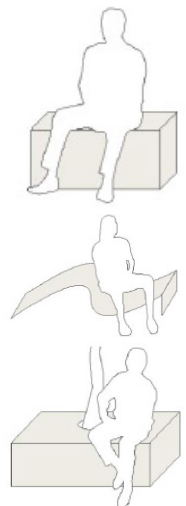
- 제주 돌과 나무 등 자연 재료 적극 활용
- 주변 가로시설과 잘 어울리는 간결한 디자인 유도
- 1인용, 2인용, 다인용 등 설치장소의 면적과 기능에 따른 구조와 모듈로 조합 가능한 디자인 유도
- 제주 돌형의 경우 제주 자연석을 그대로 활용하며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만 정다듬기 유도

유형별 지침 : 특화형

- 거리를 특성화하여 개성있고 다양한 벤치 설치 권장

유형별 지침 : 통합형

- 주변 시설물과 기능·디자인 통합 (예: 가로수 보호대+벤치, 자전거 거치대+벤치)을 유도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 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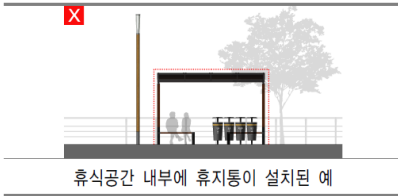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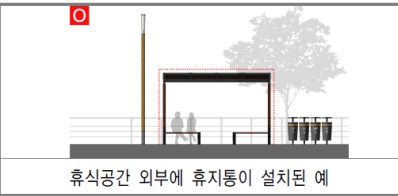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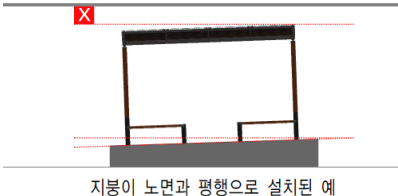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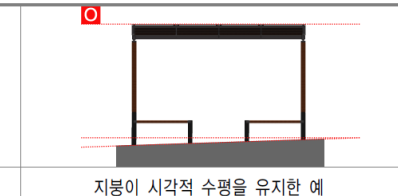
파고라

간결한 형태의 디자인으로 최소한의 구조와 개방성이 확보되는 형태로 디자인한다. 목재 사용 시 재료 자체 색의 활용을 권장하며, 최소한의 색채 사용을 권장한다.

그늘막과 벤치는 함께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설치 시 두 시설물은 통일감 있는 재료와 형태로 디자인한다.

세부지침

● 준수 ○ 유도 △ 권장 × 금지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재 사용 시 목재부에 방부처리를 권장 △ 목재 사용 시 재료 자체 색의 활용 권장 △ 금속재는 분체도장을 권장하며, 도료가 벗겨지지 않도록 원재료에 대한 선 가공 △ 유채색은 지양하며, 최소한의 색채 사용을 권장 × 문자나 로고, 관리주체 및 제작업체 등 그래픽요소의 표기 및 부착을 지양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물 용도에 부적합한 과도한 형태의 의장요소는 지양하여 최소한의 구조와 개방성이 확보되는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 요철 및 볼트(너트)의 노출은 지양하며,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 권장 × 지붕 상부에 유리, 폴리카보네이트 등 덮개를 적용하지 않음 △ 복합기능(다기능)을 지양하고 단일기능을 권장 △ 지붕은 햇빛, 바람, 빗물 고임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 △ 그늘막은 벤치와 함께 설치하는 것을 권장(단, 통일감 있는 재료와 형태로 디자인) △ 제주도의 풍압, 지반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형태로 디자인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적인 목재재질을 사용할 것을 권장 △ 광택재질 사용을 지양하며 친환경성, 내구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재료사용을 권장 ○ 구조재는 철강형재를 사용하고, 제주도의 풍압, 지반 등에 적합하도록 구조검토를 실시 ○ 지붕의 경우 반투명 또는 색상을 사용하여 햇빛 차단효과를 주어야 함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재(기둥) 고정시 체결부가 외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지면 밑으로 매립하여 설치 × 그늘막 지붕 아래의 휴지통 설치는 지양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flex-e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휴식공간 내부에 휴지통이 설치된 예</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휴식공간 외부에 휴지통이 설치된 예</p>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과 함께 설치하거나 가로등 등 주변 조명을 이용할 것을 권장 △ 구조물의 식생녹화를 권장 ○ 주변은 사람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연색성이 우수한 램프 사용 유도 △ 파고라 조명은 파고라 내부를 은은하게 연출하며, 파고라 내부의 안전조도 유도주변 환경에 조화되는 색채를 적용 ● 설치되는 장소가 경사면일 경우에는, 지면 보수 및 지주의 높이를 조절하여 시각적으로 수평유지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flex-e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지붕이 노면과 평행으로 설치된 예</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지붕이 시각적 수평을 유지한 예</p> </div> </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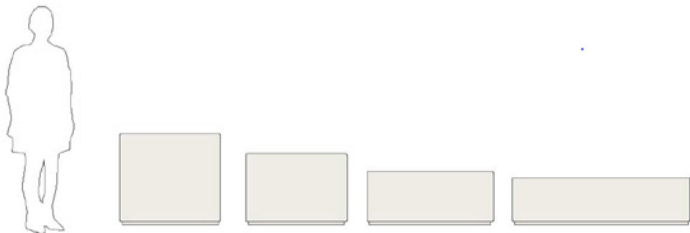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 파고라

가로화분대(플랜터)

가로 화분대는 시설물 설치 구역 내에 배치하며, 벤치나 볼라드, 가로수 보호 덮개 등 다른 시설물과의 통합 권장한다.

세부지침

● 준수 ○ 유도 △ 권장 × 금지

색채	△ 인공 도색을 지양하고 재료 자체의 빛깔 드러냄을 권장 × 광택 효과를 내는 도장방식 사용 지양
형태	△ 불필요한 장식적 요소를 배제한 최소한의 크기 및 단순한 디자인 ● 식물 성장에 해가 되지 않도록 배수를 고려한 디자인 준수 × 자연물을 직접적인 방식으로 모방한 디자인 지양 × 지역 로고나 일러스트, 실사이미지 등 그래픽 표현 지양 ● 동호회, 주민단체 등 관리 주체 표기는 최소한의 크기로 함
재질	△ 제주돌, 삼나무 등 제주 고유의 재료 활용 권장 × 자연물을 모방하기 위한 인공재료 사용 지양 △ 필요한 경우 자연재료 표면 모방이 아닌 자연재료를 그대로 사용할 것을 권장
배치	× 연속적인 병렬 배치 시 지나치게 조밀한 간격 지양 △ 경계부, 결절부 등 주요 지점에 배치 시 주변의 다른 가로시설물들과 적절한 배치 간격 유지
기타	○ 보도 폭에 따라 큰 형태와 작은 형태의 두 가지 크기를 제시하여 적절한 선택 유도 

수목보호덮개

가로화분대, 벤치나 볼라드 등 다른 시설물과의 통합설치를 권장한다.

세부지침

● 준수 ○ 유도 △ 권장 × 금지

색채	△ 단일 색채, 무채색, 보도블록 등에 조화되는 색채 사용을 권장 △ 금속재는 분체도장을 권장하며, 도료가 벗겨지지 않도록 원재료에 대한 선 가공 ○ 노출이 불가피한 볼트(너트)는 시설물 본체의 색채와 동일한 색을 적용 △ 유채색은 지양하며, 최소한의 색채 사용을 권장 × 문자나 로고, 관리주체 및 제작업체 등 그래픽요소의 표기 및 부착을 지양
재질	△ 플라스틱 등 내구성이 약한 재료의 사용은 지양하며 금속재의 사용을 권장 △ 고광택 재료의 사용은 지양하며, 철재 사용 시 무채색 분체도장을 권장 ○ 판재를 밟았을 때 출렁거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충분한 두께를 확보하거나 구조재를 보강하여 출렁거림을 방지 △ 친환경성, 내구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재료사용을 권장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을 방해하지 않도록 디자인의 단순화 △ 식생을 위한 우수의 유입을 고려하여 타공 등을 적절하게 디자인. 단, 이 경우 여성의 힐이나 지팡이 등이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디자인 △ 가로수보호덮개 하부의 청소가 용이한 디자인을 권장 × 공공시설물 용도에 부적합한 과도한 형태의 의장요소는 지양. 특히 자연물, 상징요소 등을 모방한 형상, 패턴의 사용은 지양 △ 기본 프레임의 형태는 사각형을 권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형을 적용. 단, 다각형은 지양 △ 가로수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는 홈을 뚫을 것을 권장 △ 빗물 투수가 용이한 형태를 권장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와 높이를 같게 하여 설치. 단, 식물의 원활한 뿌리 호흡을 위하여 가로수보호덮개 아래 공간을 확보 △ 시설물을 연결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체결볼트는 돌출되지 않아야 하며, 볼트는 망실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인 +자, 육각 보다 오각, 삼각 등 특수한 부품 사용을 권장

관광안내소

시민 편의의 서비스 공간을 제공하는 복합 기능을 권장 (예 : 관광안내소 + 공중화장실 + 짐 보관소)하며, 홍보물과 표지물의 무분별한 외벽 부착을 금지한다. 쉽게 인지 가능하고 건축물과 조화되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 관광정보 안내를 용이하게 한다. 관광안내소의 안내판에는 관광안내소 픽토그램과 거리 이외의 정보표기를 금지하고, 관광안내소 디자인은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형태와 색채를 적용한다.

세부지침

● 준수 ○ 유도 △ 권장 × 금지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지의 인지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표준 픽토그램을 적용 △ 알아보기 쉬운 명료한 서체와 크기, 색상 사용을 권장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정보물의 제공이 용이한 디자인을 권장 △ 규모와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간결하고 개방적인 구조와 형태를 권장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질적인 재료의 혼용을 지양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의 편의를 돕도록 다른 시설물과의 결합을 권장 △ 무인관광정보 키오스크의 설치를 권장 × 도심지역은 반경 2km 이내에 기설치 된 안내소가 있을 경우 신규설치 지양 ×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지점에는 보행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 관광안내소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무인관광정보 키오스크 설치 시 청각·시각 장애인을 위하여 LED나 LCD를 이용한 정보전달과 음성 서비스 기능의 견비를 권장하고, 조작부는 일반 사용자와 휠체어 사용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세부지침

● 준수 ○ 유도 △ 권장 × 금지

형태 및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이 설치되는 상부와 영상시스템이 매입되는 하부로 구성 △ 설치 및 유지·관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관련 장비의 접근이 용이한 개방적인 공간에 설치할 것을 권장 ○ 휠체어이용자나 노약자, 어린이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 △ 지역별로 차별화된 개성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기 보다는 도 차원에서 동일한 디자인과 설치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 △ 터치스크린은 햇빛에 의해 난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사각을 적용하고 야간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상부에 매입형 조명을 설치할 것을 권장 △ 터치스크린과 스피커를 설치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직접 시청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디자인할 것을 권장
형태 및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장되는 영상시스템의 크기를 고려하여 외장 크기를 설정하고, 내장된 영상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 잠금장치가 있는 점검구를 설치할 것을 권장 △ 하단부는 충격 및 빗물에 의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며, 하부의 기초볼트, 앵커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로 마무리할 것을 권장 △ 무인키오스크에 부여되는 정보(고유관리코드 등)를 표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해당 정보의 변경이 가능한 구조로 디자인할 것을 권장
색채 및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채는 원색 또는 고채도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할 것을 권장 △ 무인키오스크에 적용되는 재료는 미관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할 것을 권장 △ 무인키오스크의 주재료는 내구성이 강한 스틸을 주재료로 사용하고, 내마모성이 우수한 무광도장으로 표면을 마감할 것을 권장 △ 고광택 스테인리스스틸의 사용을 지양하고, 부득이 유지·관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스테인리스스틸을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 면적을 최소화하고, 반광택 또는 무광택의 표면처리를 권장 △ 정돈된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무인키오스크에는 상업 또는 비상업적 목적의 광고물 및 장식물 부착을 금지하고, 패턴 또는 특정 이미지를 형상화한 슈퍼그래픽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 △ 외국인 이용자를 배려하여 다국어표기나 픽토그램을 이용한 시설안내사인을 적용할 것을 권장

생활정보지 배부함

장소와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공간이 협소하거나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복잡한 곳에는 설치를 금지하며, 보행도로 이면 공간에 주로 설치한다. 과다설치 및 중복설치를 막기 위해 현황을 충분히 고려한 설치를 권장한다.

세부지침

● 준수 ○ 유도 △ 권장 × 금지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 색채, 무채색, 보도블록 등에 조화되는 색채 사용을 권장 △ 노출이 불가피한 볼트(너트)는 시설물 본체의 색채와 동일한 색을 적용 △ 유채색은 지양하며, 최소한의 색채 사용을 권장 × 문자나 로고, 관리주체 및 제작업체 등 그래픽요소의 표기 및 부착을 지양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을 방해하지 않도록 디자인의 단순화 × 공공시설물 용도에 부적합한 과도한 형태 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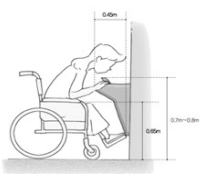
표기	△ 정보지의 종류에 따라 부착하는 정보지명은 같은 위치에 부착을 권장 × 광고물 부착 금지
설치	● 시설물 설치 및 시공 시 매입을 준수 ● 설치 주변 포장은 주변과 동일 포장으로 마감 준수

음수대

공원, 광장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하여 식수를 제공하는 위생시설물로 설치장소의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이 요구된다.

세부지침

● 준수 ○ 유도 △ 권장 × 금지

색채	△ 재료 자체의 색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 × 음수부(음수꼭지, 배수구 등)를 제외한 합체부분에 유색도료나 유색시트지 등의 적용을 지양 △ 금속재는 분체도장을 권장하며, 도료가 벗겨지지 않도록 원재료에 대한 선 가공
형태	<div> <p>× 지나친 장식적 요소의 남용 지양 × 스테인레스 스틸 등 광택성 재료 사용 지양 △ 간결한 형태로 설계,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서리를 둥글게 마감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하여 무릎을 넣을 수 있는 공간 확보를 권장 △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형태로 디자인 △ 크기 및 구조 결정 시 <한국인 인체 치수 조사> 참조를 권장 × 공공시설물 용도에 부적합한 과도한 형태의 의장요소는 지양 △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안전 및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디자인을 고려 △ 요철 및 볼트(너트)의 노출은 지양하며,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와 마감 색채 적용 △ 복합기능(다기능)을 지양하고 단일기능을 권장 △ 동절기를 고려하여 동파방지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p> </div> 
재질	△ 부식 및 파손을 막기위해 내부식성 및 내구성이 높은 재료를 선택 △ 주변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재료의 사용을 권장
설치	△ 이용자의 눈에 쉽게 띄고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 △ 청결, 배수 및 유지·보수를 고려한 디자인을 권장 △ 물의 낭비를 막도록 자동잠금장치 설치를 권장

분수대

- 시민들의 휴식공간에 배치되므로 개방형으로 제작하는 것을 지향
- 분수대의 이용이 제한되는 겨울철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 고려
- 물을 지속적으로 순환, 교체하여 악취와 물놀이 피부병 등의 발생 위험이 없도록 위생상 관리
- 바닥의 미끄러움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
- 안전사고로부터 철저히 보호되도록 안전장치의 설치
-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광장 및 휴게공간 등을 통합 조성, 휴게 시설물의 배치 권장

가로판매대

가로판매대를 설치할 때는 설치 및 유지·관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관련 장비의 접근이 용이한 개방적인 공간에, 보행공간을 점유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의 동선을 단절시키지 않도록 주변 공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하고, 휠체어이용자나 노약자, 어린이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구조로 디자인할 것을 권장한다.

※ 현재 도내 가로판매대에 대한 설치 사례 없음. 본 지침은 도심 시설물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됨. 해안 및 종산간 지역에 설치시 내구성을 고려한 재질의 선택이 요구됨.

세부지침

● 준수 ○ 유도 △ 권장 × 금지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채는 원색 또는 고채도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 창호 및 상품 진열면은 투명강화유리를 적용. 투명강화유리를 제외한 모든 면에는 지정 색채를 적용하며 정돈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차양막과 알루미늄 셔터에도 벽체, 지붕과 동일한 지정 색채를 적용할 것을 권장 △ 환풍기, 계량기, 실외기 등의 기능성을 충족시키면서 판매대와 동일한 구조체로 인지될 수 있는 색채를 적용 × 정돈된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가로판매대에는 상업 또는 비상업적 목적의 광고물 및 장식물 부착을 금지하고, 패턴 또는 특정 이미지를 형상화한 슈퍼그래픽, 공공미술 등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판매대의 형태는 지역을 상징하는 동식물 등과 같은 특정 이미지를 형상화시켜 디자인하지 않는 것을 권장 △ 보도 내 점유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명, 차양막, 환풍기, 계량기 등의 기능시설은 벽체매입형으로 디자인할 것을 권장 △ 포장가공식품의 판매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으로 구성하며, 이용자의 접근성과 개방적인 가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부피감을 최소화시킨 단순한 구조로 디자인할 것을 권장 △ 이동이 가능한 독립형 부스형식을 권장. 냉장고, 신문거치대, 상품진열대 등 판매를 위한 부속물이 부스 외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고, 판매시간 외에는 모든 부속물이 셔터로 가려질 수 있도록 디자인할 것을 권장 △ 보도 포장면의 요철 및 경사도를 고려하여 가로판매대 하부에 높이 조절발을 설치하여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할 것을 권장 △ 상품 판매를 위한 냉장고 진열대, 창호는 구매자와의 접점면이 넓은 판매대 전면에 설치하고, 야간에는 가로판매대의 셔터를 내려 정돈된 외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특히 셔터는 벽체와 유사한 형태로 설계하여 벽체의 일부로 인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냉장고, 에어컨 등은 판매대 내부에 설치 공간을 확보하며, 외부로부터의 전기인입을 고려하여 설계할 것을 권장 △ 날씨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접이식 차양막을 설치하되 차양막의 길이는 가로판매대의 깊이를 넘지 않게 하고, 설치 각도는 빗물 고임 방지를 위해 5도 내외의 경사각을 적용. 특히 야간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차양막 하부에 고정형 조명을 설치할 것을 권장 △ 안전을 위해 출입문에는 내·외부 겸용 시건 장치를 부착할 것을 권장 △ 가로판매대에 부여되는 정보 (권역표시, 고유관리코드 등)를 표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해당 정보의 변경이 가능한 구조로 디자인할 것을 권장 △ 환풍기, 계량기, 실외기 등 판매자를 위한 기능시설을 설치하며, 가로판매대 벽체의 일부로 인지될 수 있도록 판매대의 측면 및 지붕에 설치할 것을 권장 △ 가로판매대에 사용되는 조명은 고효율의 LED 램프를 사용할 것을 권장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판매대에 적용되는 재료는 미관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할 것을 권장 △ 가로판매대의 주재료는 내구성이 강한 스틸을 주재료로 사용하고, 내마모성이 우수한 무광도장으로 표면을 마감할 것을 권장 △ 셔터는 중량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알루미늄 재질을 적용하고, 차양막은 방수성이 뛰어난 불투명 아크릴 원사를 사용할 것을 권장 △ 가로판매대에는 고광택 스테인리스스틸의 사용을 지양하고, 부득이 유지·관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스테인리스스틸을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 면적을 최소화하고, 반광택 또는 무광택의 표면처리를 권장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 색채는 원색 또는 고채도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 지역을 상징하는 동식물 등과 같은 특정 이미지를 형상화시켜 디자인하지 않는 것을 권장
- 사용자를 위한 기능시설은 측면 및 지붕에 설치할 것을 권장
- 사용자의 편의 및 기능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한 공간 배정
- 안전사고로부터 철저히 보호되도록 안전장치의 설치

※ 현재 도내 구두수선대에 대한 설치 사례 없음. 본 지침은 도심 시설물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됨.

휴지통

모든 버스정류장에 휴지통 배치 유도하고, 광택이 강한 스테인리스 재료 사용을 지양, 자연 친화적이며 내구성 있는 재료 사용, 화기에 강한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세부지침

● 준수 ○ 유도 △ 권장 × 금지

색채	△ 인공 도색을 지양하고 재료 자체의 빛깔을 드러내는 것을 권장 ○ 고채도·고명도의 자극적인 색채사용을 지양하고 저채도·저명도 색채를 사용하여 주변가로 환경과 조화 유도 △ 단색, 무채색 적용 권장
형태	△ 쓰레기 투입과 수거가 용이한 형태로 제작 △ 바닥이나 다른 시설물의 기둥에 단단히 고정할 수 있는 형태 △ 장식 요소를 배제한 단순한 형태 × 제주 문화 콘텐츠(하르방, 밀감, 정낭 등)의 지나치게 직접적이고 세밀한 도상적 표현 지양 × 분리수거 픽토그램을 제외한 그래픽 표현 지양
설치	○ 쉽게 청소할 수 있고 내부에 굴곡이 없는 형태 유도 ○ 벤치, 쉼터, 파고라 등 다른 주변 시설물들과 연계하여 설치하되 적절한 거리로 이격시킴 (최소 이격거리: 90m) △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윗면이 폐쇄된 형태 권장
기타	△ 설치 장소, 도로 폭, 유입 인구량에 따라 적합한 형태 및 크기로 설치 △ 위치이동, 철거, 설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설물로 내피는 가급적 중량이 가볍고 운반이 편리하도록 함

유형별 지침 : 일반형(독립형)

- 원형과 사각형 두 가지 형태로 제작하여 주변과 조화되는 유형 설치
- 보도 폭과 통행량에 따라 적합한 유형으로 설치
- 큰 형태와 작은 형태의 두 가지 크기로 제작
- 보행 공간이 좁은 곳에 설치 지양
- 모듈로 조합이 가능하여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디자인 유도

유형별 지침 : 일반형(기동형)

- 보행 공간이 좁은 곳에 설치 유도
- 설치 시 버스정류장·가로등·안내판의 지주부착형으로 활용 권장

유형별 지침 : 분리수거형

- 명시성이 높은 분리수거 픽토그램 부착 준수
- 필요에 따라 쉽게 조합할 수 있도록 모듈 형태로 제작. 일반형·독립형에 따른 분리수거형 디자인 유도



간이화장실

공원의 화장실, 매점 등의 공원건축물은 지역재료를 사용하여 최대한 단순하게 한다. 이용자가 멀리서도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차폐되지 않은 개방적인 공간에, 설치 및 유지·관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관련 장비의 접근이 용이한 개방적인 공간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휠체어이용자나 노약자, 어린이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구조로 디자인할 것을 권장한다.

남·녀 화장실을 분리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녀 사용자의 동선과 시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출입구를 디자인하고, 통풍 및 자연 채광이 용이한 구조로, 방법적인 측면에서 야간에 이동식화장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이동식화장실 자체 및 주변 공간의 조명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한다.

세부지침

● 준수 ○ 유도 △ 권장 × 금지

재질	<p>△ 이동식화장실에 적용되는 재료는 미관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할 것을 권장</p> <p>△ 내구성이 강하며 조립식 구조로 설계할 수 있는 알루미늄과 스틸을 주재료로 디자인할 것을 권장</p> <p>△ 내부 바닥은 배수를 고려하여 내습성 있는 재료를 사용하며 바닥재는 미끄럽지 않은 재료를 사용할 것을 권장</p> <p>△ 고광택 스테인리스스틸의 사용을 지양하고, 부득이 유지·관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스테인리스스틸을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 면적을 최소화하고, 반광택 또는 무광택의 표면처리를 권장</p>
색채	<p>△ 이동식화장실의 색채는 원색 또는 고채도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할 것을 권장</p> <p>△ 벽체 외부와 지붕은 스틸을 주재료로 설계하고, 표면은 내구성이 강한 도장(무광)으로 마감 처리할 것을 권장</p> <p>△ 양변기, 소변기, 세면대 등은 유지·관리 및 위생적 측면을 고려하여 백색의 도기질 제품을 설치할 것을 권장</p> <p>× 정돈된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이동식화장실에는 광고물 및 장식물 부착을 금지하고, 패턴 또는 특정 이미지를 형상화한 슈퍼그래픽, 공공미술 등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p>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식화장실의 디자인은 정돈된 가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구조물의 외형적인 특징을 강조하는 조형성 중심의 디자인을 지양. 기능성 중심의 간결함을 강조하는 디자인을 권장 × 이동식화장실의 형태는 지역을 상징하는 동식물 등과 같은 특정 이미지를 형상화시켜 디자인하지 않을 것을 권장 △ 휠체어이용자가 이용 가능한 양변기, 세면대, 조명, 냉·난방기, 환풍기를 각각 1조씩 포함시켜 설계할 것을 권장 △ 보도와 이동식화장실 바닥과의 단 차이부분은 휠체어이용자를 고려하여 경사로와 핸드레일을 설치할 것을 권장 △ 이동식화장실에 부여되는 정보(고유관리코드 등)를 표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해당 정보의 변경이 가능한 구조로 디자인할 것을 권장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에 범죄를 예방할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명계획을 수립하고, 사용되는 조명은 고효율의 LED 램프를 매입형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 △ 이동식화장실 내부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실외기는 배기팬과 동일한 기준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 △ 내부의 환기를 위한 강제 배기팬을 설치하되 외부로 노출되는 관련 시설물은 지붕 위를 향하도록 디자인할 것을 권장

4.2.3. 공급시설물

맨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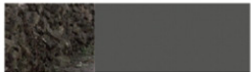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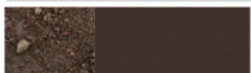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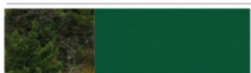
- 표면의 페인트 도장을 금지한다. 단, 소화전용 맨홀은 불법주차 방지를 위해 정해진 표시 가능
- 설치 목적과 관련 없는 문자는 보행자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표기할 것을 권장
- 하수맨홀 뚜껑에는 우수와 오수를 구분하여 명기할 것을 권장
- 보도면과 연속성 있는 형태나 맨홀의 형태와 같은 하나의 판으로 디자인
- 블록과 동일한 마감재나 유사한 질감의 재료로 마감
- 주변 보도블록과 동일한 패턴 사용을 권장
- 기본적으로 금속재를 사용
- 도장을 금지
-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우수, 오수 등 기능 표기 등)를 제외한 문자나 로고 등 그래픽 요소의 표기 및 부착을 지양

배전함

분전반, 배전반, 교통 신호 제어기 등의 보도상 설치의 지양하며, 되도록 가로 화분대나 인접 공공건축물의 조경 구역 내에 통합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세부지침

● 준수 ○ 유도 △ 권장 × 금지

재질	<p>△ 쉽게 파손되지 않는 내구성 있는 재료 사용</p> <p>△ 표면의 오염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재료 사용</p>
색채	<p>△ 인공 도색을 지양하고 재료 자체의 빛깔을 드러내는 것을 권장</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flex: 1;"> <p>일반형 A</p>  <p>N 2/0 C:0 M:2 Y:5 K:82</p> <p>일반형 B</p>  <p>5YR 3/2 C:0 M:15 Y:20 K:90</p> <p>특화형</p>  <p>10G 2/6 C:90 M:0 Y:70 K:68</p> </div> <div style="flex: 1; padding-left: 10px;"> <p>① 색채 제한 (경관색채 부분 참조)</p> <p>② 일반형 설치하는 가로시설물의 색채 계획에 따름</p> <p>③ 특화형 공원의 나무 사이에 설치하는 경우 적용 가능</p> </div> </div> <p>× 광택 효과를 내는 도장방식 사용 지양</p> <p>△ 차분한 무채색 권장</p> <p>× 제주 CI 로고와 지역 로고 등 그래픽 표현 지양</p> <p>× 일러스트, 실사이미지 등 그래픽적 표현 사용 금지</p>
형태	<p>△ 장식 요소를 배제한 단순하고 절제된 형태</p> <p>△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모서리는 부드럽고 둥글게 처리</p> <p>○ 최대한 작은 크기로 제작하여 시각적 위압감을 줄이고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도</p> <p>× 표면 요철 처리를 하여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p> <p>△ 상판을 경사 처리하여 쓰레기 방치 예방</p>
기타	<p>× 점자 블록 위 설치 금지</p> <p>△ 가능한 한 주변 건물 내 설치 권장</p>

신호등 및 가로등 제어함

분전반, 배전반, 교통 신호 제어기 등의 보도상 설치는 지양하며, 되도록 가로 화분대나 인접 공공건축물의 조경 구역 내에 통합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크기를 최소화 하고 지붕을 씌우지 않는 간결한 구조로 디자인한다.

세부지침

● 준수 ○ 유도 △ 권장 × 금지

재질	× 기본적으로 금속재를 사용하며 고광택재료의 사용을 지양
색채	△ 금속재는 분체도장을 권장하며 도료가 벗겨지지 않도록 원재료에 대한 선가공 △ 유채색은 지양하며 최소한의 색채사용 권장 ×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외한 문자나 로고 등 그래픽요소의 표기 및 부착을 지양
형태	△ 공공시설물 용도에 부적합한 과도한 형태의 의장요소는 지양하며,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 및 크기의 최소화를 권장 × 지붕 및 콘크리트 받침대의 설치를 지양 △ 요철 및 볼트 너트의 노출은 지양하며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와 마감색채를 적용
기타	× 하부에 마감을 은폐하기 위한 캡 등 보조금구 설치 금지 △ 설치시 체결부가 외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지면 밑으로 매립하여 설치

제설함

-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 고채도·고명도의 사용 지양
- 기능 색채 반사체의 반사체 적용 시 색채나 장식의 남용은 지양
- 기능위주로 단순하고 간결하게 디자인
- 쓰레기 적치가 불가능하도록 덮개 부위를 곡면으로 처리
- 시설물 내부로 우수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디자인
- 고정시설물이 아닌 이동가능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권장
- 시설물을 알리는 문구와 픽토그램 이 외의 장식적 도안을 금지
- 문자나 로고 제주 CI 표기는 지양
- 시설물과 내용의 손상을 막도록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

소화전

방재시설은 지역별로 차별화된 개성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기 보다는 도 차원에서 동일한 디자인과 설치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설치할 때는 보행공간을 점유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동선을 단절시키지 않도록 주변 공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공지, 공원 등의 공간을 이용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단, 긴급상황 발생 시 빠른 시간 내에 방재시설의 위치가 인지될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에 설치한다.

세부지침

● 준수 ○ 유도 △ 권장 × 금지

형태 및 구조	△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규모와 간결하고 기능적인 형태 디자인을 지향 △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할 목적으로 방재시설 주위에 펜스를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방재시설의 위치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 △ 옥외소화전의 모서리 등의 마감부위가 날카롭지 않게 디자인할 것을 권장
---------	--

색채 및 재료	<p>△ 방재시설의 색채는 원색 또는 고채도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할 것을 권장</p> <p>△ 옥외소화전에 적용되는 재료는 미관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할 것을 권장</p> <p>△ 옥외소화전에는 고광택 스테인리스스틸의 사용을 지양하고, 부득이 유지·관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스테인리스스틸을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 면적을 최소화하고, 반광택 또는 무광택의 표면처리를 권장</p> <p>△ 정돈된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옥외소화전에는 광고물 및 장식물 부착을 금지하고, 패턴 또는 특정 이미지를 형상화한 슈퍼그래픽, 공공미술 등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p>
---------	--

전화부스

- 공중전화부스는 사용빈도와 필요성을 검토하여 설치수량을 최소화하며 공공건축물이나 공개공지 편의점 등과 통합 설치를 권장
- 교통약자를 배려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
- 고채도·고명도의 색을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을 적용
-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를 권장
- 방음형 부스(문이 닫히는 구조)는 내부가 보이는 디자인을 권장
- 공중전화부스의 바닥면과 보도의 높이가 같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
- 부스 내부 청결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며, 특히 전화기의 위생에 유의
- 단독 부스 설치 시 일반 사용자와 장애인, 아동 등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높낮이가 다른 공중전화기 설치와, LCD, 음성 서비스 등 정보전달 방법을 검토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

전신주

- 신규 설치 전신주는 지중화를 지향
- 기존의 전신주는 가로등주, 신호등주 등과 통합화를 권장
-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보호대 등 가로등의 청결 유지를 위한 방안 모색(예: 표면 요철 처리) 단, 원색 또는 고채도, 고광택 소재 사용을 지양

석축/옹벽

- 지형변화를 최소화하여 석축 및 옹벽설치를 지양하며 벽면 녹화 등 자연재료를 이용한 마감처리를 권장
- 도시 경관을 훼손하는 벽화 및 슈퍼그래픽의 남용을 금지하며 불필요한 장식과 과장된 패턴 적용을 지양
- 보행자에게 위압감을 주는 옹벽설치를 제한하고 자연지형을 존중
- 도시경관을 훼손하는 벽화 및 그래픽의 남용을 금지
- 불필요한 장식과 과장된 패턴 적용은 지양
- 옹벽의 높이는 사면 안전 확보 범위에서 최소화
- 패턴이 인지되지 않도록 패턴 단위의 크기를 조절할 것을 권장
- 벽면 녹화 등 자연 재료를 이용한 마감처리를 권장
- 배수구는 유출수의 흔적이 옹벽에 누적되지 않도록 내림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

방호울타리

- 통합디자인, 관리시스템 구축
- 기능 위주로 단순하고 간결하게 디자인
- 그래픽 요소 금지
- 무단횡단 방지 시설의 설치 지양

회전형교차로

- 교차로, 횡단보도, 도로 구조가 변화하는 곳, 교통안전시설이 집중 설치된 지점 및 사고다발 예상 지점에는 밝은 조도 유지 권장
- 교차로 녹지 섬의 적절한 경관 조명 권장
- 기본적으로 입체교차로 설치 제한, 보행자 위주의 동선 유도
- 창의적 디자인·통합디자인 관리
- 주요 교차로는 야간에 어디서 보더라도 주요 교차지점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밝은 분위기 연출 및 교차로 안전성에 중점을 둔 통일성 부여
- 교차로 중앙부분의 녹지화 유도 및 제주고유 재료 수종 사용 권장

4.3. 공공시각매체

반드시 필요한 정보전달요소에 대한 기능을 향상시키고, 도시공간의 조화 및 통합을 위해 도시에 대한 배려와 기능유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수량과 규모를 최소화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공공시각매체 디자인을 추구하고자 ‘기능’, ‘통합’, ‘안전’, ‘조화’를 실천 키워드로 하여 공공시각매체의 개선을 위해 시행할 10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한다.

1. 정보의 순위를 고려하여 연계가능한 시각매체는 통합 설치한다.
2. 시인성과 가독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디자인 우선순위를 정립한다.
3. 교통약자, 노약자 등 누구나 사용하기 쉽게 디자인한다.
4. 강렬한 색채로 시각적 혼란을 일으키는 무단횡단 금지표시를 제한한다.
5. 공원이나 문화재 주변의 공공시각매체는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6. 일관성 있는 색채코드시스템을 적용하여 시인성을 확보한다.
7. 국제(국가) 표준 픽토그램 적용과 다국어표기 체계 정립으로 국제성을 높인다.
8.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체성 제고를 위하여 <제주색>을 사용한다.
9. 표지판 등의 지주는 부속물이 지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하여 설치한다.
10. 표지판의 후면을 미려하게 마감처리한다.

4.3.1. 교통관련 시각매체

공공 및 사설 안내표지

- 관광지 및 문화재 지역 같은 주요 위치 등 종합적인 정보요소 포함
- 출발지나 목적지 인근에 설치하여 장소에 대한 총체적인 인지와 추측을 유도함으로써 보행 경험을 총체적으로 예상하게 함
- 문화재 지역 등 시설 초입부나 보행자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 접근 용이성 유도
- 특정 장소의 인지와 도달을 알리기 위한 장소명과 장소 설명 정보요소 삽입
- 특정 시설에 대한 이용 방법, 절차 안내 등의 정보요소 삽입
- 목적으로 진입하는 지점, 진행 위치 결정 지점에 위치하여 보행자가 쉽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
- 가독성, 주목성을 우선으로 고려
- 다른 지주시설물과 통합 설치
- 표기할 정보와 시인성을 고려하여 크기를 최소화
- 각종 기관안내표지의 통합적 설치를 권장
- 공공기관 등 중요 시설의 안내는 표준형 사설안내표지판으로 대체할 것을 권장
- 픽토그램은 국제(국가)표준을 적용
- 문자, 화살표 및 거리 등 주요 표기요소는 간단명료하게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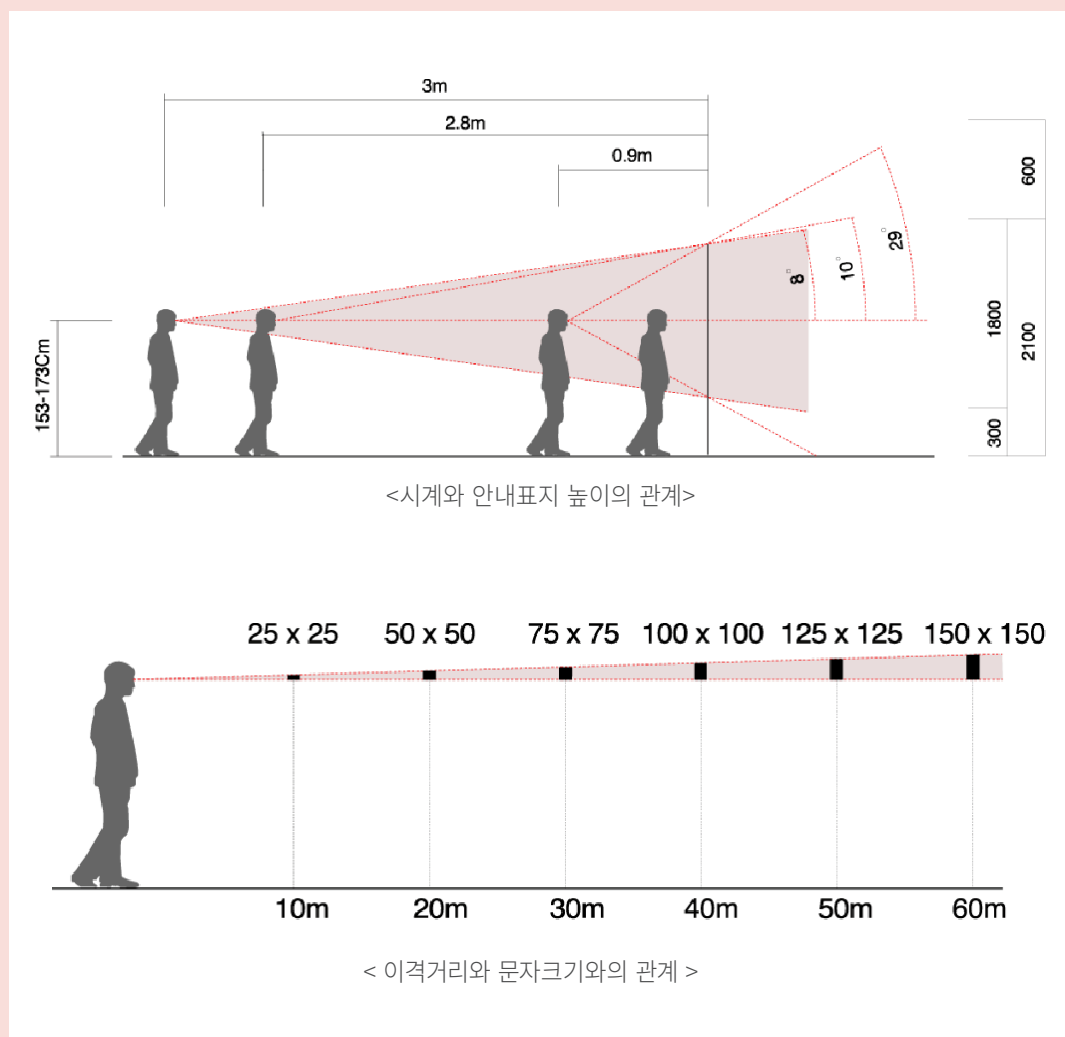
사설안내표지판 현황(좌)과 서울 표준형사설안내표지판(우)

정보계 시설물 고려사항

시설물의 구성요소는 픽토그램, 방향표시, 서체를 말하며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시각적으로 기호화한 것으로 각 해당시설에 대한 정보와 위치를 전달하는 일종의 매개 수단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특성상 국내의 방문객 뿐 아니라 국외의 방문객들 또한 이용에 용이함을 위하여 방문객의 정보습득에 있어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 구성요소 체계를 수립

서체의 판독성 제고측면에 대한 고려사항

- 시력 : 보행자/0.4(안경착용시의 시력), 운전자/0.7(운전면허 취득자격 기준시력)
- 시계 : 정면에서 좌우로 60도, 상향 30도, 하향 45도 정도를 시계로 설정
- 문자의 독해능력 : 국문은 250단어, 영문은 500단어를 기준으로 설정
- 안내판의 높이 : 눈높이를 기준으로 안내판의 높이를 정함. 한국인 20~30세 성인남녀의 높이 145~160m이며 신발의 높이(3~6m)를 더하여 높이는 150~210m를 기준으로 적정거리에 따라 표지판의 높이를 결정
- 문자규격 : 외부여건에 따라서 기준시야의 확산방식 및 환경에 따른 변화요인을 감안하여 거리의 1/400규모로 문자의 규격을 적용



주차장안내표지 및 주차요금표지

- 주차장위치표지는 다른 지주시설물과 통합 설치
- 보행자 통행이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 및 높이에 설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표지는 주차 후에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출입통로에 두 번 표시하고, 휠체어 활동공간도 표시
- 픽토그램은 국제(국가)표준을 적용
- 주차장이용안내에는 주차요금 등 주차장 이용에 꼭 필요한 내용만을 표기



주차장안내표지 현황(좌)와 서울 표준형 거주자우선주차안내판(우)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 주차안내판

버스 및 택시 정류장표지

- 버스 관련 정보 디자인은 버스 내에 부착하는 노선 정보, 버스정류장 및 버스 표지판의 버스노선 정보요소를 포함
- 외국인을 위한 정보가독을 배려하여 정류장명은 한글·영문 병행 표기 준수 버스 내·외부 및 정류장 정보 표기 일관성 유지
- 버스 노선 정보 위계 마련, 정보 표기 통일
- 일관된 형태, 크기, 색채, 글꼴을 사용한 버스노선정보 디자인
- 다른 대중교통과 연결 효율성을 고려한 정보표기
- 주요 버스정류장 및 가까운 택시 승강장과 자전거 거치대 위치정보 제공
-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
-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요소 표기를 우선으로 함
- 이용자의 시인성과 가독성 확보를 고려하여 정보요소의 글꼴 크기, 간격 결정
- 멀리서도 눈에 잘 띄는 명시성이 높은 색채 적용

버스노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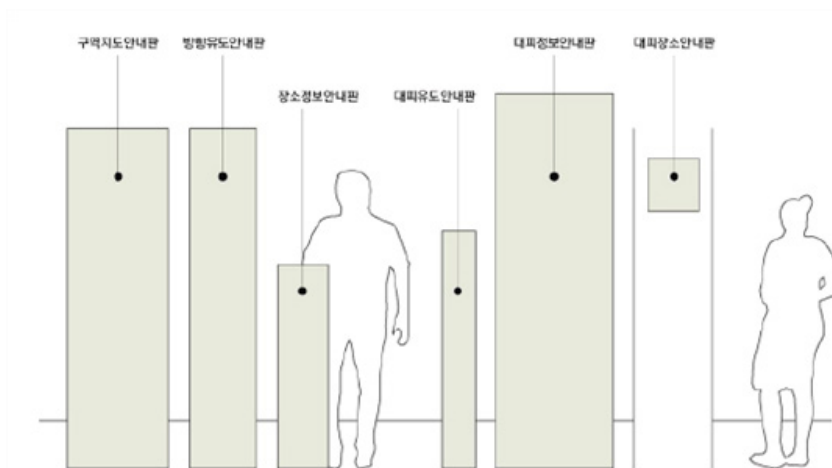
- 시외, 시내, 마을·공영버스의 구분을 위해 버스 외관 색채와 같은 강조색 사용
- 유형별 색채 시스템(사진참조)
- 강조색을 제외한 색채는 버스정류장 및 표지판 등에 어울리는 색채 사용
- 버스정류장별로 운행되는 모든 버스의 노선 및 시간 정보 표시: 첫차 시간, 막차 시간, 버스종류, 출발점, 종착점, 현재위치, 운행경로
- 버스노선정보 상단에서 하단으로 내려올수록 세분화 되도록 정보 배치
- 이용자의 눈높이에서 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설치
- 표지판형 정류장에는 정보 갱신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용지예 컬러 출력 양식 권장
- 지붕형과 지붕형+의자형 정류장에는 내구성이 비교적 강한, 실크스크린 인쇄 권장



4.3.2. 보행관련 시각매체

보행자안내표지

- 보행에 필요한 길 찾기 정보와 장소 안내 정보의 명확한 표기
- 보행 경로의 구조를 파악하고 보행자의 현재 위치와 목적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 배열
- 정보의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따른 위계적인 글꼴, 색채 정보 표현
- 길 찾기 정보 역할을 하는 건물, 랜드마크 등과 연계된 정보 요소 파악에 의한 안내판 배치
- 주목성을 바탕으로 방향·장소·정보요소의 총체적 명료성을 높임
- 주목성과 인지성이 높은 색채 대비효과 권장
- 정보요소의 계열과 관계를 나타내는 위계적 정보색채 권장
- 정보의 종류 및 위계와 시점 거리를 고려한 글꼴 크기 선택
- 보행자 시각에서 본 정보의 배치 체계 구성 : 글꼴 가독성 측면에서 눈높이 기준으로 안내판 설치
- 장애인, 어린이 등 다양한 보행자의 사용성과 가독성을 배려한 정보 배치
- 장소명은 한글·영문·중국어 3개 언어 표기를 원칙으로 함
- 우천에 강한 재질 사용과 바람에 강한 낮고 단단한 안내판 구조 유도
- 보행 안전성을 배려하여 모서리를 둥글고 부드럽게 마감한 구조물 디자인 유도
- 안내판의 양적 최소화를 통해 거리의 시각적 개방감 확보
- 보행을 방해하지 않으며 주변 시설물과 조화를 이루는 세로형 설치 권장
- 보행자의 시선을 방해하지 않는 세로형 안내판 디자인 권장
- 주변 안내판에 중복된 정보요소로 인하여 정보 인지가 어려운지 여부 확인



제주지역 일반 안내판, 대피관련 안내판 디자인 범위

지역안내표지

- 장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주변에 랜드마크가 없는 지점, 시, 동의 주 진입부, 주요 보행가로의 시작부와 종점부 등에 설치
- 안내표지와 근접한 위치의 설치를 지양
- 관광지와 문화재 지역 같은 주요 위치 등 종합적인 정보요소 포함
- 출발지나 목적지 인근에 설치하여 장소에 대한 총체적인 인지와 추측을 유도함으로써 보행 경험을 총체적으로 예상하게 함
- 문화재 지역 등 시설 초입부나 보행자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 접근 용이성 유도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 유도사인

관광안내표지 / 관광안내도

정돈된 가로환경 조성과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형태와 크기를 단순화, 통합화, 규격화하여 설계할 것을 권장하며, 주변의 주요 도로정보, 거리표시, 거리 이동시간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시각적 요소는 제거하고 꼭 필요한 정보위주로 단순화하여 가독성과 가시성을 높일 것을 권장한다. 이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하고,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도로진행방향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세부지침

● 준수 ○ 유도 △ 권장 × 금지

표기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 표시와 같이 다량의 정보를 표기할 경우 전체를 표기한 지도와 부분 확대 지도를 나누어 표기할 것을 권장 △ 상세지도는 종축을 알파벳, 횡축을 아라비아 숫자 등으로 구역을 구분하고 색인에 지도상 종축과 횡축 구분번호를 조합한 색인번호를 표기하여 주요시설물 등을 지도상에서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 △ 색인은 가나다순에 의해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하여 표기하며, 주요시설물 등은 상세지도상에서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명칭과 더불어 구역번호를 동시에 표기 △ 지도에서 현위치를 반드시 표시하되 다른 정보와 차별화하여 즉각적인 인지가 가능하도록 계획 △ 대중교통 환승시설이 인접해 버스 등의 안내가 필요한 경우, 상세지도와는 별도의 면에 대중교통 안내 지도와 색인, 범례를 구성하도록 권장 △ 기타 주요정보는 도로명, 설치관리자의 연락처 등을 포함해야 하며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연락처 표기를 권장
형태 및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의 표기면적이 부족할 경우, 표지판의 크기를 확대하지 않고 여러 개의 표지로 정보를 분할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 △ 방문객이 많이 모이는 넓게 트인 장소나 역 앞 등의 복잡한 장소는 설치환경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대형과 중형, 소형 등으로 세분화하여 개발할 것을 권장
설치 및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표지는 주로 이용자의 주요 동선이 교차하는 지점(간선도로와 지선도로의 교차로) / 지역의 용도가 달라지는 지점(권역과 주요 시설 밀집 지역 입구) / 이용자의 방향감각 상실이 우려되는 곳(건물로 방위가 가려지는 곳, 대규모 오픈 공간) / 대중교통 환승거점(환승역, 정류장 등)에 설치할 것을 권장 △ 주목성과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가로수나 다른 표지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도로표지나 기타 안전 표지시설을 가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

색채 및
재료

- △ 보행자가 멀리서도 식별할 수 있도록 상단에 주목성이 높은 색채의 적용을 권장
- 도심지역은 스틸을 주재료로 사용하며 부식에 강한 도장으로 표면처리
- 중산간지역은 산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목재를 주재료로 사용
- 해안지역은 제주도의 해안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주석재를 주재료로 사용하고 스틸재료를 부재료로 사용하며, 부식에 강한 도장으로 표면처리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 관광안내판

문화재설명표지 / 공공안내표지

- 이용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글, 그림 등을 혼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여 해설 내용을 표기할 것을 권장
- 문화재를 직접적으로 가리지 않는 위치에 설치
- 안내판은 제주경관의 인상을 형성하는 시설물이므로 자연 풍토와 역사, 건물과 거리의 형태, 소재, 색채 등 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을 지향
- 제주 색채를 활용하여 제주 아이덴티티 반영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 시설안내판



세부지침

● 준수 ○ 유도 △ 권장 × 금지

재질	△ 자연친화적이고 내구성 있는 재료, 광택이 적은 재료 및 도장재 권장
색채	● 저채도·저명도 색채나 단색·무채색을 사용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함
형태	△ 장식요소를 배제한 직선형의 디자인 △ 운영이나 민원에 의한 설치 및 이동에 대비하여 각 부품을 개별로 제작하여 몇 개의 부품으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탈부착이 용이한 구조로 디자인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시공 시 기초콘크리트와 지지대는 지면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 처리하여 단정하게 마감 △ 설치되는 장소가 경사면이라도 안내시설물의 위쪽 면은 시각적으로 수평을 유지하도록 설치 △ 설치하려는 장소의 주변 환경 요소(가로수, 신호등, 기타 도로시설물)와 시각적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주요가로, 블록입구, 교차로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점에 1개소씩 설치 △ 시설안내판에 들어가는 안내지도는 목적지의 방향과 주변지역 파악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현재 위치에 서 반경 800m이내를 수록하되 100m씩 중복되게 배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고려하여 설치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지역은 스틸을 주재료로 사용하며 부식에 강한 도장으로 표면처리 △ 중산간지역은 산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목재를 주재료로 사용 △ 해안지역은 제주도의 해안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주석재를 주재료로 사용하고 스틸재료를 부재료로 사용하며, 부식에 강한 도장으로 표면처리

현수막게시대 / 게시판

현수막게시대 및 게시판은 지역내 행사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등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이용자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 설치하도록 한다.

세부지침

● 준수 ○ 유도 △ 권장 × 금지

재질	△ 자연친화적이고 내구성 있는 재료, 광택이 적은 재료 및 도장재 권장
색채	△ 저채도·저명도 색채나 단색·무채색을 사용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함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식요소를 배제한 직선형의 디자인 △ 운영이나 민원에 의한 설치 및 이동에 대비하여 각 부품을 개별로 제작하여 몇 개의 부품으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탈부착이 용이한 구조로 디자인 △ 유도사인의 정보내용은 기명, 방향표시를 공통으로 사용하여 전체공간을 알기 쉽게 전달하도록 설계 △ 도심지역은 복잡한 상황과 경관의 개방성, 통행의 불편 등을 형태로 디자인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시공 시 기초콘크리트와 지지대는 지면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 처리하여 단정하게 마감 △ 설치되는 장소가 경사면이라도 안내시설물의 위쪽 면은 시각적으로 수평을 유지하도록 설치 △ 설치하려는 장소의 주변 환경 요소(가로수, 신호등, 기타 도로시설물)와 시각적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행사 안내 및 홍보물 표기량에 따라 연립식 설치가 가능 △ 게시판의 경우 경첩을 이용한 개폐방식을 사용하여, 게시물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고 시건장치를 부착하여 게시물의 훼손과 무분별한 부착을 막고 계획적인 관리 및 유지가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 벽보게시판



4.3.3. 영상정보 시각매체

대기 오염 전광판

- 설치하지 않을 것을 권장. 단,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크기를 최소화
- 별도 지주로 설치하지 않고 버스전광판, 교통전광판 등에 포함
- 전달이 빠른 시각언어로 표현(예 : 일기예보의 빨래지수, 세차지수)
- 평균지수-기준지수 비교 등 환경 관련 정보는 보조요소로 표기
- 차량신호체계에서 사용되는 색채는 지양
- 야간 운전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휘도를 제한

교통 상황 전광판

- 현재 교통상황, 주의구간 알림, 소요시간, 교통상황 지연 이유, 우회도로 안내 등 교통 정보를 주 요소로 표기
- 시민에게 거부감을 주는 용어는 지양
- 상업광고의 비중의 최소화를 권장

버스정보 전광판

- 독립지주형 표지 설치는 금지
- 크기 및 형태를 최적화
- 지나치게 많은 정보의 표시는 지양
- 교통신호등과 동일한 색채의 사용을 금지
-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휘도를 제한
- 타 시설물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휘도를 제한

디지털 영상매체

- 녹지, 주거, 문화재 지역에는 설치를 금지
- 크기 및 휘도 등을 고려하며, 옥외광고물 혹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설치 여부를 결정
- 용도 지역별로 휘도를 규제
- 심야에는 조도를 낮출 수 있도록 설계
-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심리적 불안을 주는 지나치게 잦은 점멸은 지양
- 상업광고는 금지
- 향후 디지털영상매체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별도의 종합적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수립, 적용할 것을 권장

4.3.4. 환경연출 시각매체

벽화 • 슈퍼그래픽

- 슈퍼그래픽을 이용한 경관디자인을 지양하고 외부에 제주고유의 천연재료 병용을 권장
- 기능과 무관한 슈퍼그래픽 등 지나친 장식은 지양
- 신시가지 공동주택단지 외벽 그래픽의 색채와 형태는 단순하게 계획하며 슈퍼그래픽 지양
- 항구의 슈퍼그래픽 위주의 경관 관리는 지양
- 방파제 원칙적으로 슈퍼그래픽을 이용한 경관디자인을 지양



슈퍼 그래픽의 잘못된 예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 해안방파제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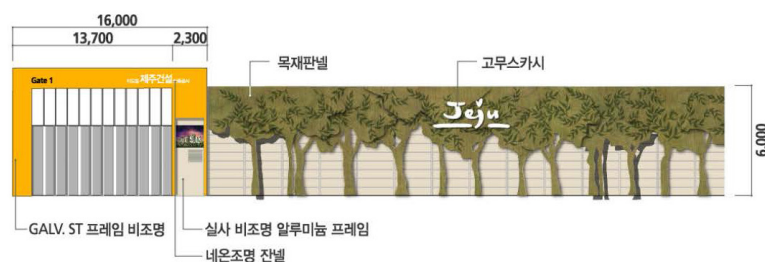
공사장가설울타리 • 가설가림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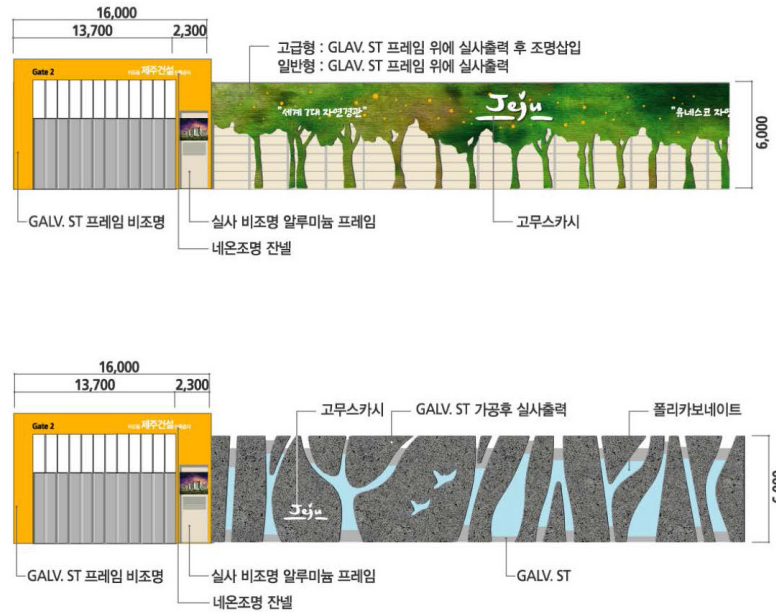
보행가로 및 주변지역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공사장 가림막·가림벽의 설치를 금지한다. 공사 현장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의 가림막 및 가림벽을 설치하되 외관디자인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결정 할 것을 권장한다.

세부지침

● 준수 ○ 유도 △ 권장 × 금지

재질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내구성 있는 재질 권장 △ 벽면 녹화 등 자연 재료를 이용한 마감 처리 등 자연친화적인 재료 사용 권장
색채	△ 도시 경관을 훼손하는 벽화 및 슈퍼그래픽의 남용을 금지 △ 불필요한 장식과 과장된 패턴 적용은 지양
형태	△ 공사장내 분진이나 먼지, 낙하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부터 보호를 우선시 하여 설치 △ 지면에서 4m이상 높이로 설치하여 공사 현장이 노출되지 않도록 함 △ 공사장가림막에 그래픽/건설사 표기 등은 별도 심의를 실시하여 승인 후 설치
설치	△ 경사면에 설치시 상단높이가 수평이 되도록 하거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치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 공사장가림막

환경조형물 /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시계탑)

상징조형물 도입 시 경관을 훼손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설치를 지양한다. 보행가로의 유효 보도폭 내에 상징조형물의 설치를 금지한다. 무분별한 상업광고물 부착과 고광택 재료의 사용은 지양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광택을 줄이는 표면 가공을 권장한다. 지주형 시계탑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랜드마크 건축물에 부착 가능하다.

세부지침

● 준수 ○ 유도 △ 권장 × 금지

재질 및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환경과 조화롭지 못한 자극적인 색채는 적용을 금지 × 과도한 반사가 발생하는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의 적용은 지양 △ 지속가능한 환경 친화성이 좋은 자연소재의 적용을 권장 × 스틸에 페인트 마감 처리는 지양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산물 및 캐릭터 형태를 직접 표현한 상징 조형물은 지양 △ 조형물의 예술적 가치와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디자인 △ 행정구역 경계의 게이트 디자인은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형태로 디자인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징조형물은 주변시설물과의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 개방된 위치에 설치 △ 상징조형물은 야간 조명을 설치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이트에 광고물 부착 금지 × 상징조형물에 지자체 심볼 및 로고의 적용 지양

4.3.5. 상징이미지매체

안전장비

- 안전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디자인 요소를 활용해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예방 효과를 강화
- 사용자 중심으로 사용성과 편의성을 고려
- 안전장비는 주목성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계획
- 단순한 형태와 절제된 색채를 활용하도록 권장
- 사용자의 시각적 인지를 고려한 색채를 계획하되, 피로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권장
- 전체적인 색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도록 권장
- 사용자로 하여금 의식하게 하거나 별도의 교육없이 자연스럽게 행동을 유도하는 디자인 권장(Nudge Design)



넛지디자인 사례 : 1. 암스테르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유도 디자인 2. 계단을 이용하게 유도 디자인 3. 전력소비로 환경파괴를 보여줌으로써 전기를 아끼는 행동을 유도 디자인

피난장비

- 문자와 색채를 눈에 잘 띄는 것으로 통일해 재난상황시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디자인 권장
- 크기는 최대한 줄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납, 이동, 사용이 가능하도록 디자인 권장
- 피난 메뉴를 포함해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법을 알 수 있도록 구성



The Second Aid ©NOSIGNER (출처 : 디자인 DB)

교통차단장비

- 문자와 색채를 눈에 잘 띄는 것으로 통일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범용 디자인 권장
- 주변 환경으로 인한 시각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자인 권장

공중위생장비

- 간결하고 단순한 형태의 디자인 권장
-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와 배치계획에 따라 설치

도시브랜드 / 상징이미지

제주특별자치도 CI 사용에 대한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 CI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식 지정한 고유의 상징심벌마크. 제주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휘장으로서 가치와 비전을 함축
-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의 권한 및 권리를 위한 마크로서 공식적인 문서와 도민을 상대로 하는 공고문의 성격을 띄는 품목에 사용을 권장
- 행정의 전반적인 허가 하에 추진되는 사업의 목적에 적용 가능하며, 소수 도민의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유의 관광객 유치의 의도에 도내 기업들이 사용하는 것은 불가. 다만, 사업 중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치와 의정활동 및 제주소청에서 주관, 협찬의 사업에는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
- CI는 국내외 타 도시와의 협정, 국가의 귀속단체와의 협력, 공식 행사 전반에 사용되며, 도내 부속기관의 공식활동과 도정내의 의사결정에 수반되는 문서에 활용 가능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사업(상품포장, 렌터카, 공연 등), 품위에 영향을 주는 곳, 표현에 오남용사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곳에는 사용 금지

도시브랜드 Only Jeju Island 사용에 대한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대외홍보 및 수익을 기반으로 한 모든 활동, 도민의 제주를 배경으로 한 사업영역에 활용 가능하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식인증 휘장의 성격은 띄지 않음
- CI와 중복 사용이 가능하고, 단독 사용 또한 가능
- 도정에 사용할 경우는 필히 CI와 같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리부서가 인정하는 활동영역에 사용됨
- 도내 관광지, 홍보 프로모션, 도내 기간사업 도우미 역할에 적극 활용
- CI의 사용이 제한되는 곳에도 도시브랜드는 제주특별자치도 마케팅의 중요한 요소로서 제주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

※ 기타 CI, 픽토그램, 서체, 캐릭터, 엠블럼 사용에 관한 세부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 표준편람을 따른다.



상징마크

문명 :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속기관
 사용 :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속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속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속기관



도시브랜드

문명 :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속기관
 사용 :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속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속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속기관

5.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및 운영방안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통해 우수한 공공시설물의 설치를 유도하고,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둠.

5.1.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장 제7조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5.2. 적용범위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6.8.4. 시행)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 공간·시설·시각매체 등의 공공디자인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은 공공디자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설계 또는 실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

5.3. 위원회 운영의 기본원칙

-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실현 및 합리적인 계획수립 유도 :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실현하되, 발주자, 설계자, 시행자 등 안전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큰 틀에서 발전적이고 대안적인 안전검토
- 신속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로 행정 신뢰성 제고 : 심의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의견을 지양하고, 위원회 심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하며, 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는 것을 원칙

5.4.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운영체계

- 심의(자문)유형에 따라 본위원회와 소위원회로 구분·운영
- 심의위원은 회의안건에 따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인력풀에서 주제에 알맞은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을 회의시마다 지정하여 위원회 전문성 강화
-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탄력적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운영

구분	본위원회	소위원회
역할	· 정책적·종합적 성격의 안전심의 · 소위원회에서 전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한 사항 심의	· 특정분야 사업에 대한 안전심의
구성위원	전체위원	10명 내외
회의개최	안전 발생 시	좌동
심의사항	·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의 수립·시행(법 제6조 2항)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조례 제8조) · 그 밖에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례 제8조)	·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조례 제8조) · 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조례 제8조) · 그 밖에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례 제8조)

자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개정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례 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 및 도내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공공디자인 사업 관련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조례 제18조) ·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의 요청사항(법 제15조) · 그 밖에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례 제8조)
------	--	--

※ 지방계약법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자문은 관련분야 위원 5명내외의 서면심사로 할 수 있다.

5.5. 위원회 개최 및 진행

회의는 안전에 따라 매월 1회 개최를 원칙(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추가 개최 가능)

- 회의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요청 시기는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며, 기본설계를 하지 않을 경우 실시설계 완료 이전

안전접수 전 주무부서(디자인건축지적과)의 안전 선별

- 주무부서는 위원회의 전문위원을 두어 상정안전에 대한 관리 및 사전검토
- 기초분석자료, 시뮬레이션 등 심의도서 구성 및 데이터 보완
- 심의도서 미비 등 완성도가 떨어지는 안건은 반려조치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 후 비공식 개별접촉 금지

-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재심의 포함) 개최시까지 보완·확정 과정에서 안전 당사자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 개별접촉 금지. 다만, 위원이 안전 설명자료 등에 대한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배석 및 질의 가능

5.6. 심의 의결방법

원안 의결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수정을 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부 의결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에 부가되거나 제외하는 것 등 조건을 부가하여 수정하도록 하는 경우

재심의 의결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과정에서 의견이 제시되어 다시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후 회의에서 다시 심의

5.7. 심의 및 자문대상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조례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 심의·자문 대상시설 별도 첨부(별표1)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조례 제19조)
- 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조례 제20조)
- EX)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선사업, 색채디자인 개선사업,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 등
-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 추후 표준디자인 수립 및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시행 시 이와 관련된 사항

공공디자인 자문대상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개정제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 등에서 공공디자인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자문 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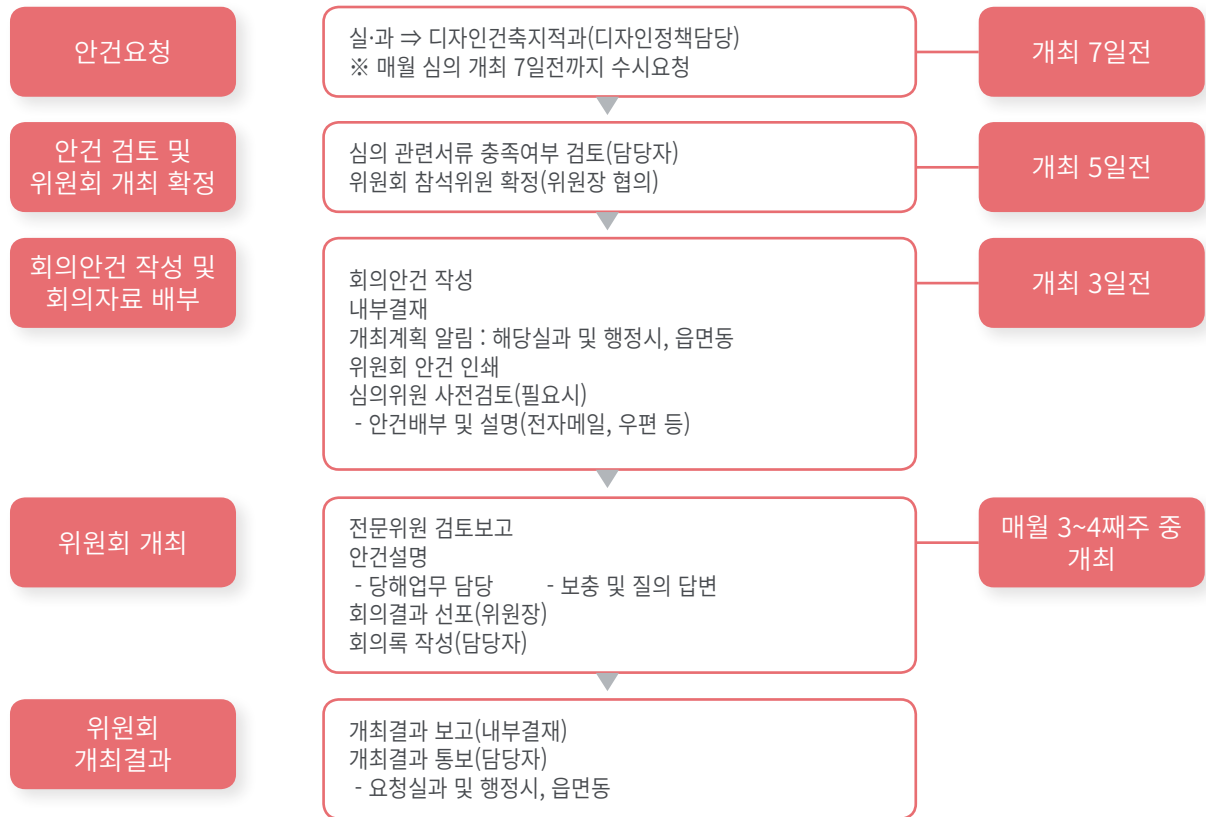
- 관계 법령(조례)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에서 디자인 분야를 포함하여 심의 자문을 받은 경우
-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상황 등으로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공사 및 설계공모 방식 등으로 시행하는 사업
(단, 디자인 보완·수정 등이 필요한 경우 심의·자문 가능)
- 도지사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 도지사가 인증하는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 기존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되어 보수 교체를 하는 경우

심의·자문 처리결과

- 심의 신청자(신청부서 등)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준수하며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는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 자문 신청자(신청부서 등)는 위원회 자문결과를 참고하여 우수한 공공디자인이 계획될 수 있도록 원안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

구분	심의	자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의 수립·시행(법 제6조 2항)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조례 제8조) ·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조례 제8조) · 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조례 제8조) · 그 밖에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례 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개정제에 관한 사항 · 지방공기업 및 도내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공공디자인 사업 관련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조례 제18조) ·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의 요청사항(법 제15조) · 그 밖에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례 제8조)
신청기관	공공기관(국가, 도, 행정시, 공사,공단)	좌동
시기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	좌동
처리주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좌동
처리결과	심의결과 준수	자문결과 참고
결정내용 및 사후조치	심의결과 사업부서 통보 반영결과 회신	자문결과 사업부서 통보

안전상정 및 처리절차



4.8. 심의 자문 신청자료 및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붙임 1)

신청자료 작성서식

- 규 격 : A4 컬러 좌철(30면 이내)
- 도 서 : 원본은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이를 PDF로 변환하여 각각의 파일 제출
- 서 식 : 표지(붙임 2)를 제외하고 작성방법(붙임 3)을 참고하여 작성자가 자유롭게 작성
- 제 출 : 심의도서(심의 신청시 1부, 파일 제출)

심의도서 내용

- 표지
- 공공디자인 심의 체크리스트(붙임 4)
- 사전검토(심사위원)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첨부(필요시)
-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추진경위, 세부내용 등)
- 디자인 시안(기본도면, 시뮬레이션 등)

[별표 1]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대상

[붙임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뒷면) 심의도서 작성방법

[붙임 2] 심의도서 표지 및 조치계획 서식

[붙임 3] 체크리스트(공공시설물, 공공공간, 공공시각매체)

[별표 1] 공공디자인 심의·자문대상

분류		세부항목	비고
공공공간		공원 -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썸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휴양공간 -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전부지의 공공이용공간, 수변공간, 가로공간 등 광장(지하광장 포함),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자전거도로,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교통섬, 등산로, 산책로,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공공시설물	도로 시설물	가로등, 펜스, 볼라드, 가드레일, 신호등주, 버스 및 택시첼터, 외부엘리베이터, 자전거보관대, 방음벽, 교량,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편의 시설물	벤치, 파고라, 가로화분대(플랜터), 수목보호덮개, 관광안내소,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생활정보지 배부함, 음수대, 분수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휴지통, 간이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공급 시설물	맨홀, 배전함, 신호등 및 가로등 제어함, 제설함, 소화전, 전화부스, 전신주, 석축, 옹벽, 방호울타리, 교량, 회전형 교차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공공시각매체	교통관련 시각매체	공공 및 사설안내표지, 주차장안내표지 및 주차요금표지, 버스 및 택시 정류장표지, 버스 노선안내도,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보행관련 시각매체	보행자안내표지, 지역안내사인, 관광안내표지, 관광안내도, 문화재설명표지, 공공안내표지, 현수막게시대, 게시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영상정보 시각매체	대기 오염 전광판, 교통 상황 전광판, 버스정보 전광판, 디지털 영상매체,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환경연출 시각매체	벽화·슈퍼그래픽, 공사장가설울타리·가설가림막,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시계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상징이미지매체	안전장비, 피난장비, 교통차단장비,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도시브랜드, 상징이미지(CI, 픽토그램, 지도, 서체, 캐릭터, 엠블럼)	

[붙임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신청서

(앞쪽)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신청서				
사업명	(○○○ 설치사업 공공디자인 심의신청)			
사업부서	부서명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사업내용	사업위치			
	사업기간			
	규 모	(전체면적, 총연장 등)	규격·수량	
	용 도			
	구조·형태			
	신청내용	○○○에 대한 디자인 - 심의를 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		
설계자	상 호		주 소	
	성 명		연 락 처	(Fax)
신청부서 검토의견 (디자인 방향 등)				
<p>「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인 또는 서명)</p> <p>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p>				
첨부서류	공공디자인 계획안 심의도서 및 제안 설명용 CD			

(뒷쪽) 심의도서 작성방법

구분	작성방법
표지	- 표지서식 참조(사업명, 재심여부, 제출일자 등 기재)
체크리스트(해당분야)	- 분야별 체크리스트 참조
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지 - 공공디자인 심의 체크리스트 - 사전검토(심사위원)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첨부(필요시) -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추진경위, 세부내용 등) - 디자인 시안(기본도면, 시뮬레이션 등)
I.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사업의 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위치도 - 주요 사업추진사항과 추진계획, 타 위원회 심의여부 및 결과,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디자인에 관한 저작권 및 디자인권 등 특허권 위반여부 등 개략적인 사업추진경위 기술 등
II. 현황조사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관련법규)의 검토 - 주변현황 및 대상지 특성에 대한 조사 - 국·내외 선진사례 비교분석 - 배치도, 계획의 범위 및 세부시설물 분석 등
III. 기본방향 및 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개념 및 방향 - 통합적이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디자인 연속성 방안 - 모든 사용자가 차별 없이 이용 가능한 디자인 고려 - 주요 사업과 연계한 계획요소 및 디자인 고려사항 제시 등
IV. 디자인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공간 및 대상지의 통합적 계획 - 분야별 체크리스트를 반영한 계획 - 환경친화적 등 지속가능한 계획 - 배치, 규모, 형태, 입면, 높이, 조명 등 계획(기본도면) - 세부 시설물의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 규격 등을 명기 - 디자인(안) 시뮬레이션 등 - 조명시설이 포함될 경우 등기구 관련과 야간 이미지 도면(종류, 수량, 용도 등 명기) 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의 필요한 자료 - 제출형식 : A3규격 횡철 - 도면순서대로 일련번호 기재 - 시설물 설치각종 조성사업의 일환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선행되어야 함 - 정확한 현장 조사 및 사진 첨부 (주변 환경 미화 지양)

[붙임 2] 심의도서 표지 및 조치계획 서식

심의도서 표지 서식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tr> <td colspan="2">심의(자문) 안전</td> </tr> <tr> <td style="width: 50%;">안 건 번 호</td> <td style="width: 50%;">제 호</td> </tr> <tr> <td>심 의 일 자</td> <td></td> </tr> </table>		심의(자문) 안전		안 건 번 호	제 호	심 의 일 자		HY견고딕 10
심의(자문) 안전								
안 건 번 호	제 호							
심 의 일 자								
(좌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display: inline-block;"> 안전명 (HY견고딕 36) </div>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tr> <td style="width: 50%;">제 출 자</td> <td style="width: 50%;"></td> </tr> <tr> <td>제출년월일</td> <td>2014. 0. 0.</td> </tr> </table>		제 출 자		제출년월일	2014. 0. 0.	HY견고딕 10		
제 출 자								
제출년월일	2014. 0. 0.							

제00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안 건 명			
사업개요	○ 위 치 : ○ 총사업비 : ○ 사업내용 :		
심의결과			
의결내용 및 조치내용	의결내용	조치내용	비고
	○	○	반영, 불가, 보완 중 택 1 (참고 P. 명시)
	○	○	

[붙임 4] 체크리스트 - 공공공간

구분	검토항목	반영	미반영	해당 없음
공간	기본적인 휴게시설 배치와 통행이 용이하게 공간이 확보되었는가?			
	인접 보행가로와 단 차이, 펜스 등에 의해 안전성과 접근성이 확보되었는가?			
	적절한 일조량과 그늘이 확보되었는가?			
	보호 및 감시가 용이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었는가?			
	주변 자동차 도로 및 기타 위험시설과의 영역구분이 확실한가?			
	누구나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성과 접근성이 높게 계획되었는가?			
	자연환경과 연계하여 주민건강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고려되었는가?			
	건축물로의 접근동선과 광장, 그리고 통과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광장의 위치 및 규모, 형태, 동선 등이 계획되었는가?			
	보행가로 및 인접 공공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합리적인 동선계획을 수립되었는가?			
	도심 속 오픈스페이스로 안전성, 접근성, 개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와 규모 형태 등이 계획되었는가?			
시설	수변에 인접한 공공공간의 경우 조망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적절한 공공시설물과 공공시각매체를 배치하여, 보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가?			
	공공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휴식, 여가, 놀이 등 다양한 시설물을 적절한 위치에 충분히 설치되었는가?			
	각종 편의시설 및 위락시설을 함께 배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이도록 계획되었는가?			
	간결한 바닥패턴 및 색채로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안전한 바닥재질, 간결한 바닥패턴 및 색채로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조경과 식재, 조형물 등을 사용하여 도시의 미관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			
	시설배치와 바닥 재질 등이 이용자의 안전성을 우선으로 설치되었는가?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과 소통할 수 있는 시설/공간을 마련하고 방문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설치되었는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장소성을 확보하였는가?			
기능	과장된 색채와 시설 디자인은 지양하고, 제주를 대표하는 색채와 시설디자인을 활용하고 있는가?			
	도시의 주요공공공간과 녹지, 수변공간 등을 이용자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었는가?			
	도심보행네트워크 개념으로 보행로가 계획되었는가?			
	보행 장애물을 최소화하고 바닥패턴의 평탄성을 주어 걷기 편한 보행로가 조성되었는가?			
	도심지의 녹지휴게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조경과 식재를 적 극적으로 활용하였는가?			
	커뮤니티 활동의 구심점이 되도록 조성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였는가?			
	대중교통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며, 원활한 교통처리와 사용자 안전을 위해 주요 동선에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였는가?			
	단순히 열린 공간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벤트가 상시 기획될 수 도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었는가?			
	간편한 주민휴식기능을 위주로 하며 과도한 소음유발 시설은 배제되었는가?			
	수변을 조망하거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친수공간의 경우 시민들의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어린이의 놀이 및 어린이 동반가족 휴식공간의 경우 특히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이용자의 안전하고 접근하기 쉬운 높이와 위치에 휴식공간을 검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가?			
	공공용지로 환원된 건축물 부설광장의 경우 사설화를 막기 위한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공공성을 확보하였는가?			

[붙임 4] 체크리스트 - 공공시설물

구분	검토항목	반영	미반영	해당 없음
형태	불필요한 장식이나 조악한 조형적 요소를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되었는가?			
	각 공공시설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었는가?			
	다른 공공시설물과의 통일성이 느껴지는 형태로 디자인 되었는가?			
	제주다움이 느껴지는 지역 정체성이 반영된 디자인 인가?			
	사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위해 장애인, 어린이, 노인, 여성 등 젠더 특성을 반영한 형태로 디자인이 되었는가?			
기능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능요소를 부여하였는가?			
	하나의 시설물에 사용자의 안전성 확보와 연계 가능한 기능을 통합하여 비용 대비 효율을 증대시켰는가?			
	공공정보매체가 포함된 공공시설물의 경우 인터넷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기능이 부가된 온라인 관리체계가 완비되었는가?			
재질	설치지역의 외부환경 및 기후를 반영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외부충격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재료 선택하였는가?			
	비용이 비교적 경제적인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유지 관리가 용이하며, 인체에 안전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색채	제주다움을 반영한 상징적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건축물과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조화로운 색상을 사용하였는가?			
	시각적 자극이 심한 원색 및 고광택, 고채도 계열 색상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시설물에 두 가지 이상의 색상을 사용할 경우, 계통색을 사용하였는가?			
규모	시설물의 이용량 및 설치목적에 따라 시설물 규모를 설정하였는가?			
	젠더 관점의 디자인에 근거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을 보장한 시설물의 규모로 고려하였는가?			
설치	보행자의 이동안전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결정하였는가?			
	도로시설물과 편의시설물의 경우, 사용자의 이용량과 사용빈도를 고려하되 적절한 위치와 설치밀도를 결정하였는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 시설물이 같은 장소에 위치하거나 근접하지 않도록 설치 밀도를 고려하여 설치하였는가?			
	지주형태의 시설물의 경우, 지주 기초가 지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되었는가?			
	셸터 형태의 시설물의 경우, 지역기후(해안지역, 도서지역 등)와 사용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였는가?			

[붙임 4] 체크리스트 - 공공시각매체 1

구분	검토항목	반영	미반영	해당 없음
설치	이용자의 눈에 잘 인식되는 위치에 설치되는가?			
	시설물의 중복을 유발하지 않는가?			
	주변의 교통신호등 등의 가로시설물과의 시각적 간섭이 없는가?			
	휠체어 이용자, 어린이, 노인 등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가?			
	안내 정보를 안전하게 볼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설계	풍압, 외부충격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였는가?			
	야간 식별을 위한 조명장치(내부조명 또는 간접조명)가 있는가?			
	정보 표기 면적 위에 불필요한 장식이 많은가?			
	유지관리상 재료마감은 잘 고려되었는가?			
서체	사용한 서체가 노인,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의 가독성과 판독성을 가지고 있는가?			
	자간과 행간이 읽기 편한가?			
	문자 읽기에 충분한 여백을 확보하고 있는가?			
	문자에 과도한 장식이나 변형을 하지 않는가?			
	너무 많은 수의 서체를 사용 하지 않았는가?			
한글과 다국어 병기	주요 시설과 장소에 한글과 함께 영문 표기를 했는가?			
	국가지정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고 있는가?			
	한글이 영문보다 우선되게 인식되도록 하고 있는가?			
	한글과 다국어 표기에 있어 시각적 균형이 고려되었는가?			
	한글과 함께 사용된 외국어 서체의 시각적 통일성이 있는가? (다국어병기의 경우)			

[붙임 4] 체크리스트 - 공공시각매체 2

구분	검토항목	반영	미반영	해당 없음
그래픽	기호가 지시하는 바가 혼돈을 주지 않는가?			
	기호와 문자의 시각적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캐릭터 등 의인화된 그래픽 요소가 남용되지 않고 그래픽 요소에 성차별적인 요소는 없는가?			
재료 색채	전체적인 색채가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반사가 심한 재료 또는 마감이 되었는가? (기능과 관계없는 스테인레스 소재의 배제 확인여부)			
	친환경재료가 사용되었는가?(권장사항)			
정보 표기	현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가?			
	방위가 표시되어 있는가?			
	척도와 기본 구간의 길이가 표시되어 있는가?			
	주요공공시설(공중화장실, 주차장, 병원 등)의 픽토그램을 표시하였는가?			
	가로와 지도가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는가?			
	현 위치를 중심으로 주요 시설 장소까지 거리가 표시되었는가?			
	이용자 시점과 안내지도와 방향이 일치되는가?(권장사항)			
	건물 등에 잘못 사용된 입체 표현은 없는가?			
	시설과 장소에 한글 및 외국어 표기가 바르게 되어있는가?			
	제주도 전체와 관계를 인지 할 수 있는가?			
	픽토그램 등의 그래픽 요소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			
	전체적으로 정보의 위계와 체계가 일관되게 적용되어 있는가?			
	주요 정보가 보행자와 휠체어 이용자 눈높이(600~1,800)에 위치하는가?			
	주요 표기의 철자, 띄어쓰기, 외국어 표기에 통일성이 있는가?			
	개별 지명, 시설명의 한글 표기가 12자를 넘지 않는가?			
	화살표의 방향표시가 명확한가?			
	이용자 시점과 방위 및 방향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북쪽이 위로 되어 있는가?			
	픽토그램이나 그래픽을 설명하는 보조설명이 있는가?(권장사항)			
	지형, 가로, 건축 등이 알기 쉽게 표시되어 있는가?			

V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선도사업

1. 행정 디자인 서비스
2. 어르신 생활 디자인
3. 스트레스 프리 디자인
4.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

1. 행정 디자인 서비스

각 부서에서 다양하게 추진 중인 사업들의 디자인관련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 수준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과 더불어 전문분야인 디자인관련 업무 추진에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함

추진배경

- 도와 행정시, 읍면동의 디자인 통합관리 체계 구축으로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공공디자인 지원기구를 통한 실질적 ‘행정 디자인 서비스’를 실현
- 정보의 다양화 및 다양한 경험으로 인한 공공정책,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서비스가 해결해야 할 디자인 관련 제도적 업무 프로세스의 체계화가 필요

추진방향

- 디자인 관련 행정의 업무능력 고도화와 신뢰성 강화를 위한 체계 구축
 - 공무원과 디자인기업의 직무역량강화를 통한 업무능력 고도화와 신뢰성 강화
- 디자인 컨설팅
 - 공공정책,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서비스가 해결해야 할 디자인 관련 제도적 이슈들에 대한 디자인 컨설팅
- 교육 및 워크숍 실행
 - 분야, 레벨, 목적에 맞는 대상별 세분화된 디자이너 역량강화 교육 편성
 -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 교육 및 협업체계 수립
 - 디자이너 역량향상을 위한 정기적 심화교육
- 디자인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디자인 및 디자인관련 제도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네트워킹 플랫폼 구축
 - 정규포럼 및 스페셜포럼을 위한 행정 디자인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 운영매뉴얼 및 우수사례집 개발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

총괄계획가 지원사업 : 도 및 행정시 추진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총괄계획가를 지원하여 컨설팅

컨설팅 집중지원사업 : 총괄계획가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의 컨설팅 지원

컨설팅 유형 및 내용

컨설팅 유형	내 용
단순컨설팅	소규모 사업이나 단일 디자인 분야의 사업 사업별 운영위원을 1인 배정하여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식
복합컨설팅	컨설팅 대상사업의 규모가 크고 적용 분야가 다양한 사업 분야별 운영위원 2-3명을 구성하여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식

컨설팅 방식 및 내용

컨설팅 방식	내 용
디자인 자문	사업의 초기 구상단계에서 사업방향 설정에 대한 자문 대상사업의 계획이 완료되어 디자인 수정에 대한 자문(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후 진행)
디자인 시안	디자인 적용을 위해 디자인 시안을 필요로 하는 사업 지자체 및 기관에서 발주한 디자인 계획안이 적용하기에 적절치 않아 새로운 디자인 시안을 필요로 하는 사업

2. 어르신 생활 디자인

어르신의 정신적·신체적 특성과 행태를 반영하는 기성 제품 및 공간 디자인의 부재로 인한 취약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일상생활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디자인 발굴, 시범구현 및 사례확산으로 디자인을 통한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함. 이와 함께 치매가정,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지역에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 내에서의 인지능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인지건강디자인을 체감하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추진배경

-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디자인 확산을 위한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주민참여를 유도
- 급속한 고령화로 100세 시대를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 필요
- 길어진 노년기로 사회 여가 활동 증가에 따른 문제분석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문제해결 필요
- 노인의 행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생활환경 조성 및 인식제고 필요

추진방향

- 어르신의 행태분석 및 워크숍을 통한 실제 주거 내·외부 환경의 일상생활에 적용 가능한 디자인 시범구현 및 제품 제작을 위한 환경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
- 어르신, 지역주민 및 공동체,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디자인참여단 구성 및 운영
- 어르신 대상 사업(인지건강디자인) 연계를 통한 집중 개선으로 원도심 고령자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
- 주거, 시설, 외부환경 인지건강 디자인 적용

사례

1. '16년 인지건강디자인 시범사업 : 1개소

- 대상지
 - 노원구 공릉동(영구 임대아파트단지)
- 디자인컨셉
 - 기억, 이동, 정서 향상을 위한 오감자극으로 인지 강화하는 「감각키움 마을만들기」
- 개발내용
 - 보행안전을 위한 감각키움길(850m), 안전 구역·교차로(15개소), 인지 향상을 위한 인지출입구(16개소)·안내판(8개소), 정서적 건강을 위한 기억시계·감각숲길·기억놀이터(각1개소), 감각화단(4개소) 등



감각키움길



안전구역



감각숲길



기억시계

2. '15년 인지건강디자인 시범사업 : 1개소

- 대상지
 - 영등포구 신길동(재개발 임대아파트단지)
- 디자인컨셉
 - 생활권 내 일상생활 수행, 소통, 활동에 도움되는 7가지 디자인으로 「기억키움마을 만들기」
- 개발내용
 - 보행안전, 산책을 위한 기억둘레길(2.0m), 신체 활동 향상을 위한 기억마당 (운동공간, 1개소), 소통기회, 지남력 향상을 위한 기억쉼터(2개소), 기억갤러리(1개소), 인지능력 및 시인성 확보를 위한 기억이정표(20개소), 기억우편함(1개소) 등



기억둘레길



기억 우편함, 마루



기억마당



기억쉼터

3. '14년 인지건강디자인 시범사업 : 1개소

- 대상지
 - 양천구 신월동(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
- 디자인컨셉
 - 맞춤형 실내환경, 지역특성, 수요자중심 서비스로 「사람, 기억을 잇는100M프로젝트」
- 개발내용
 - 어르신·치매가정을 위한 인지건강 주거환경 가이드북 개발, 안전한 산책, 보행을 위한 이음길(1.2km), 인지력 향상, 휴식을 위한 기억쉼터(6개소), 교차로 컬러존(4개소), 인지건강 지원 인적서비스를 위한 길반장(5개소) 등



주거환경 가이드북



100M길



3. 어르신 생활디자인 국내·외 사례



약 달력(한국) : 규칙적인 약복용을 돕는 달력



조명선반(영국) : 야간에도 물품을 찾을 수 있는 선반

3. 스트레스 프리 디자인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현대사회에서 디자인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 및 완화시킴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정신적 건강한 삶을 실현하고자 함

추진배경

- 만19세 이상 성인 중 90% 이상이 평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 전국 8개 권역 가운데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 전국 평균 스트레스 수치는 40점 기준에 18.8점. 제주 지역 거주자는 22.9점.(신동아,2012년월호)
-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분노조절장애 등 다양한 질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자살, 문치마 폭행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발생으로 개인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줄일 수 있는 정책 필요
- 스트레스 관리 및 감소를 위한 일상생활 속 공공정책 필요
- 단순한 환경정비 차원을 벗어나 디자인을 통해 일상 속 스트레스 요인을 개선하고 감소시킴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정신적 건강한 삶 실현을 위한 공공정책 필요

추진방향

- 제주도민이 도시 생활 속 체감하고 있는 스트레스 현황 및 상황별 요인분석
 - 전문 조사·연구기관을 통한 내실있고 효율적인 현황분석 및 연구
 - 스트레스 요인분석을 통한 디자인방향 및 시사점 도출
- 과학적으로 증빙된 요소를 적용한 근거있는 디자인 개발
 -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 신체 감각적 부분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요소를 적용한 디자인개발로 효과성 확보
- 확산 가능한 보편적 디자인 개발 및 집약적 적용
 - 제주도민의 스트레스를 생애주기별(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어르신)로 분석하고 생활 디자인을 통해 스트레스 유발요소를 개선함으로써 개인의 정신적 건강함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트레스 프리 디자인' 개발
 - ※ 「Life Stress-Free 디자인」이란 : 현대인의 정신적 건강한 삶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개선함으로써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디자인
 - 일상생활 속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한 대상별 자발적인 스트레스 관리 완화를 위한 디자인 솔루션 개발로 확산 가능성 고려
 - 스트레스 유발요인 다분포 지역의 집약적 적용으로 효과성 극대화



해외 참고사례



디자인적용 예시

사례

1. 서울시 신현중학교

- 서울시는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생애주기별 스트레스 현황을 분석해 과도한 학습 부담과 학력위주의 경쟁적 학교 환경으로 가장 높은 스트레스 인지율을 나타낸 10대 청소년을 첫 번째 사업대상으로 선정
- **스트레스 프리존**
 - 명상, 음악 감상, 컬러테라피, 독서 등 7가지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제시함.
 - 차분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녹색 계열의 색상이 사용돼 고요하고 평안한 심리상태를 만들어 줌
 - '스트레스 프리존'에 입장한 학생들은 자신과 같은 교복을 입은 학생 캐릭터가 그려진 '인포그래픽 게시판'을 마주하게 됨. 인포그래픽을 통해 스트레스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익힐 수 있음. 게시판 양쪽에는 태블릿 단말기가 설치돼 스스로 우울증 정도를 진단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정기적으로 진단 시 자신의 스트레스와 우울증 변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음
- **소셜 스트레스 프리 존**
 - 소통과 놀이 등 동적인 활동을 위한 공간. 지적 호기심을 높이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노란색 계열로 조성돼 있으며 고민걱정 털어놓기, 하루 3번 크게 웃기, 매일 체조 30분 등 세 가지의 해소 방안을 제시



셀프 스트레스 프리 존



소셜 스트레스 프리 존



학생들이 놀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다.

4.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

학교폭력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진로, 또래관계, 소통, 가정환경, 지역환경 등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내·외적 원인을 분석하고 학교, 지역사회와 지속적 연계를 통해 다양한 물리적·사회적 디자인서비스를 개발 및 적용함으로써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 조성

추진배경

-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청소년기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심가해지고 있음
- 학교 밖 학교폭력 예방 정책 사각지대 발생
- 폭력의 유형 및 지역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보편적 정책으로 실효성 부족

추진방향

- 대상지역의 학교폭력 유형·원인, 지역특성 등 분석
- 보편적 적용 및 지역 특수성 고려한 맞춤형 디자인 솔루션 도출
- 디자인 솔루션 적용 및 구현
- 시범사업 완료 후 시설물 및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관리
- 적용지역 유지관리 현황점검 및 효과성 평가 기준 마련

사례

1. 송파구 삼전동 배명중학교 인근

- 문제점
 - 지역 내 어둡고 방치된 우범공간 다수,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 문화
- 개선방향
 - 지역사회와 청소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관계 접점을 늘려 학교폭력 안심 지역 만들기
- 디자인컨셉
 - 버려진 유휴공간 활용한 청소년 휴식, 문화공간 조성
- 개발내용
 - 건물 사이길 이용, 휴식 · 문화공간 조성(영화관, 도서함, 휴식 벤치, 공공 와이파이), 어두운 공간 양성화(조명시설), 청소년 · 지역민이 함께하는 아트프로젝트



배명중학교 인근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 추진 사례

2. 도봉구 방학동 방학중학교 인근

- 문제점
 - 춤, 노래 등 청소년들의 일부 한정적인 문화로 인해 소외되는 학생 다수
- 개선방향
 - 놀이에 의한 관계확장을 통해 소외감 없는 학교 만들기
- 디자인컨셉
 - 놀이문화공간 PLAY@공원 조성
- 주요내용
 - 청소년 컨테이너 놀이문화공간, 놀이테이블, 놀이함 마련, 주요 우범지 개선 등

PLAY@방학

A PLAY@공원



B PLAY@박스



C PLAY@게시판



D PLAY@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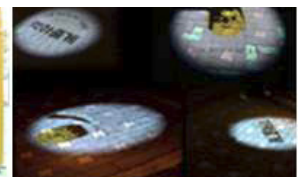
E F 우범지 개선



PLAY@방학 시설물구성도

3. 은평구 충암중학교 인근

- 문제점
 - 다양한 학교폭력 유형 중 또래 간 언어폭력이 가장 심각
- 개선방향
 - 긍정언어 반복경험으로 언어폭력 감소 및 긍정언어 사용문화 확산 유도
- 디자인컨셉
 - 긍정언어를 통한 또래 간 소통과 공감문화 형성
- 주요내용
 - 긍정언어 표출 시설물(전광판,스티커), 긍정언어 방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녹음실, 두려움 유발 골목의 부정적 환경 요소 개선 등



은평구 충암중학교 인근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 추진 사례

발 행 처 제주특별자치도
발 행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발행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발행일자 2017.9

본 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 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본 지침 수립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디자인 방향연구 보고서들의 요약본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표준편람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제주특별자치도 기반시설 유형별 디자인 개발
제주특별자치도 2020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서울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발췌 및 인용했음을 밝힙니다.